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현대불교

원적외선 사찰 난방 전문
-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
고정협찬 : MBC-TV 러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시 공 처 : 통도사 백운암, 변산반도 월명암, 정선 불암사, 철원 장안사, 서울 불광사, 북한산 삼봉사, 포천 장안사, 기평 불광사 법흥사 등
웰빙온코리아 http://www.wbkor.co.kr 전화 02)538-8489, 551-3010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12월 15일(음력11월 4일) 수요일 (주간) 제504호

국제포교 현장 '부실' 투성이

국제포교사 외국어 능력·포교전략·재원 등 함량 미달 지적

"선발·운영체계 정비해야" 여론

조계종 국제포교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국제포교에 적극 나서겠다는 종단 방침과는 대조적이다.

포교원 향후 10년 계획에 국제포교 활성화가 핵심사안으로 포함되고, 12월 14일에는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국제종책 세미나'도 열린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7일 가진 교계기자 간담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해외포교 활성화 등 국제포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런 관심과 달리 실제 국제포교 현장에서 뛰는 국제포교사 양성과 관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첫 국제포교사 고시 이후 올해 11월 30일 선발된 인원까지 등록된 국제포교사는 200여명. 하지만 현장에서 뛰고 있는 포교사는 1/3 수준에도 못미친다. 3년마다 한번 있는 포교사 자격 갱신 때에만 나타나는 얌체 유령회원들도 상당수다. 심지어는 미국 비자발급의 편의를 위해 자격증만 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왜 이렇게 활동이 빈약하고 관리체계가 부실할까? 국제포교사들의 단체인 포교원 국제포교사회(회장 김봉래)는 교육체계의 부실, 국제포교사회 차원의 일감 부족, 포교 전략 부재, 재원 부족, 국제포교사 자질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꼽는다.

국제포교사회 1년 예산의 대부분은 포교원에서 지원하는 상주 간사 인건비와 소정의 사업비가 전부다.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 보니 독자사업 추진이나 포교방법 연구 등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국제포교사 자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외국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국제포교사도 적지 않다. 선발과정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평가기준도 모호하고 선발자체도 다양한 평가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사에 참가한 포교국장 선웅 스님은 "이번 합격자 가운데 일본인 쥰코씨는 한국불교에 대한 소양은 조금 부족하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등 포교의지가 있어 합격시켰다"며 이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합격자 기준이 언어능력에 치우치다 보니 국제포교사 자질 부족이 따라온다. 포교원 주관으로 매년 4~10월 진행되는 국제포교사 양성과정만으로는 불교적 소양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나마 내년에는 예산문제로 양성과정이 폐지됐다. 국제포교사에 대한 재교육의 부재 역시 자질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악순환을 양산하는 요소다.

김봉래 국제포교사회장은 "교육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과정이기에 국제포교사회가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해 포교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제포교사 활용 기회를 보장하고 활동의 장을 열어주는 것은 종단의 과제이다. 국제포교사회는 적절한 관리체계, 재교육 프로그램, 팀별 영역 구축 작업 등을 통해 포교사들의 적극적 활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양장운 국제포교사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실효성이 없다. 국제포교사회 재정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심 전통사찰에서 국제포교사회와 결연을 맺고 매주 외국인을 위한 법회, 다도, 참선 등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국제포교사회 지정 사찰에서 외국인 전문 법회와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뒤따라야 한다. 국제포교사 응시자격 기준을 2년제 불교교양대학 이수자로 제한하고 동국대학교나 승가대학교에 국제포교학과를 세워 전문인력을 배출해야 한다고 국제포교사회에서는 말한다. 3년마다 있는 국제포교사 자격갱신을 위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3년간의 포교활동보고서 뿐 아니라 회비납부, 교육 참가, 팀 참가 여부 등을 포함한 평가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 확보를 위해 영역서 출판사업 같이 국제포교와 밀접한 분야의 재원 마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포교원에 국제포교 전문가 또는 연구팀을 구성해 보다 전문적인 국제포교 전략과 국제포교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됐다.

국내 외국인의 성향, 해외 불자들의 성향 등 다양한 연구 주제를 파악해 총체적인 국제포교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지 못한다면 조계종의 국제포교 활성화는 요원하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가톨릭과 불교미술인의 만남展' 개막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 스님)이 주최하는 '가톨릭과 불교 미술인의 만남展'이 12월 8일 서울 사간동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장익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총무, 도후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조계종 문화부장 성정 스님, 김광삼 현대불교 신문사 사장,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 조승환 동국대 교수 등 1백 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불자 작가로 참가한 류종민 교수(중앙대 조소과)가 아크릴 거울과 한지로 제작한 자신의 공예작품 '월인(月印)'을 내빈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법장 스님, 류종민 교수, 장익 주교, 도후 스님, 김광삼 사장. 사진=박재완 기자

"공식사과 못합니다"

정장식 포항시장 교계 요구 거부… 종편위 "퇴진운동"

정장식 포항시장이 불교계가 요구한 '홀리클럽' 탈퇴와 공식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포항종교편향대책위(이하 종편위)는 12월 6일 성명서를 통해 "9일 낮 12시까지 정장식 포항시장에게 포항 기관장 홀리클럽에서 탈퇴할 것과 정 시장의 종교편향 정책에 대해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된 범불교대회를 퇴진운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정 시장은 대책위가 제시한 마감시한 까지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아 불교계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종편위는 더 이상의 대화를 중단하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 시장 퇴진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에 따라 종편위는 12월 15일로 예정된 정 시장에 대한 '규탄대회'를 '퇴진대회'로 전환키로 하고 포항불교사암련, 조계종 대구경북 5개 본사, 태고종, 천태종 대구 경북지부, 진각종 포항교구청, 법화종 동해교구 12개 단체를 비롯한 불교계 전종단이 참여하는 '사회와 종교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범불교도대회'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이와 함께 종편위는 정 시장의 종교편향행위 등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제10회 신행수기 공모 마감 임박

원고지 30매…12월 15일까지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및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유마상 10돈) 열쇠를 각각 수여합니다.

'현대불교'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현대불교'는 지난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함께 불교발전을 일굴 영구독자를 모십니다.

■ 영구독자 혜택
현대불교신문 영구독자에게는 평생 신문을 보내드리며, 자녀에게도 혜택을 양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영구 구독료 62만5천원(일시불 납부)

■ 구독신청 및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TEL: 직통 (02) 737-0090 / 대표 02-737-8881 / FAX: (02) 737-0697

스마트폰 '아이 벗' 무료 증정

올해 12월 말일까지 영구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불자들을 위한 스마트폰(HP rw6100 기종, 시중가 72만6천원) 아이벗(I-BUD)을 무료로 드립니다.

■ 아이벗(I-BUD) 제공조건: 12개월 의무사용, 가입비 3만원 별도

■ 아이벗(I-BUD):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며, BUD는 Buddha(부처), Buddy(친구)를 뜻합니다.



※상세정보 32면 광고 참조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할'



그림·조태호

도견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봉 老天堂 月下 大宗師 涅槃 一週忌 추모법회 및 부도탑 제막식 행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재와 부도탑 제막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문도스님 및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12월 20일 월요일
- 시 간 : 오전 10시
- 장 소 : 설법전 및 부도원
- 주 소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 연락처 : 종무소 055)382-7182~7

※ 노천당 월하대종사의 비문에 등재될 문도질을 최종 점검하고 있으니 1주기 추모법회 직후 주지실에 비치된 명단에 누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에 확인절차가 끝나면 누락,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될 예정이오니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8년 12월 15일

대한불교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문도일동 합장



승단을 바르게 '외호' 하는 길

얼마전 동창들 모임이 있었다. 모이면 정치부터 종교 얘기까지 다양한 토론이 넘쳐난다.

모임 끝무렵에 가서 한 친구가 나에게 불쑥 말을 던졌다. "야, 너희 스님들 아주 멋지더라!" 그 말이 진정 좋은 의미로 던진 것은 아니라는 것은 비아냥 대는 듯한 그 태도에서 알 수 있었다. 친구는 이어, 번쩍번쩍한 승복을 입은 어떤 스님이 최고급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을 무슨 큰 폭로거리인양 떠들어댔다.

"너네 목사님들은 안 그러냐?" 나의 반격이 가해졌지만 순간 나는 나의 성급함을 후회했다. "옛날 무학 대사와 태조 이성계의 일화가 떠오르는구나. '대사 모습이 꼭 돼지 같구료'라는 이성계 말에 무학 대사는 '전하는 부처님같이 보이옵니다' 했어. 이성계가 '서로 농을 하자고 했는데 웬 찬사요?' 하고 인상을 찌푸리자 무학 대사가 '본래 돼지의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엔 부처만 보이는 법이옵니다' 했단다" 라고 말해주었어야 할 것을….



의복·차량 '고급' 선호 여전해
재가자들 '시주문화' 바꿔야

친구 말이 듣기는 싫었어도 한편 마음에 걸리는 말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언젠가 조계사 앞을 지나는데 여기저기 많은 스님들이 대로변에 세워둔 승용차에 오르며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날은 중앙종회가 끝나는 날이었다. 대부분이 고급 승용차였다. 물론 스님들이라고 고급차 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만 그 때 무진장 스님이 생각났다.

내가 조계사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끌고 나왔다가 조계사 앞길에서 무진장 스님이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다. 빈 차가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아 급히 스님 앞에 차를 세우고 어디 가시느냐고 여쭈니 법문하러 가신다고 했다. 제 차로 모시겠다고 하니 한사코 사양하셨다. 택시 타고가면 될 것을 무엇하러 갔다가 다시 오느냐며 기름낭비라고 했다. 이후 두 번 더 똑같은 일이 있었지만 스님께서는 늘 대중교통만을 이용하셨다.

일 때문에 바쁜 종단의 어른스님들이 차를 타시는 것까지야 어찌 언급할 것인가. 교단의 어른 스님은 타도 괜찮고 우린 타면 안되느냐고 항의할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분수를 알고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구름 걷힌 하늘이 파랗듯이 우리들 모두 제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 승가는 출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재가자들은 승가를 사표(師表)로 바른 실천행을 생활화했으면 한다.

재가자들이 스님들의 수행을 망친다고 흔히들 말한다. 물론 극히 일부의 흔적이겠지만 거대한 댐도 바늘구멍만한 틈으로 인해 무너지는 이치를 되새겨야 한다. 고급 차량과 고급 가사장삼을 스님들께 바치는 것만이 복짓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외호(外護)가 무엇인지 새롭게 인식해야겠다. 언제 어디서건 스님들을 뵈올 때 공손한 자세로 예를 갖추자.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 스님들을 위할 것인가.

■ 김대원(의정부시 호원동)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포교사 전문 대학원 설립

조계종 포교사단, 내년부터 2년제 운영

포교사 전문 대학원이 설립된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양성홍)은 포교사전문아카데미 과정을 업그레이드해 2005년 신학기부터 2년제 전문포교사 양성 대학원을 개원 운영한다.

포교사단은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라는 사명감과 자비심, 종단을 외호하는 탁월한 지성과 수행력을 가진 전문포교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대학원 개원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년제 포교전문 대학원으로 구성될 포교사단대학원은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학장으로 추대하고, 포교현장 관리능력, 실력, 수행력을 갖춘 지도교수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통신교육과정을 병행해 마련될 수업은 매주 3시간 안팎으로 포교명상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간호복지 불교장의 등의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다. 수강자격은 불교대학을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포교사단은 대학원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찰문화해설포교사, 사회복지포교사, 청소년지도포교사 등 종단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지연 기자

도의국사 표준영정 제작

제작위, 세미나등 계획

조계종이 종조인 도의국사 표준영정을 제작하는 등 도의국사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조계종조 도의국사 영정 제작위원회(위원장 무관, 이하 도의국사 영정 제작위)는 12월 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영정 제작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종조 선양 차원에서 폭 넓은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열기로 결정했다.

도의국사 영정 제작위는 또 영정 제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의국사 영정 제작위는 무관(총무원 총무부장), 여연(총무원 기획실장), 성정(총무원 문화부장), 현고(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범하(통도사 성보박물관장), 흥선(직지사 성보박물관장) 스님, 김경숙 씨(가사복식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남동우 기자

직지사 새주지 성웅 스님
10일 산중총회서 선출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후보에 상주 남장사 주지 성웅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직지사는 12월 10일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었으나 함께 출마한 영천 부귀사 법심 스님이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성웅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산중총회는 109명 재적에 59명이 참석했다. 성웅 스님은 1970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 71년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설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복지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지선 기자



조계종 원우회 수계법회 조계종 일반직 종무원 모임인 원우회(회장 윤승환)는 총무원장 법장, 교육원장 청화,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계사로 12월8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남동우 기자

1사찰 1가정 결연캠프
내년 1월 초 만해마을

조계종 총무원은 2005년 1월 5~7일 3일간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후원학생 80여명을 초청해 사찰문화 등을 체험하는 '조계종 결연 청소년 겨울캠프' 행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한 후원 스님들과 종로구 결연학생 20명, 각 지역 사찰 결연학생 25명, 기존 사찰에서 지원해온 결연아동 25명, 종립학교 지원학생 20명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이젠 문화복지다"

불교계 NGO '문화복지연대' 창립준비 분주
진각복지재단·황석영씨 등 단체·개인 동참

'물질적인 지원은 경제적 빈곤을 채워줄 수 있지만 정신적 빈곤을 충족시켜줄 순 없다. 그래서 문화복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에 문화활동을 결합해 문화복지 활동을 펼칠 NGO가 불교계 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윤이상 평화재단 등으로 구성된 '문화복지연대 창립준비위원회(이하 문화연대)'는 물질적 시혜위주의 복지 개념을 정서적 만족을 심어주는 즐거운 복지, 찾아가는 복지의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개념의 'NGO 문화복지연대(가칭)' 창립을 12월 16일 공식발표한다. 이날 문화연대 창립준비위는 "문화인과 사회복지인들이 연대해 우리 사회의 불건전하고 모호한 문화코드를 문화혜택을 누리는 문화복지 개념으로 새롭게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선언, '문화촉매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 일례로 결식아동의 경우 후원금 지원 뿐만 아니라 문화공연 또는 전시회 등을 관람시켜 줌으로써 정서적인 만족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연대에는 진각복지재단, 윤이상 평화재단을 비롯,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 국악관현악단 오느름,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 L.M.B 싱어스, 성북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50여 문화·복지 단체가 포함돼 있다. 또 소설가 황석영, 국회의원 신계륜, 한성대 황진수 행정대학원장(이상 고문), 국악인 김종엽(상임 공동대표), 작곡가 김희경, 전각 작가 이시규,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 시인 장지현(이상 공동대표), 성북구의회 이미성 의원 등 50여명도 개인 회원으로 참가한다.

문화연대는 사회복지, 문화연예, 법률자문, 재정 등 4개 분과위원회로 조직을 구성하고, 사무처를 진각복지재단에 설치했다. 발족식은 이후 발기인총회와 창립총회를 거친 뒤 열릴 예정. 특히 창립 직후 홍보와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화복지 분야를 개척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이를 위해 문화복지연대는 내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홍보와 회원 배가에 주력하면서 전국 사회복지현장에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협찬한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복지관에 풍경소리 게시판 보급, 법률적 자문 및 상담, 문화복지의 집 건립 등의 사업을 펼쳐나간다.

문화복지연대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이미성 의원은 "사회복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한 문화복지가 정착돼야 올바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문화복지연대의 활동은 물질적인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애로점을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동참을…"

김근태 복지부장관 법장 스님 예방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 사업에 불교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김 장관은 12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특히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 빈곤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교계에서 범종단 차원에서 그늘진 곳에 자비가 전해지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사찰 1가정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종교계 사회복지 협력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저소득층 자립지원 △아동복지·가정해체 대책 △자살방지·생명존중운동 확산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대책 등이다. 남동우 기자

알림 대불련 총동문회 '2004 자비의 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성기태)는 현대불교신문 후원으로 12월 22일 오후 7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04 자비의 밤'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교계 제 신행단체 및 기관들과 연대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자선 디너쇼 형태로 진행됩니다.

문의 : 019-286-0108(이영근 기획부위원장)

중앙승가대학교 2005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정시모집"나"군> 신입학생 모집요강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립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기본교육기관」입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	학 과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재외국민 등)	비고
인문	불교학과	21	2	
	역경학과	21		
사회	포교사회학과	21		
	사회복지학과	21		
합 계 (명)		84	2	86

※ 수시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 **일반전형**

◇ 지원자격
·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5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위의 학력을 갖춘 타 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입학정원의 100%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고교내신성적	면접(인성)고사	합 계
40%(400점)	60%(600점)	100%(1,000점)

※ 고교내신성적은 고등학교(검정고시 포함)성적 중 학인이 지정한 우수과목 4과목만 평가함.

◆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 2004. 12. 13(월) ~ 2004. 12. 27(월)
◇ 접수기간 : 2004. 12. 22(수) ~ 2004. 12. 27(월, 17:00까지)
※ 단,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고교졸업 (예정) 증명서 1부
⊙ 대입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1부: (2005년 졸업예정자포함)
4) 승적증명서1부 - ⊙ 타 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5) 주민등록 등본 1부
6) 사진(종단 의제규정에 따른 의제를 수한 반명함판 3×4cm) 5매 제출 (2매 원서 / 3매 별도) ⊙ 사미(니)스님은 의제규정 준수 제출 요망
7) 총무원장 추천서(조계종 스님외 타종단 스님에 한함)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 3,000원 2) 전형료: 60,000원

◆ 전형일정
◇ 예비소집 : 2005. 1. 13(목) 13:00 ~ 14:00
◇ 면접 및 인성검사: 2005. 1. 13(목) 14:00
※ 수험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 기 타
⊙ '05학년도 신입생은 전원 수행관 입방 생활을 하여야 함
⊙ 단, 편입생 및 타 종단 지원자는 수행관 입방을 할 수 없음.

편 입 생 모 집 요 강

◆ 모집학과 및 인원

계열구분	학 년	전산코드	학 과	모집인원
인문·사회계열	3학년 (일반편입)	13	불교학과	○○명
		23	역경학과	○○명
		33	포교사회학과	○○명
		43	사회복지학과	○○명
	3학년 (학사편입)	14	불교학과	○○명
		24	역경학과	
		34	포교사회학과	
		44	사회복지학과	

◆ 지원자격
◇ 일반편입 : 2005년 3월 대한불교 조계종 승납 만2년 이상 승려로서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4년제 대학 2년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2005년 3월에 조계종 승납 만 2년 이상인자
※ 타 종단의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지원 가능

◆ 전형방법 및 일정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서류(전적대학 성적) 및 면접전형으로 선발

◆ 기 타
⊙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중 2005학년도 사미(니) 편입생은 졸업 후 구족계 수지 자격을 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처(입시담당자)로 문의하시거나 학교 홈페이지 (www.sangha.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 中央僧伽大學校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031) 980-7713~5

환경 '운동' 만 있고 '책' 은 없다

우수 환경도서 목록에 불교관련서 한권뿐

최근 환경부가 실시한 '우수 환경도서 공모전'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과 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 등 환경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해 온 불교계가 관련 도서 출간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총 256종의 도서 중 92종이 우수도서로 선정된 이번 공모전에서 불교 관련 도서는 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를 위한 지율 스님의 단식 일지를 정리한 <지율, 숲에서 나오다> 한 권뿐. 기독교계가 <생태주의자 예수> <하느님 지구에 119를 보내주세요> <기독교 생명윤리> 등의 책을 출품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모전 결선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은 "그 누구보다 친환경적인 삶을 살았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로 2002년 9월 이후 출간된 불교 관련 환경 서적이라곤 <발우공양>(정토출판)과 <사찰환경의 보존을 위한 법률적 방안>(경서원)을 비롯한 2~3권뿐이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발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외국사례모음>, <쓰레기 제로> 등은 일반도서가 아닌 자료집 형태로 발간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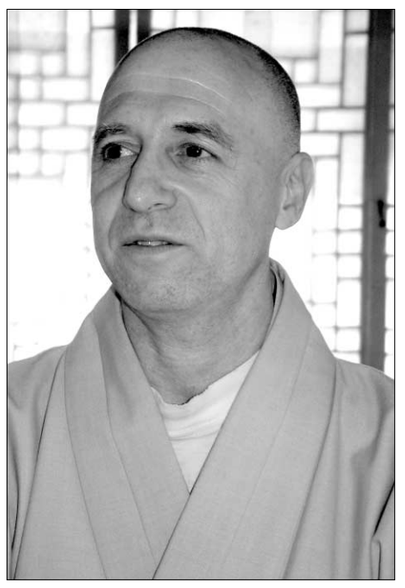
환경교육원은 "올해 내로 일반 가정에서 '쓰레기 제로 운동'을 실천한 결과 사례집,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관한 내용도 책으로 펴낼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 역시 경제적 여건 상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료집 형태로 출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불교계 출판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누적된 경영난과 얼어붙은 출판시장 때문에 그나마 일정한 수요가 있는 스님의 법문집이나 경전류를 제외하곤 출간 자체를 꺼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율 스님의 <지율, 숲에서 나오다>와 새만금 사업 반대를 위한 '삼보일배'의 의의를 정리한 <새만금,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도 불교계 출판사가 아닌 일반 '메이저'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이처럼 불교관련 환경서적의 출간이 저조한 이유로는 불자들의 인식부족, 교계환경책자들의 낮은 질, 유력 출판사들의 환경서적 냉대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김소장은 "오늘날 인디언들의 생태적인 삶을 다룬 책에는 열광하면서도 정작 그 어느 종교보다 친환경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스님들의 삶을 다룬 책은 아직 단 한권도 출간되지 않았다"며 "이제 이슈를 좇는 환경운동에서 벗어나 불교적인 환경, 생태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책을 출간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여수령 기자

'선사'들이 해외포교 이끌 것

인터뷰 숭산 스님 외국인 맏상좌 대봉 스님



"숭산 스님은 대단한 선지식이었을 뿐 아니라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12명의 선사와 25명의 지도법사들이 32개국 120여 개 선원에서 정진중인 5만 여명의 외국인 제자들을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숭산 스님 원적 후 해외 포교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숭산 스님에 앞서 구산 스님이 1970년대 초 순천 송광사에 국제선원을 개설하고 많은 외국인 스님들을 길러냈지만 구산 스님 원적 후 대부분 자기 나라로 돌아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12월 7일 불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숭산 스님이 입적한 후 외국인 제자들을 어떻게 안고 나가는가가 관건"이라며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에게 국제선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월 10일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만난 숭산 스님 맏상좌 대봉 스님(대전 무상사 조실 · 사진)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화계사에서 동안거 결제 중인 대봉 스님은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와 아침 예불을 드린 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참선을 하는 등 여느 납자와 다를 바 없이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 제자 중 가장 먼저 숭산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스님은 미국 켄터키주립대학 경영학 교수를 지내다 1977년 숭산 스님을 만났다.

이 후 신도로 미국 프로비던스 선원을 7년 동안 다니다가 84년, 34세에 숭산 스님을 은사로 스님이 됐다. 대봉 스님은 출가 후 결제를 한 차례도 놓치지 않았다.

> 아시아·미국·유럽 등 권역별 관리 시스템 역할분담 잘돼 있어

대봉 스님은 "전 세계 선원은 크게 아시아, 미국, 유럽 세 권역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미국 권역은 대광 · 성향 · 우광 선사가, 유럽 권역은 우방 선사가, 아시아 권역은 제가 중심이 돼 운영합니다. 미국 프로비던스 선센터 조실인 대광 선사가 이 세권역의 연결점 및 중심점 역할을 합니다"라며 체계적인 '역할분담론'을 설명했다.

숭산 스님이 외국인 불자들을 대상으로 조직한 '관음선종'은 재가자의 승복 착용과 지도법사나 선사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 한국불교를 접하기 때문에 '현지 토착화'를 위한 방편이다. 또 승속을 막론하고 누가 얼마나 깨달았는지가 중요하다는 숭산 스님의 지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또 관음선종에서는 숭산 스님에게 깨달음을 인가받은 '선사'와 선원이나 사찰을 맡아 신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법사'로 나뉜다. 숭산 스님의 초기 미국인 제자이자 조계종 재미홍법 관음선원 부원장인 성향 선사의 경우 자녀를 둔 어머니다.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통 한국사찰 '태고사'를 건립중인 무량 스님의 경우 지도법사에 해당된다. 이 외에 조계종 승적을 가지고 있는 숭산 스님 제자도 60여명에 이른다.

대봉 스님은 "만약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화계사 국제선원장인 현각 스님이 처리한다. 사안이 큰 경우 대봉 · 무심 등 6명의 선사들이 논의해 처리한다"며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숭산 스님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수행하다보면 중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대봉 스님은, 종단에 바라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동안거 결제가 끝난 다음 이야기 하겠다"고 답했다.

은사 숭산 스님에 대해 묻자 "할!"이라는 답을 돌려준 대봉 스님에게 "스님은 깨달았습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스님은 곧바로 "당신은 누구입니까(Who are You)?"라고 되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I don't know)"라고 답하니, 스님은 대답에서 '나(I)'를 빼고 '오직 모를 뿐(Only don't know)'이라고 정정해 줬다. 남동우 기자

도롱뇽소송 대법원판결 남아

단식중인 지율스님 청와대 앞 농성 재개

도롱뇽소송 재항고장이 12월 6일 대법원에 접수된 가운데, 7일로 올해만 100일째 단식을 하는 기록(?)을 세운 지율 스님이 8일부터 청와대 앞 진입로 거리 묵언 농성에 들어갔다.

도롱뇽소송시민연대는 12월 6일 우편을 통해 부산고법이 11월 29일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린 도롱뇽소송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재항고는 항고심 변론을 담당했던 이동준 변호사 등이 맡았다. 이에 따라 도롱뇽소송은 다시 한번 법정의 판결을 받게 됐다.

최근 부산고법의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지율 스님은 12월 7일자로 올해 단식 100일을 돌파한데 이어 8일부터는 청와대 앞 진입로 거리농성을 시작했다.

1차 38일(2003년 2월 5일~3월 14일), 2차 45일(2003년 10월 4일~11월 16일), 3차 58일(2004년 6월 30일~8월 26일) 단식을 한데 이어 지난 10월 27일부터는 4차 단식을 진행중이다. 현재(10일) 지율 스님은 천성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경북궁과 청와대 사이 도로 한가운데서 묵언 단식을 계속할 방침이다.

지율 스님의 4차 단식은 환경부가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한 공동 전문가 검토 약속을 어기고 독자검토를 실시한 내용을 10월 19일 부산고법에 제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전통불교문화센터 22일 공주서 기공식

한국불교 전통문화사업 개발과 육성을 위한 총괄기관이자 불교문화 중심시설이 될 전통불교문화사업지원센터(이하 문화센터) 기공식이 12월 22일 오후 2시 공주 마곡사 인근 건립부지에서 봉행된다.

기공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기념사, 사업단장 현고 스님의 경과보고,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심대평 충남지사,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오영희 공주시장 등의 축사와 함께 설계업체 대표의 건축개요 설명, 참석 내외빈의 시삽 순으로 진행된다.

문화센터 건립에는 올해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244억원이 투입되며, 불교문화전시장, 공연장, 연구시설, 체험장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남동우 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재추진

진옥 스님 "순수 종교목적 초청 문제없다"

달라이라마의 방한이 재추진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지난 10월 중국에서 열린 한 · 중 · 일 불교대회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을 내년도 종단 중점사업으로 채택할 뜻을 밝힌데 이어, 달라이라마의 한국 불자들을 위한 대중법회를 주관해 온 진옥 스님(여수 석천사 주지)도 시민 · 불교단체들과 연대해 1월 초순까지 방한추진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진옥 스님은 이를 위해 최근 달라이라마의 방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단체들의 대표들을 만나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력을 부탁하고 방한추진위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진옥 스님은 "순수종교목적으로 달라이라마가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정치권에도 정부의 비자발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국책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내년부터, 500억 이상 규모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500억 이상 규모의 모든 국책사업과 도로건설사업이 2005년부터 공사 시작 이전에 환경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수많은 사찰이 소재하고 있는 국 · 도립공원을 비롯한 사찰인근 지역의 난개발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2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에 국가와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로, 철도, 댐, 항만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부터 사전환경성검토가 실시된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전할 지역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실상사 화엄학림 제 9기 학인 모집 안내



한국 불교 수행의 주류인 禪의 사상적 토대는 곧 화엄입니다. 일찍이 先師들은 화엄을 통해 禪의 사상체계를 세웠으며, 禪을 통해 화엄의 실천적 입장을 넓혀감으로써 禪敎가 일치된 조화로운 수행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수행을 닦아가기 위해서 화엄사상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상사 화엄학림은 화엄경의 탐구와 실천을 통하여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고 새 시대의 승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2년 과정의 조계종 전문교육기관입니다.

화엄학림의 수업은 경전의 자구 해석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말로 번역된 경론을 교재로 합니다.

경전의 사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주요 논점을 잡아 집중 토론하는 논강의 전통을 따릅니다.

그리고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해와 실천행이 하나 되는 길을 찾습니다.

이처럼 화엄경을 통해 불교 사상을 확립하고 자신의 수행을 바로 세워 가고자 하는 스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아 래

◈ **교 과 목 :** 중관개론 · 유식개론 · 화엄사상사 · 화엄현담 · 화엄경(80화엄) · 한문독해

◈ **응시자격 :** 기본교육기관(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불교학부, 기본선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구, 비구니 혹은 사미, 사미니

◈ **제출서류 :** ●입학원서(학림소정양식)1부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서 1부 ●사진 4매(반명함판) ●승려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각 1부

◈ **원서교부 및 접수 마감 :** 2004년 9월 20일 ~ 2005년 2월 27일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실상사 화엄학림, 종무소, 인터넷- http://cafe.daum.net/silsang4

◈ **전형일시 :** 2005년 2월 28일 월요일(음 1월 20일) 오후 1시. 실상사 화엄학림

◈ **입학일시 :** 2005년 3월 2일 오전 10시

◈ **문의전화 : (063) 636-3994 · 3990 · 3861**(화엄학림), **636-3031**(종무소)
메일 - bkhk34@hanmail.net/manjusri@kornet.net

※ 입학 희망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학일 이전에 미리 와서 거주할 수 있으며 화림원 선원에서 동안거 기간동안 실참 공부와 병행하고 있는 '書狀' 공부의 청강 및 학림 특강과 개인교습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엄학림 상세 안내 : http://cafe.daum.net/silsang4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50번지 지리산 실상사 (우 590-850)

실 상 사 화 엄 학 림 학 장 재 연

기초 교리부터 화두 드는 법까지 일목요연

‘조계종 신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교안’ 나온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조계종 신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교안〉(이하 수행프로그램 교안)을 마련 12월 8일 관계전문가들을 초청, 자문회의를 열었다. 현재 교육원이 편찬해 2005년 2월 간행 예정인 〈간화선 수행지침서〉가 교과서라면 포교원의 〈수행프로그램 교안〉은 지도자용 강의안인 셈이다.

조계종이 수행종풍 진작을 핵심 종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재가불자들에게좀더 쉽고 체계화된 간화선 수행법을 알려주고자 마련하는 〈수행프로그램 교안〉은 중도, 사성제, 팔정도, 연기와 같은 교리뿐만 아니라 화두를 들고 실참(實參)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교(敎)와 선(禪)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수행프로그램 교안〉은 전체 10강으로 주제의 특징과 목표, 세부계획안, 질의응답, 토론해볼 문제 등으로 구성됐다. 교안은 자문회의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수정 후 선원장 스님들의 감수를 거쳐 내년 초 발간될 예정이다. 각 강 별로 핵심내용을 요약했다.

제 1강 불교 수행의 이해

불교란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지향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종교의 공통 목적과 불교의 목적이 공히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선종에서는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현실 이대로가 극락세계’라고 본다. 또 성철 스님과 경전 속 부처님 말씀을 통해 선종의 본래부처 사상과 분별망상 문제를 설명한다. 문제 해결방법은 분별망상을 화두로 다스리며 보시 봉사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제 2강 양변을 여읜 삶-中道의 이해

부처님은 무엇을 깨쳤는가. 그 핵심은 바로 중도다.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한 첫 설법이 바로 중도대선언이다. 여기서 밝힌 중도란 극단적인 두 가지에 집착하지 말고 버리라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중도는 무엇인지, 초기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중도를 어떻게 설명해 왔으며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중도를 어떻게 말했는지, 선종에서 바라보는 중도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역사 속 중도의 정의를 통해 중도사상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모순 대립된 상대적 차별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회통하는 절대 원융의 대원리임을 설명한다. 팔정도 사성제 무아를 통해 선과 교를 아우르는 원리로 중도를 이해할 것을 강조한다. 중도의 독창성을 알기 위해 중도와 중용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 3강 괴로움의 원인과 해법
-사성제, 팔정도

행복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자 종교를 믿는 목표이기도 하다. 행복을 가로막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4고와 8고를 바로 보는 법에서부터 발심이 생긴다.

고통스런 생활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 있나. 바로 사성제에서 찾을 수 있다. 괴로움의 원인인 삼독심과 무명을 바로 알고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부처님이 설한 중도는 곧 팔정도이며 팔정도는 사성제의 도성제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중도와 팔정도, 사성제의 관계를 설명한다.

제 4강 우주의 존재원리-연기

연기는 우주의 존재원리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즉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나의 존재는 5온 12처 18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 만물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정견이다. 정견 즉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우면 분별심을 여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12연기를 이해하면 우리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알게 되고 지혜롭고 평화롭게 사는 길이 열린다. 본래 부처 본래 성불의 이해도 연기를 알면 가능하다. 중도 정견을 깨치기 위해 참선으로 마음을 깨쳐야 한다.

제 5강 지혜와 자비의 길
-무아, 공의 이해

불교에서 ‘무아’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윤회하고 존재하는 현실의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은 연기로 존재하는 일시적으로 화합했을 뿐인 ‘나’가 있다고 설한다. 무아와 공 사상은 ‘없다’가 아니라 우주 만물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이기 때문에 허무주의와 다르다. 제법무아 제행무상 일체개고(열반적정)의 삼법인을 알고 공 사상을 이해하면 지혜와 자비의 길이 보인다.

제 6강 인과법의 이해와 참회(懺悔) 향상(向上)의 길

연기법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원인과 결과가 인과법이다. 인과법을 이루는 업은 신(身)구(口)의(意) 삼업을 통한 행위와 결과인 것이다. 부처님도 인과법은 피할 수 없다. 업을 짓고 사는 불자들은 윤회를 한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중도정견을 바로 알아 수행해서 깨쳐야 가능하다. 악업을 짓고 윤회하는 불자들에게 참회는 중요하다.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보살도의 의미를 되새겨 삼귀의 사홍서원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다.

제 7강 간화선의 이해

선이란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본래 자신이 부처임을 단도직입하는 것이다. 선의 핵심 즉 선지를 체득하는 것이다. 중도 연기 무아 공을 자기 마음에서 깨치는 것이 선이라는 설명이다. 부처님이 깨침의 경지를 말로 표현한 것이 교라면 부처님의 깨친 그 마음을 직접 보인 것이 선이다.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된 조사선은 12세기 대혜종고 선사에 의해 간화선이 주창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간화선은 조사스님들이 제시한 화두를 참구해 깨달음에 이르는 생활 수행법이다. 본래성불,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등이 간화선의 특징이다. 견성성불은 화두를 타파해서 볼 수 있는 자성이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제 8강 화두 드는 법

간화선에서 제시하는 화두는 1700가지이다. 화두는 공안 또는 고칙이라고도 불린다. 화두 참구 전에 발심이 확고한지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간화선에서 스승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선지식을 찾아 친견하고 화두를 받고 정기적인 입실점검을 해야 한다. 화두를 받으면 자기에게 ‘맞다, 맞지 않다’ 분별하면 안 된다.

중간에 화두를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성적인 분별심으로 화두를 풀어 가는 것은 바른 공부가 아니다. 대혜종고 선사가 저술한 〈서장〉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화두드는 법을 설명하고 서산 스님의 〈선가귀감〉에서 나온 화두 점검법과 일상생활에서의 점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 9강 좌선법 이해와 실참실수

좌선을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사선에서는 법문 선문답 노동 좌선 등이 모두 수행이다. 초심자들은 좌선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법당이나 집 등 조용하고 정결한 장소에서 참선을 한다.

방석 위에 앉아 왼쪽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에 올려 반가부좌를 튼다. 허리는 일직선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세운다. 오른손바닥을 단전에 놓고 왼손을 그 위에 얹어 양 엄지를 둥그렇게 한다. 시선은 1~2m 앞 바닥에 둔다. 음식과 수면은 적당히 조절하고 무리하게 화두를 들어 기가 가슴과 머리로 몰리는 상기(上氣) 증상이 나타나면 조용히 걸으면서 기를 다스린다.

간화선은 생활 수행이므로 아침저녁으로 1시간씩이라도 꼬박 꼬박해야 한다.

제 10강 수행공동체의 길 및 종합정리

불교교단은 사부대중의 평등공동체이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는 카스트 신분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평등공동체를 지향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불자들의 수행공동체이다. 사부대중 공동체인 한국 조계종의 역사와 종지종풍을 통해 진정한 공동체란 무엇인지 이해한다. 불교수행은 중도 연기를 바탕으로 하지만 외도수행은 보편적인 진리에 바탕하지 않음을 비교해 알아야 한다.

정리=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총 10강, 각 장 주제 · 특징 · 목표 등으로 구성
자문회의 · 선원장 감수 거쳐 내년초 발간



전문가들이 교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훈동 원장, 박영재 교수, 진명 스님, 선웅 스님, 영석 스님.

“간화선 역사 · 개념 명확히”

교안 자문회의 어떤 얘기 나왔나

12월 8일 열린 〈조계종 신도 간화선 수행프로그램 교안〉 자문회의에서 서강대 물리학과 박영재 교수, 한별정신병원 최훈동 원장 등은 △간화선외에 위빠사나, 주력, 염불 등 여러 가지 수행법에 대한 소개와 서술이 다소 부족하고 △국내외 재가불자들의 수행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불교 용어들을 보다 쉽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최훈동 원장은 선수행과 계율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선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간화선의 핵심 내용인 의단(疑團 · 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문)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고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등 선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다고 제기했다.

재가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피해야

최 원장은 “재가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눈높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승경전뿐만 아니라 초기불교 경전에 대한 인용과 참조도 중요하다”며 “간화선 중심의 주관적 논의에 국한되면 다른 수행법들이 소외되고 결국에는 무의미한 탁상공론에 머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영석 스님은 “달마 이래 선의 모든 부분을 정리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쉽게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프로그램의 목적이 간화선을 체계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위빠사나 같은 다른 수행법까지 정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포교연구실장 진명 스님은 “화두참구를 통해 돈오(頓悟) 경지에 오르게 되면 계율의 의미는 다소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면서도 “수행에서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만큼 좀 더 보충하겠다”고 답했다.

위빠사나 등의 수행법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이견(異見)’을 나타냈던 최원장과는 달리 박영재 교수는 “간화선은 생활선”이라는 견해를 표명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서양의 성인들과 한국불교 고승들의 체험 예시 △수행력이 높은 스님이나 재가불자들에게 입실점검(入室點檢) 받기 △동정일여(動靜一如), 몽중일여(夢中一如), 오매일여(寤寐一如) 등 어려운 용어보다 십우도(十牛圖)처럼 불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부족 △초심자들이 바로 화두를 들기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어 “〈백일법문〉과 함께 〈서장〉 〈무문관〉 〈벽암록〉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가자들의 수행일화를 알기 쉽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2547(2003)학년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선정 우수교육기관

불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불광불교대학은 한국불교의 ‘전법(傳法) 1번지’로 대한불교조계종 인가 전문교육기관입니다. 1979년이래 교계 큰스님과 최고 수준 교수진 초빙으로 명강의를 펼쳐오고 있는 가운데, 초발심과정에서부터 지도자과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눈높이(順次)교육’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Ⅰ. 교과과정(2년제 4학기)
- 1학년 : 불교교리 · 불교역사 개설 · 불교의식문의 이해 · 반야심경의 이해 · 천수경의 이해 · 일반포교론 · 불교의 의식집전 · 바라밀신행과 불광운동
- 2학년 : 불타전 · 한국불교사 · 자원봉사론 · 불교상담 · 수행원리 · 보현행원품의 이해 · 불교문화개론 · 불교관혼상제의 이해 · 불교음악 · 불교미술 · 순수불교

Ⅱ. 모집부분
총 250명(아침반 10:00 ~ 12:00, 저녁반 7:30 ~ 9:30 매주 화요일)

Ⅲ. 지원자격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소지자로 불자(신도)기본교육 수료자

Ⅳ. 전형일정
1. 원서교부 : 12월 19일(일)부터 본교 교무처 또는 홈페이지
2. 원서접수 : 2005년 1월 2일(일) ~ 1월 24일(월) 접수
3. 제출서류 : (신도)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입학지원서(본교 소정양식), 사진 2장(3×4크기 반명함판)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5. 합격자발표 : 1월 30일(일) 본교 게시판과 홈페이지

Ⅴ. 교육동참금
- 60만원(학기당 15만원 등록 가능)
※ 교재비 별도

Ⅵ. 특전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 부여
- 불광법회 명교사(明敎師) 자격 부여
- 학업성적우수자 불광교수단 등용

▌원서 교부 및 문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83 불광교육원 교무처
Tel. 02)417-2551(대표)
Fax. 02)417-2552, aloka-edu@hanmail.net
http://www.bulkwang.org 불광불교대학 · 불광교육원



오라! 2005년, 희망의 빛으로 …

전국 사찰, 새해맞이 등산 · 소원빌기 · 음악회 · 정진 등 마련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가 저물어 간다. 지나고 보면 아쉬움만 남는 사람들. 다가오는 새해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올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을유년을 맞는 '새해맞이' 프로그램이 전국 사찰에서 다채롭게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는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뜻 깊다.

새해맞이 등산은 마곡사, 미황사, 자광사 송광사 구룡사 부석사 흥국사에서, 서원 소원빌기는 마곡사 범어사 갑사 자광사 조계사에서, 새해맞이 타종식은 마곡사 미황사 낙산사 구룡사 수덕사 조계사에서, 새해맞이 작은 산사음악회는 금산사 낙산사 수덕사에서, 새해맞이 참선은 미황사 통도사 학림사에서 운영한다.

이외에도 해맞이 108염주 만들기(범어사), 태극검 공연(금산사), 만두 만들기(낙산사), 윷놀이 대회와 백조 탐조(부석사) 등도 불자들을 기다린다.

자광사 미황사 골굴사는 외국인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찰명	전 화	내 용	날 짜	참가비(성인기준)
공주 마곡사	(041)841-6222	묵은 한해를 보내며 반성하고 새해 발원. 밤 12시 새해타종, 아침 6시 새해맞이 등산	12월 31~1월 1일	3만원/무료(초등학생)
해남 미황사	(061)533-3521	새해타종, 참회정진, 새해맞이 명상, 달마산 정상 새해맞이	12월 31~1월 1일	2만원/무료(중학생 이하)
부산 범어사	(051)508-3123	새해맞이 서원세우기, 해맞이 108 염주만들기	12월 31~1월 1일	3만원
공주 갑사	(041)857-8981	새해맞이 서원세우기	12월 31~1월 1일	2만원/1만원
경주 골굴사	(054)744-1689	해맞이 선무도 기공수련, 문무대왕릉 해맞이	12월 31~1월 1일	2만원
김제 금산사	(063)548-4441	작은 산사 음악회, 승무북 공연, 태극검 시연	12월 31~1월 1일	3만원/2만원
양양 낙산사	(033)672-2448	새해맞이 타종, 작은 음악회, 만두 만들기	12월 31~1월 1일	5만 5천원
부안 내소사	(063)583-7282	변산반도 격포항 해넘이, 곰소항 해맞이, 선화 전시회	12월 31~1월 1일	3만원
양산 통도사	(055)382-7182	참회정진	12월 31~1월 1일	
유성 자광사	(042)822-9990	새해 소원 세우기, 유성온천 체험, 계룡산 등반	12월 31~1월 2일	(외국인만 가능)
원주 구룡사	(033)732-4805	비로봉 정상에서 해맞이, 새해타종	12월 31~1월 1일	2만원
서산 부석사	(041)662-3824	윷놀이대회 (고구마 구워먹기), 백조 탐조 도비산 정상 새해맞이	12월 31~1월 1일	3만원/2만원
순천 송광사	(061)755-0108	송사모와 함께하는 새해맞이, 조계산 등반	12월 31~1월 1일	3만원
예산 수덕사	(041)337-6565	해넘이 산사 음악회, 타종, 탑돌이, 자유수행	12월 31~1월 1일	2만원
영천 은해사	(054)335-3318	탑돌이, 모닥불 참회문 소지	12월 31~1월 1일	1만원
서울 조계사	(02)732-5292	타종식, 떡국 나눠먹기, 새해 소원지 작성	12월 31~1월 1일	
공주 학림사	(042)825-1724	새해맞이 참선 프로그램	12월 31~1월 1일	
고양 흥국사	(02)381-7970	새해맞이 프로그램	12월 31~1월 1일	2만원

'자비의 김장'으로 복지불사 시작

부산 선양사회복지원



부산에 사회복지법인이 하나 더 탄생했다. 공식적인 설립을 선포하기 이전부터 독거노인 후원 사업을 펼쳐 온 (사)선양사회복지원(이사장 김수현)은 12월 8일 '자비 손길 김장 담그기'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자비김장 담그기에는 5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이날 담근 1천5백 포기의 김장(사진)은 독거노인과 무료급식 이용 어르신들,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골고루 전달됐다. 이날 김장을 위해 선양사회복지원 이사인 이영숙 코모도호텔 대표가 배추 1천포기를 보시하는 등 스님과 불자들의 마음이 보태졌다.

특히 선양사회복지원은 부산시 전역의 소년소녀가장 150가구를 부산교육청에서 추천받아 김장 김치 전달을 계기로 소중한 결연의 인연을 맺었다. 김장김치로 맺어진 인연을 향후 밑반찬 지원, 학용품 지원,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으로 정신적인 울타리가 돼 줄 것을 약속한 것이다.

김장 담그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선양사회복지원은 2005년 1월 1일부터 매일 150명의 노인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롯데백화점, 코모도호텔 등과 연계해 독거 노인들을 위한 점심 도시락 배달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부산 대원불교대학 개원법회 봉행

대원정사 대원불교대학(학장 허경구)은 12월 5일 인환 스님을 법사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대 명예교수 인환 스님, 허경구 대원불교대학장, 송석국 전 동국대 총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개원법회는 육법공양, 김범준 법사의 개원경과보고, 허경구 학장 인사말, 최봉수 부산대원불교대학 주임 교수의 격려사, 인환 스님 설법, 축가의 순으로 진행됐다.

허경구 대원불교대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자비와 봉사행을 펼칠 수 있는 기본을 쌓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환 스님은 법문을 통해 "하나의 달이 만강에 비추듯 부처님의 법은 만중생들을 고루 비추고 있으니 여러 불자님들이 대원정사 대원불교대학에서 배움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 나가야 한다"고 법문했다. (051)583-7700

천미희 기자

노인학대예방센터 개소
통도사 자비원서 운영

울산광역시노인학대예방센터(소장 이동윤)가 3일 개소식을 갖고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인학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통도사자비원 울산남구노인복지회관(관장 종선)이 위탁 운영 받은 울산시 노인학대예방센터 개소식에는 울산시 정영자 복지여성국장, 울산시 중구의회 박재환 의장을 비롯한 2백여 명이 동참했다.

종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을 가꾸는 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학대예방센터는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전화(국번없이 1389)를 운영하며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응급조치, 피학대노인, 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052)244-1389 천미희 기자

구미거사림회 10주년 법회

구미거사림회(회장 김홍배)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12월 4일 구미팔레스 호텔에서 기념법회를 거행하고 제6대 김홍배 회장의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미사암연합회장 정우스님(금강사 주지)을 비롯해 신행단체장과 거사림회 회원 등 1백여명이 동참했다.

김홍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거사림회는 자비실천행을 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6년간 거사림회를 이끌어온 김원기 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십년을 돌이켜 새로운 십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에서 공부하는 거사림, 수행하는 거사림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APEC 성공 불자염원 담는다

부산 삼광사 20일 동지예술제 … 4만5천명에 팥죽 공양

부산 삼광사(주지 도원)는 12월 20일 저녁 9시 삼광사 지관전에서 '삼광사 동지 예술제'를 개최한다. 모닥불 액운 소멸 소원성취 불공에 이어 열리는 동지예술제는 제1부 '동지예술제 그 문을 열다'와 제 2부 '2005 APEC 성공! 부산 시민의 뜨거운 열망과 사랑의 힘으로!' 행사가 함께 열린다.

부산광역시, 2005 APEC 범시민지원협의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둘째마당에서 절정을 이룬다. 2부 행사는 초청가수 주현미, 이유진의 공연, 주지스님 인사말씀에 이어 허남식 부산시장 외 내외귀빈들의 디지털 점화, 합창 순으로 진행되며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4백만 부산 시민의 염원을 모으게 된다.

특히 삼광사는 동지를 맞아 직경5m, 높이 1m45cm의 대형 가마솥에서 팥죽을 끓여 4만 5천명에게 무차 공양한다. 천미희 기자

선학원, 장학금 신청 공모

재단법인 선학원은 유능한 인재 육성을 위해 제12회 도제 장학금 신청 공모를 한다. 신청자격은 국내외 일반대학과 대학원의 불교학과 및 불교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자로 평균 B학점 이상, 일정기간 재단이 명하는 종무직에 봉사가 가능한 자다. 신청서류는 2005년 1월 15일까지 재단 교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02)734-9654~6

한편 선학원은 12월 23일 선학원 중앙선원 법당에서 2004년 4/4분기 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남동우 기자

가출 예방 · 보호 사회적 체계 필요

부산청소년쉼터 '가출 청소년 예방과 보호…' 세미나



부산시 청소년쉼터는 12월 8일 개소 8주년을 맞아 가출 청소년문제 예방과 보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해 2만 명에서 10만 명의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정의 해체, 부모의 학대,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잘 보살펴 집으로 돌려보내는 묘안은 없을까?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가출 청소년 보호를 맡고 있는 청소년쉼터에 의해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부산시청소년쉼터(관장 범산)가 12월 8일 개소 8주년 기념 행사로 '가출 청소년 예방과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의 실천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

부산광역시의회 박홍재 의원, 부산시청소년쉼터 소장 범산 스님을 비롯한 2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이날 세미나는 류기형 부산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문선화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신경일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금순 부산시청소년종합상담실 부장, (재)불국토청소년도량 사무총장 지장 스님 등이 토론에 나섰다.

주제 발표에 나선 문선화 교수는 "가출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청소년쉼터의 기능과 역할이 가정의 대안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소년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청소년쉼터 자체의 전문적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지역네트워크를 구축 다양한 서비스로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휴식하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힘을 얻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의 발표에 대해 부산시청소년종합상담실 김금순 부장은 "청소년쉼터의 이용자 수가 가출 청소년수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편하게 쉬며 자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장 스님은 "일시 단기 보호에 그치는 청소년쉼터의 기능을 뛰어 넘어 중, 장기 쉼터의 중요성도 커져야 한다"며 "대상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구조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www.njutcm.co.kr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대학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12월 1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부산 · 경남 접수처 : 한국한의원(☎ 051)501-0025)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7명에게 자신의 장기를 보시한 김상진 불자의 생전 모습.

자비의 '마음'도 보시합니다

12월 초, 국내최초로 뇌사상태에서 환자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해 화제를 모았던 故 김상진(31)씨가 평소에도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싶다"는 말을 해 온 것으로 뒤늦게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11월 29일 갑작스러운 뇌동맥류 파열로 뇌사상태에 빠진 김상진 씨는 서울 구룡사 신도인 어머니 박기월(53) 씨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산 모범적인 불자. 그런 그가 당일 새벽 5시쯤 서울 신당동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오른쪽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상실, 인근 순천향병원에 후송됐으나 결국 뇌사를 선고받고 평소 신념에

故 김상진 불자 뇌사 후 장기기증 7명에 새 생명

따라 심장과 간장 등 장기와 각막을 환자 7명에게 기증했다.

김 씨가 장기기증을 서약한 것은 대학에 다니던 1999년. 어머니 박 씨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내 죽은 육신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면 기꺼이 장기를 보시하겠다"며 장기기증과 각막기증을 서약, 이에 아들 김 씨도 뜻을 함께했다.

박 씨는 "아들은 군복무 중에도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헌혈을 많이 해 대한적십자 표창도 여러 번 받았을 만큼 사랑이 많은 아이였다"며 "생명을 나누고 떠날 수 있어 편히 눈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심장은 확장성 심근증을 앓고 있는 박모(45)씨에게, 췌장은 소아형 당뇨로 투병중인 임모(44)씨에게, 간은 급성간부전증 환자 이모(31)씨에게 이식됐다. 또한 각막은 박모(20)씨 외 1명, 신장은 윤모(34)씨 외 1명에게 한쪽씩 이식됐다. 김은경 기자

충남 서해안 불교시대 열린다

국토정책위 1조505억 투입 내포문화권 개발

불교 중심 테마 기행지역 추진

서산 · 보령 · 홍성 · 예산 · 태안 · 당진 등 충남 서해안 6개 시 · 군이 1조505억원이 투입되는 내포(內浦) 문화권 개발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의 사찰 및 불교문화재 보존 정비를 포함한 불교문화 종합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6개 시 · 군 내포지역의 문화유적과 관광지개발, 도로망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월 6일 밝혔다.

내포문화권은 서산과 예산 경계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가야산 주변지역으로, 서산 마애삼존불, 수덕사 등의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어 불교문화유적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서산 마애삼존불을 중심으로 한 가야산권 △서해 중심의 해양권 △홍성을 중심으로 한 내륙권 △천주교 유적과 연계한 북부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46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불교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은 가야산권. 가야산권 개발은 마애삼존불 등 가야산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는 역사자원에 대한 보존 및 정비와 함께 이 지역을 역사 · 테마 기행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6개 분야의 개발사업에는 9개의 문화유적정비사업과 2개의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불교관련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정비사업 해당 지역과 사찰은 △가야산사적지 주변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예산 대련사 △개심사 △만해 한용운 생가 △예산 봉산 사면석불 △예산 화암사 △당진 안국사 등이며,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개심사와 대련사의 진입도로가 개설된다.

따라서 서산 마애삼존불 · 개심사 · 보원사지-예산 수덕사-홍성 만해 한용운 생가 등을 잇는 불교문화관광벨트가 조성돼 서해안 지역의 불교문화창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포문화권 개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주 · 부여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과 더불어 충남도가 21세기 2대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의 불교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충남도 불교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이번에 확정된 개발계획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단순한 개발에 그치지 않고 불교문화 등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재조명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정암 스님(수덕사 박물관장)은 "개발 과정에서 문화유적 복원과 그 가치를 소홀히 한다면 내포문화권은 단순한 관광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내포지역의 문화와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차원에서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남양주 성관사 인근 환경위험

남양주 성관사(주지 토진)가 절 인근 땅주인의 변칙적인 토지 개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관사 총무 광진 스님은 12월 7일 "절 인근 토지 소유자가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타인에게 8개동 16채의 건물을 짓는 것을 허락하는 토지사용허가서를 써주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건축 계획을 살펴볼 때 허가를 받은 후 고급팬션으로 전환해 무분별한 개발에 나서려는 얄팍한 술수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11월 26일 남양주시청에 제출된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신청서에 따르면, 성관사에서 70m밖에 떨어지지 않는 2300여 평 임야에는 앞으로 30평 규모 주택 8채와 20평 규모 창고 8채가 세워진다. 땅 소유자는 1999년에도 절 바로 앞에 가구공장 목적으로 6개동의 건물을 지으려다 시청에서 건축계획이 반려돼 성관사와 합의하에 3개동의 공장을 지은 바가 있다.

이광길 남양주 시장은 7일 토진 스님과의 면담에서 "성관사의 수행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남양주시 녹지과는 8일 성관사로 "건설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주겠다"는 방침을 알려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성관사는 교구본사인 봉선사와 함께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강유신 기자

"방부병원을 살립시다"



방부불교병원에 입원 중인 스님들이 12월 5일 불교병원 발전을 위한 법회를 열고 있다.

경영난…지난 5일 발전법회

경영난으로 위기에 처한 불교병원을 살리기 위해 지역 스님들이 발벗고 나섰다.

광주 방부불교병원에 입원중인 스님 10여명은 12월 5일 병원 1층 로비에서 '불교병원발전과 환자 쾌유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입원환자 50여명이 동참한 이날 천도재는 불교전통의식대학장 혜공 스님의 집전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혜광 스님(혜광정사 주지)은 "최근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불교병원 살리기 위해 천도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부불교병원은 대학생불교학생회 출신 홍기표 원장의 발원으로 건립된 250여 병상의 준종합병원으로 지난해 11월 개원이후 1000여명의 스님에게 건강검진과 진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현재 방부불교병원은 인근 교회에서 '불교병원 간판 내리기 작심기도'를 하는 등 어려움 속에 경영난까지 겹쳐 '불자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062)221-3204 이준엽 기자

옥천 대성사 청주교도소 위문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12월12일 청주교도소를 방문, 위문법회를 가졌다.

청주교도소 대강에서 열린 이날 법회에서 혜철 스님은 '이웃에게 부처님 이야기하며 잘 사는 길'을 주제로 법문했으며, 신도회는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며 이들을 위로했다.

대성사는 5년 째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청주교소도 위문법회를 열어오고 있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옥천 백운사

작지만 알찬 포교 도량



지난 10월에 백운사에서 열렸던 마을 어르신 위안잔치 모습. 백운사는 해마다 경로잔치를 여는 등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 망일암 범종 복원 조성 계획
어린이 · 학생 · 청소년 법회 20년 전통 자랑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서는 유일한 사찰인 백운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백운사는 사찰이라기보다는 휴식처다. 50년 전 절이 생길 때부터 그랬다. 마음을 먹어야만 가게 되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1년 내내 가지 않더라도 이상할 것 없는 꼭 이웃집 같은 곳. 청산면 사람들에게 백운사는 그렇게 따뜻한 곳이다.

백운사가 위치한 자리는 바로 고려시대 지어졌다가 조선시대에 폐찰된 것으로 추정되는 100여 평 규모의 망일암이 있었던 절터라고 한다. 여기에는 몇 백 년을 하루같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은은하게 들려오는 종소리가 모든 중생을 편안케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망일암의 새벽 종소리가 청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를 대표하는 '청산팔경'의 하나였다고 하니, 그 소리의 깊이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백운사가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계획은 바로 그 종소리를 주민들에게 되찾아 주는 것이다. 백운사 주지 법명 스님은 "범종을 조성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자비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한다.

법명 스님은 노인 요양원 건립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돌봐줄 자식이 없는 노인들도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요양할만한 곳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다.

사실 백운사는 기도처이자 포교 도량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마을과 인접해있기는 하지만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여서 기도하기에는 그만이다. 백운사의 어린이 · 학생 · 청년회 법회 역시 백운사의 자랑이다. 20년 넘는 전통을 이어오며, 옥천을 대표하는 신행단체로 자리 잡았다. 학생회의 경우는 아이들 스스로가 법회를 꾸려갈 정도로 높은 수준에 올라있다. 청년회원들은 농사일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일상에서도 법회를 거르는 법이 없다. 여기에다 매년마다 대불련 수련회도 열리고, 인근 군부대도 백운사에서 법회를 본다.

작은 절이지만 백운사가 우수한 포교도량이 되기까지는 주지 법명 스님의 노력이 컸다. 관음종 총무부장이기도 한 법명 스님은 이곳에서 24년 동안 밤낮으로 뛰었다. 지금도 대전교도소교화협의회 수석부회장, 옥천사암련 명예회장, 옥천경찰서 경승, 옥천향토연구회장 등 10여 개의 단체의 책임자이자 구성원으로서 포교활동에 여념이 없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백운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내일을 맞고 있다. (043)732-8278 글 · 사진/옥천=한명우 기자

Btn 불교TV

乙酉年 새해에 떠나는 불교TV 대만/화련 불교성지순례

2005. 1. 12(수) ~ 1. 16(일) 4박 5일 일정 금액 930,000 원



제1일
인천..... 출발
타이페이..... 도착 중식 후 중정기념관 방문
대중..... 일월담, 현장사, 문무묘 순례

제2일
대중..... 아침 공양 후 출발
고웅..... 용호탑, 춘추각 순례 / 불광사 순례

제3일
고웅..... 불광사 새벽예불 / 국내선으로 화련 이동
화련..... 태노각 협곡, 아미족쇼 관람 / 기차로 타이페이 이동
타이페이..... 도착 / 발맛사지

제4일
타이페이.....국립고궁박물관 / 충열사 / 야류해안공원
양명산 순례 / 온천욕 / 용산사 / 야시장 견학

제5일
타이페이..... 육신불 모셔진 자항사 순례 / 공항으로 이동
인천..... 도착



지도법사
광덕사 주지 혜인스님

불기 2549년 신년을 맞이하여 불자님 108분을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불교TV 사업부 ☎ 02-3270-3333 / 887-2148 여행매니아 02-720-8828 www.btn.co.kr

산과 마을 마음모아 포교불사

전북 고창 · 부안 정읍 · 순창

고창 · 부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고창과 부안지역 불교는 한국불교의 오지 가운데 오지로 치부됐다. 시(市) 단위 도시가 하나도 없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이다.

호남평야의 끝자락인 이 지역은 '젊은이는 떠나고 노인만 남은' 한국농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이들은 농사일에 치여 신행활동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젊은층이 없기에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불자가 없어 희망조차 캄캄한 지경이다.

그러다보니 사암마다 '어떻게 해보고 싶어도 꿈적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불교뿐 아니라 타종교도 마찬가지여서 오늘의 농촌문제는 지역 종교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행히 2001년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변화가 왔다. 상주인구는 아니어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선운사, 내소사 등 지역사찰에도 사람들이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불교오지였던 이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지역불교도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계종 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범여)는 여느 사찰이 그러하듯 지난 몇 년간 건물불사에 주력했다. 강원, 성보박물관, 요사채 등 대중이 거처하는데 시급한 전각부터 복원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주지로 부임한 범여 스님은 "이제 건물불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불교발전과 지역포교를 위해서는 건물불사에만 머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선운사는 지역불자들의 숙원사업인 '선운사 중앙포교당'을 고창읍내에 건립할 예정이다. 내년 개원을 목표로 부지 1200평을 매입한 선운사는 포교당에 법당은 물론 유치원을 비롯해 각종 수행공간이 들어서도록 설계해 놓고 있다. 이 곳에서 지역불자와 일반인에게 불교기초교리, 불교문화 강좌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북 유일의 선운사 승가대학을 개설한 범여 스님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지난 가을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열었다. 받는 불교에서 주는 불교를 지향하는 선운사가 지역민을 위해 개최한 문화공연이었다.

이밖에 선운사는 경승실, 교도소, 군부대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포교도 중점사업으로 정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창읍내에서 가까이 자리한 천년고찰 문수사(주지 선법)도 그동안 건물불사를 피해갈 수 없었다. 당장 쓰러져가는 전각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년 들어 주지 선법 스님은 '공부하자'며 신도들을 다그쳤다. 언제 사라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초하루법회를 복원했다. 내년에는 신도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교구본사인 선운사의 변화에 발맞춰 지역포교에 함께 나서겠다는 것이다.

용화사 주지 법운 스님(고창불교사암연 부회장)은 20여년간 고창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초파일 제등행진, 불교문화강좌 등을 이끌며 불교를 알리고자 애쓰고 있다. 또한 스님은 직접 농사를 지으며 지역민과 호흡을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엔 매실나무 700주를 심어 사찰경제 자립을 꾀하고 있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원)가 자리한 능가산은 국내 유수의 선원이 두 개나 자리잡은 수행처이다. 내소사 봉래선원과 월명암 사성선원은 대표적인 선원으로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했다.

내소사도 서해안고속도로 특수를 톡톡히 보아 평일에도 참배객이 줄을 잇는다. 금년 봄부터 템플 스테이 사찰로 지정된 내소사는 사찰체험에 미8군 병사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지원이 많은 편이다. 내소사 템플 스테이는 현재 14차에 거쳐 800여명이 거쳐갔으며, 인터넷 동호회 '전나무숲길이 아름다운 내소사(http://cafe.daum.net/naesosa)'에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안불교 활성화를 위해 연중 4차례 신도중심 템플 스테이를 계획하고 있다. 내소사는 지역불교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기복중심의 신행을 꼽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내년 2월6개월 과정의 불교대학을 개설할 예정이다.

진표 율사가 민방으로 죽염을 만들었다고 전하는 개암사(주지 혜오)는 현재도 죽염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13년전 주지로 부임한 혜오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전각들을 복원하며 중창불사를 펼쳐 도량을 일신했다.

부안 군청 뒤에 자리한 작은 암자 혜원사(주지 정원)는 부안불교의 현대역사이기도 한다. 처음엔 혜경



고창 선운사 중앙포교당 건립 '활기' 기대

부안 능가산엔 수행바람 읍내엔 포교바람

정읍 내장사 등 교육불사로 단합 · 발전 모색

순창 강천사 시민선방 보현사 연수시설 주목



지역민에게 회향하는 불교를 지향하는 고창 선운사는 지난 가을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정읍의 가장 큰 행사로 자리잡은 부처님 그리기 대회(위).

스님이 후원하는 행사 가운데 청년회가 주관하는 '부처님그리기대회'는 정읍에서 가장 큰 불교행사로 자리잡았다. 금년 7회 대회에는 350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부처님을 화선지에 담았다. 지난 10월에는 지역내 군부대 불자 장병들을 한자리에 모아 '군장병 체육대회 한마당'을 주선했다. 해마다 명절 때는 교도소 수용자 2000여명분의 음식을 준비해 위문법회를 갖는다. 그러다보니 사찰 운영비의 대부분을 포교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읍 · 순창

정읍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단연코 내장사(주지 재훈) 단풍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읍 불교는 일반화 되어있지 않다. 내장사 주지 재훈 스님은 지역불교 활성화의 첫 발걸음을 사암연합회 재건에 두고 주력해 왔다. 지난 여름 신도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기초교리강좌를 운영했으나 크게 성황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번 겨울에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리교육을 겸한 수련회를 구상하고 있다.

재훈 스님은 "정읍시내에 자리한 '내장사 포교당'을 현대화된 회관으로 중창하기위해 설계를 마쳤으며, 임기중에 반드시 기공식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불교회관은 건평 100평, 7층 건물로 법당, 강의실, 각종 신행단체 사무실, 예식장 등을 갖춰 정읍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내장산 벽련암 주지 진공 스님은 정읍경찰서 경승실장을 10년 넘게 맡고 있다. 경승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정읍 경찰서 유치인과 경찰불자들을 지도해 오고 있는 진공 스님은 호남지역 경승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옛 내장사 터에 자리한 벽련암은 진공 스님의 원력으로 터만 남은 자리에 대웅전, 요사채, 시민선방(선설당) 등 오늘의 대가람을 이루었다. 내년 봄에 개원되는 '선설당'은 48평 규모의 시민선방으로 수행정진뿐 아니라 예절학교, 다도교육, 교양대학 등을 운영해 '불자 정예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읍지역 포교일선에서 가장 바쁜 스님으로 승천 스님(일광사 주지)을 꼽는다. 교도소, 군부대, 학생회, 청년회 등 각종 신행단체 법문은 물론 불교대학 강의에 이르기까지 스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스님이 후원하는 행사 가운데 청년회가 주관하는 '부처님그리기대회'는 정읍에서 가장 큰 불교행사로 자리잡았다. 금년 7회 대회에는 350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부처님을 화선지에 담았다. 지난 10월에는 지역내 군부대 불자 장병들을 한자리에 모아 '군장병 체육대회 한마당'을 주선했다. 해마다 명절 때는 교도소 수용자 2000여명분의 음식을 준비해 위문법회를 갖는다. 그러다보니 사찰 운영비의 대부분을 포교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순창은 지역적으로 고창, 부안에 비해 산촌에 속한다. 그래서인지 타지역에 비해 불교세가 더욱 약하며 두드러진 신행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순창을 대표하는 사찰은 강천사(주지 재덕)로 강천산 깊은 계곡에 자리해있다. 지난 여름, 지역포교를 위해 '사찰체험 수련회'를 공고했으나 일가족 4명만 참석했다. 주지 재덕 스님은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며 "내년에 '심우당'을 시민선방으로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비록 한 사람이라도 찾는 이가 있다면 수련회도 개최하고 선방도 열어놓을 계획이다.

근대 학승들의 요람으로 불리는 구암사(주지 지공)도 강천사와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주지 지공 스님이 벽파-석두-설류-박한영 스님으로 이어지는 구암사 강원을 되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공 스님은 신도 20여명과 구암사 강원복원을 위해 매월 장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몇 해 전 폐교된 금과중학교를 도암 스님이 인수해 보현사로 개창했다. 스님은 학교건물을 천불전, 참선방은 물론 황토방, 다실 등을 갖춘 연수도량으로 리모델링했다. 교실 한 켠에는 스님이 40여년간 직접 수집한 수석도 전시해 놓고 있다. 또한 스님은 20여년째 홀로된 노인들을 모시고 정진하고 있어 불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전북 서부해안과 정읍, 순창 지역의 불교는 거창하지 않으나 소리 없이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고창 · 부안 · 정읍 · 순창=이준엽 기자

▌인터뷰 / 선운사 주지 범여 스님

"베푸는 불교, 교육 · 전법에 매진"

선운사 승가대 개설 · 산사음악회도 열어



"수행이나 포교에 있어 외형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건물불사의 원력을 승가교육과 지역포교로 돌려 미래불교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선운사 주지부임을 받은 범여 스님(사진)은 진산식 대신 관내 노인 6000여명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펼쳤다. 그것도 사중의 예산을 축낸 것이 아니라 사비를 들여 치른 대규모 잔치였다. 그동안 사찰에서 받기만 했다면 이제는 지역민에게 베푸는 불교를 시행하겠다는 스님의 강한 의지였다.

고창에서 나고, 출가한 범여 스님은 불교세가 열악한 전북에 승가교육기관인 강원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왔다. 그래서 선운사 주지로 부임한 첫해에 우선적으로 '선운사 승가대학'을 개설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인재양성에 혼신을 기울여야 한다"는 스님의 신념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생활불교를 강조하는 스님은 지역포교에 있어서도 헌신적이다. 사찰이 지역민과 하나되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가을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역불자들의 숙원사업인 불교회관(선운사 중앙포교당) 건립을 위해 고창읍내에 1200평의 부지를 확보했다.

내년에 준공될 포교당은 유치원과 신도교육 등 신행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외형보다 내실을 강조하는 범여 스님은 "교구 산하 40여개의 말사와 더불어 '출 · 재가가 더불어 발전하는 교구'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이 말하는 '불교전등회 7일 용맹정진'

"은산철벽 꿰뚫겠다… 성성한 눈빛"

37년전 결성한 해안 스님 결사 뜻 이어



내소사 봉래선원에는 35년째 승속이 하나되어 '7일 용맹정진'하는 결사모임이 있다. 1967년, 근세의 큰 스승인 해안(海眼 · 1901~1974) 스님이 '7일안에 깨우치라'며 주창한 '불교전등회(佛敎傳燈會)'이다.

"전등회는 '내가 먼저 깨달아 이웃에게 전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출 · 재가자는 물론 이교도까지도 마음을 찾겠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정진토록 문을 개방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 대원암에서 열린 전등회 특별정진에 참가한 인연으로 출가사문의 길에 들어선 철산 스님(내소사 봉래선원장 · 사진)은 "해안 큰스님은 평소 자비심 넘치는 스님이셨지만 정진에 임하면 무서운 사자와 같았다"고 회고했다.

백양사 조실 학명 스님 밑에서 7일만에 '은산철벽'을 꿰뚫고 득도한 해안 스님은 평소 "상근기는 언하(言下)에 깨치고, 중 근기는 법문을 들으면 깨치며, 아무리 메주처럼 미련한 하 근기라도 일주일이면 깨닫는다"고 강조했다.

철산 스님은 또한 "해안 스님은 '재가불자들이 수행해야 한국불교가 희망 있다'면서 재가불자의 마음공부를 특별히 강조했다"며 "지금도 전등회는 스님의 뜻에 따라 승 · 속이 함께 매년 (음)3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내소사 봉래선원에서 용맹정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금년 봄, 65회 전등회 용맹정진에는 50여명의 대중이 정진에 임했다.

특히 이번 정진을 마친 뒤에, 정진에 참가한 대중 가운데 한 보살의 발심으로 해안 스님 금강경과 법문을 CD로 복원해 3000질을 일반에 보급하기도 했다.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재덕 스님
순창 강천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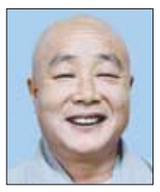

재훈 스님
정읍 내장사 주지


진공 스님
정읍 벽련암 주지


진원 스님
부안 내소사 주지


지공 스님
순창 구암사 주지


도암 스님
순창 보현사 주지


승천 스님
정읍 일광사 주지


법운 스님
고창 용화사 주지


선법 스님
고창 문수사 주지


혜오 스님
부안 개암사 주지


혜경 스님
부안 혜원사


소공 거사
전북불교회 회장







남북 당국간 경색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불교계는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에 의해 복원된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위)과 천태종이 복원을 지원하고 있는 개성 영통사(가운데), 한국제이티에스의 용천역참사 지원(아래).

"대북교류 역량 결집할때"

종단·단체간 경쟁·사업 중복으로 효율 떨어져
범종단 네트워크 구성 상호 협조체계 구축해야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 복원 불사가 마무리되면서 남북불교교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교류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내부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일불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내부 역량결집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12월 14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불교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교류단체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각 종단과 단체들은 '따로' 대북사업을 진행해 왔다. 조계종은 2000년 '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창립해 구호물품과 사찰단청 안료 지원, 신계사 복원 불사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천태종 또한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를 바탕으로 대북사업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진각종은 종단 차원에서 구호물품 지원과 불교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평불협과 정토회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농업지원과 어린이 보육사업, 식량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종단과 단체들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다보니 오히려 불교계의 대북교류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종단의 참여 속에 1997년 창립된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벌이면서 1999년 통일부로부터 공식적인 대북교류 창구로 승인을 받았다. 또 2002년 4월 남북교류 사업의 창구를 종단협으로 단일화하면서 남북불교계는 상호 협조의 고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조는 조계종 등의 주요 종단들이 눈앞의 성과만을 의식한 나머지 각자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깨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상호 경쟁과 중복 교류가 계속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종단과 단체들의 상호 신뢰마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은 "과거와 달리 대북교류단체들의 역량이 성숙한 만큼 각자 사업을 지속하되 실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불교계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웃 종교의 대북사업은 불교계와는 달리 보다 단일화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톨릭은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를 통해 교단과 소속 단체들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며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개신교 역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의 정책을 바탕으로 교회와 단체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두 종교 모두 수백억에 달하는 대북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자체적인 조정과 조율을 거치면서 일관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에 따라 불교계 일각에서는 '협력을 통한 남북불교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초발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단과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부터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남북불교통합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종단과 단체들이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종단협 차원에서 조불련과의 대화 통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통일 이후를 고려하더라도 남쪽 불교계의 역량결집은 중요하다"며 "단체들간의 교류를 통해 남북불교통합의 장기적 전망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내부정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천태종 서울동부 포교거점 마련

망우동 삼룡사 종합불교회관 개관



천태종은 12월8일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350평 규모의 서울동부 포교도량 삼룡사를 개원했다.

천태종의 서울 동부지역 포교도량인 망우동 삼룡사 종합불교회관이 완공돼 지역불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삼룡사(주지 용암)는 12월 8일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350평 규모의 종합불교회관 봉불 및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앞으로 종합불교회관은 대불보전(4층)을 비롯해 법화삼매당(3층), 소법당, 신행단체 사무실, 요사(이상 2층), 사무실, 대중식당(이상 1층), 주차장, 창고, 기계실(이상 지하1층)을 갖추고 지역불자와 시민들을 맞는다.

이날 행사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의 증명으로 봉불·점안에 이어 제막식, 테이프 커팅, 낙성법회 등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천태종의 서울 동부지역 포교거점이 될 삼룡사 종합불교회관 불사에 진력해 온 삼룡사 사부대중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고 치하하고 "주지 스님을 중심으로 모든 신도들이 삼룡사를 천태의 법광을 밝히는 도량으로 키워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삼룡사 주지 용암 스님(천태종 교육부장)은 "종합불교회관은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공간이면서 불법을 전하는 전법도량을 수행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며 "천태일승묘법을 널리 펴는 도량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사찰로 자리잡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운덕 스님, 감사원장 정산 스님, 중앙종의회 의장 덕산 스님, 중랑구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 태우 스님, 문병권 중랑구청장 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했다.

박봉영 기자

불교·밀교분야 논문 6편 발표

진각종 교육원

진각종 교육원(원장 혜정)은 12월 3일 진각종 총인원 강당에서 제6회 진각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논문계획서를 제출해 최종 논문 작성자로 선정된 6명의 학자들은 불교와 밀교 분야의 연구논문 6편을 각각 발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정성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은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수행이 밀교의 수행으로 전개된 과정을 인도와 티베트의 저작에 기초해 살펴본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손신영 고려대 강사는 조선후기 가람연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방에 대한 논문에서 "이제까지 대방건축은 대체로 염불당이라고 인식되고 있지만, 모든 대방건축을 염불당이라고 하는 견해를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근대 중국의 불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우리 불교학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근대 중국의 불교부흥과 인문지식(김영진), 설일체유부의 육인사연오과설에 대한 나가르주나의 비판 연구(배경아), 보리도차제론에 나타난 초기유가행파의 지관연구(차상엽), 업보설과 회향사상의 비교연구(문을식) 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다.

진각종 교육원장 혜정 정사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연구분야의 발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각종과 유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당학회 정기총회

진각종 회당학회는 12월 3일 진각종 총인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회당학회는 내년 9월 '진호국가의 의의와 한국의 진호국가불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종조 회당 대종사의 유적지 탐방을 통해 회당사상을 조명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 활성화 및 메일링 서비스 체계 구축, 한·중학술대회 개최, 한·일학술대회 발표논문 단행본 발행, 소식지 발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회당학회는 학회장에 혜정 정사(진각종 교육원장)를 재선출 했으며, 감사에 상제 정사(홍원심인당 주교)를 선임했다.

또 새 임원으로 배응정 씨(신덕심인당 신교도)를 선출했다.

박봉영 기자

미륵종 조직체계 정비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이 종무행정체계와 조직체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미륵종 중앙종회(의장 연봉)는 12월 8일 김해 관음정사에서 제차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중앙종무행정기관 및 지역교구 종무원, 중앙전문기관의 설치 등을 담안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륵종은 중앙에 총무원, 중앙종회, 감사원을 두고, 기존의 5개 지역교구를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강원 충청 경북 경남중부 경남서부 광주·전남북 등 10개로 확대해 180여 말사를 관리해 나간다. 또 포교원과 호법원, 감찰원, 중앙선원 등 4개의 전문종무기관을 설치해 종단의 전문업무를 관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이날 종회에서는 창종기념법회, 보살계 수계법회, 해외 성지순례, 종도연수교육, 행자교육 등을 담은 2005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2004년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박봉영 기자

본원종 내년사업 확정

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종단내실을 다지는 내용의 2005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계획에는 신년하례법회, 4대 명절 기념법회, 남북평화통일 기원 방생·수륙 천도법회, 종도연수교육, 삼동안거 결제 등이 포함됐다.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은 "내년에는 종정 무구 스님을 정점으로 종단발전과 중흥을 위해 내실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승가종 구족계 수계산림 봉행



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앞줄 가운데)과 수계한 스님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대한불교승가종(종정 월인)은 11월 22~23일 부산 명륜동 서래암 중앙 금강계단에서 제1회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종정협의회 소속 23개 종단의 종정 스님을 증명으로, 총무원장을 인례와 유나로 청한 가운데 승가종 창종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수계산림에서는 20여명의 사미(니)에게 비구(니)계가 내려졌다. 2급, 3급 승가고시를 통과한 스님들에 대한 법계품수식도 함께 열렸다.

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은 "계를 제 몸과 같이 여기고 모든 수행의 근본으로 삼으라"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위덕대 여자축구단 연습 현장

여성 키커 '미아햄'을 꿈꾼다

12월 15일 창단 목표는 3강



위덕대 여자축구팀 감독을 맡은 안경호 감독(오른쪽 두 번째)이 내년 연맹전 3강을 목표로 선수들과 함께 질주하고 있다.

"야! 그렇게 멍하니 서서 받는 게 아냐. 달려 나오면서 점프를 해야지."

박경숙(28) 코치의 지시대로 지그재그 달리던 선수들이 펄쩍펄쩍 뛰어오르며 머리로 공을 받았다.

나연이가 공을 높이 올렸다. "선미야, 여기!"

선미가 가볍게 공을 받아 넘기자 나연이는 "아프지 않냐?"며 빙긋이 웃었다.

이들을 만난 것은 12월 초순, 칠포해변의 갯바람이 매서운 포항 흥해읍의 한 인조잔디구장에서였다. 12월 15일 창단을 앞두고 있는 진각종 종립 위덕대(총장 한재숙) 여자축구팀의 붉은색 트레이닝복 상의 위로 'UIDUK Univ'라는 대학마크가 선명하다.

"왜, 발 앞꿈치를 들어? 그냥 쭉 뻗으란 말이야." 선수들의 몸놀림이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공은 골대 안보다 옆으로 새나가는 경우가 더 흔했다. 초롱이가 다시 한번 힘껏 공을 걷어 올렸다. 공은 골문을 지키던 현수의 가슴께로 정확히 적중했다. "그렇지." 감독의 짧은 한마디에 초롱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8명의 선수를 이끌고 있는 안경호 감독이 신생 위덕대의 감독을 맡게 된 데에는 대학측의 전폭적인 후원약속이 크게 작용했다. 더구나 자신이 불교집안에서 성장한 불자라는 점도 끌렸다.

위덕대는 내년 상반기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조 잔디 구장을 교내에 만든다. 불자가수 김흥국 씨도 기꺼이 팀의 홍보위원을 맡아주기로 했다. 안 감독은 "내년 목표는 3강"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일의 4년제 대학 여자축구팀 학교 전폭 지원…김흥국씨 홍보위원

위덕대 축구팀은 올해 경희대 여자축구팀이 해체되면서 국내 유일의 4년제 대학 여자축구팀이 됐다. 불교계에서는 정규팀은 아니지만 마산의 천태종 삼학사(주지 영재) 여성신도들이 결성한 '삼학여성축구단'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국내 여자축구연맹 소속팀은 위덕대를 포함 8팀 정도. 전문대학 4곳(울산과학, 영진, 여주, 한양여자)와 실업 3팀(대교, INI스틸, 서울시청)이 전부다. 하지만 이곳에도 남자 축구 못지않은 노력과 치열한 경쟁이 숨어 있다.

잠시후 슈팅 연습이 시작됐다.

"그렇게 허리를 뻣뻣이 세우고 차니깐 공이 뜨잖아. 공을 끝까지 쳐다봐." 안 감독이 초롱이에게 소리쳤다.

영진전문대에서 편입한 김정아(21 · 중앙공격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 오른쪽 정강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면서도 운동을 계속해 국가 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접지 않고 있다. 정아는 "수술 후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할까봐 두려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며 스스로를 대견해 했다.

충주 예성여고를 졸업하는 이미해(19 · 수비수)는 팀의 기대주다. 나이는 어리지만 고교급 선수 가운데 최고 실력이라는 평이다. 불자인 홍명보와 김두현을 좋아 한다는 그녀의 목표도 국가대표다.

왜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요즘 세대답게 "그냥 재미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라는 당연한 대답이 돌아왔다. 위덕대가 불교대학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미애는 "불교는 아직 잘 몰라요, 절이든 어디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운동하고 싶어요"라며 대학생활에 기대를 내비쳤다.

훈련의 마지막 코스인 '패싱게임'이 시작됐다. 선수들은 반씩 팀을 나누고 각자 상대팀에 공을 뺏기지 않으려 사력을 다했다. 좀더 적극적으로 뛰라는 감독의 독촉이 계속됐다. 훈련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쁠 지경이었다. 그러나 안 감독은 쉴 새 없이 선수들을 다그쳤다.

"이 훈련의 목적이 뭔지 몰라? 실전에서 상대의 수비를 제치고 순식간에 치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멍하니 있는 놈들은 뭐야! 움직여 더 빨리, 더 빨리!" 전 후반 15분씩을 뛰는 선수들은 벌써 땀에 푹 젖은 모습이었다. 코끝이 시릴 정도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무색했다. 이들에게 축구는 자신과의 싸움이서 이겨야하는 수행과도 같다.

아직은 수줍은 소녀의 모습이 더 많이 남은 이들이 영화 '슈팅 라이크 베컴(Bend it like Beckham)'의 주인공을 꿈꾸며 '내일'을 향해 강슛을 날리고 있다.

포항=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2 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3 일	전용버스	소림사, 탑림, 백마사 순례
4 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5 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화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저사, 옹화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산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팁 불포함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 자	교 통	일 정
1 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 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 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 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 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팁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찾아가는 포교로 패러다임 바꾸자

조계종 포교원이 수행플러스 포교전략 10대 부문과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1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계획을 공개했다.

수행플러스 포교전략 10대 부문은 △조계종 신도 정체성 확립 △조계종 (핵심)신도 양성 △조계종 신도 교육 수행 포교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종단 포교행정시스템 구축 △포교 전문인력 양성과 네트워크화 △미디어 포교의 활성화 △법회 의례의식의 개선 및 한글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 △전략지역 포교 활성화 △국제 포교 활성화 등이다.

포교원의 10개년 계획에 대해 공청회에 참가한 지정토론자들은 '포교 현장의 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이론적인 계획' '신도 수준에 맞지 않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포교이념 제시' '비불자 초심자용 포교전략 없다' '현대에 맞는 포교인식 변화 없는 중앙' '정작 손봐야 할 부분은 건드리지도 못했다' 등 신랄하게 비판했다.

10개년 계획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실제로 포교원이 100대 과제를 시행해나갈 추진력과 재정이 뒷받침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10개년 계획에 현장의 소리 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주경, 동화사 포교국장 혜경,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 명성여고 박영동 교법사, 중앙신도회 이상근 총무부장, 월정사 박재현 기획차장 등 6명이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다. 이론에서 벗어나 포교패러다임을 현시대에 걸맞게 재편하는 작업이 선행됨과 동시에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포교전략을 세울 수 없음을 지적하고 지역의 특성과 성향을 파악하는 전국 포교지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포교종책연구소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본각 스님과 이상근 총무부장은 전문포교인력을 양성해 포교환경 포교대상 포교내용 포교의식 등 전반적인 포교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연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교원 조직구조 개편의 필요성에는 포교부장 일관 스님도 공감했다. 포교원의 역할 재정립과 맞물려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포교원은 각종 포교 정책 전략 수립에 좀더 매진해야 하고 포교행정보다는 포교 프로그램 개발과 일선 포교사찰 단체 등 지원에 인력배치를 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다.

포교에 있어 수행이 강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교전략상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견해도 나왔다. 박영동 교법사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불교의 가치관을 익히고 그 바탕 위에서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포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각 스님은 "수행을 강조하는 포교가 그 효과를 불러일으킬 포교대상자가 전체의 몇 %나 되는지 검토하고 나서 포교에 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앞으로 조직 개편과 체제 정비를 하고 현장의 소리가 반영되도록 포교행정을 연구하겠다. 오늘 여러분이 준 화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교구본사 특성화 포교프로그램 구축에 혼신의 힘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 · 사진=강지연 기자

조계종 포교 10개년 계획 수립 공청회

2005년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별원으로 독립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포교원은 별원 10주년을 앞두고 지난 10년의 성찰과 향후 10년의 포교계획을 수립하는 좌담회와 공청회를 12월 7·9일 잇달아 열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포교원의 포교 10개년 계획 수립공청회에서는 포교현장의 소리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10대 부문 100대 과제로 '큰 그림' 내놔
"행정 보다는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

현장 중심의 포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환경에 걸맞는 포교전담인력과 프로그램 지역별 인적자원 제공 및 연계 등이 종단 차원에서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찾아오는 사람 중심의 포교에서 찾아가는 포교를 통해 쌍방향 포교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박재현 기획차장의 의견은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참여불교 재가연대 박광서 상임대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면 특성화된 포

포교원 별원 승격 10주년 기념 좌담회

1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좌담회는 시대흐름에 맞는 불자 수행, 신도교육 프로그램 마련, 전문 인재 양성 등을 논제로 향후 10년간 포교계획안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회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참석해 포교 현장 사례를 제시하고 포교원 10개년 포교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참석자들은 '포교원 별원 10년 평가'를 통해 "앞으로 포교는 물론 종단 운영 패러다임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약.

▲**정념 스님**: '월정사 단기출가'에 대한 세간의 폭발적 관심은 불교 정신세계에 갈증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적, 종교적 불교 유산을 현대적으로 가공해 현대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변형해야한다.

중앙 행정중심 포교에서 벗어나 현장중심 포교로 나아가면서 중앙과 본·말사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방향 정립 기여 … 변화 따라잡기 미흡"
일관된 방법 · 세심한 프로그램 · 충분한 예산 따라야

이제 종단에서 각 사찰에 일관된 수행방법을 제시, 보급할 수 있어야한다. 조계종만의 특징적 수행 프로그램, 스타일이 필요하다.

▲**수불 스님**: 이제 한국불교가 기복 신앙에서 많이 벗어났지만 '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불자들의 물음에는 여전히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근원적인 것도 모르는 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야 제대로 불법을 홍포할 수 없을 것이다.

▲**지광 스님**: 수행과 지식이 겸비된 전문포교인력양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

능인선원에서는 '살아있는 불교'로 신도들을 교육했다. 스님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신도들이 원하는 스님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고민했다. 그래서 사찰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더니 신도들이 스님을 믿고 따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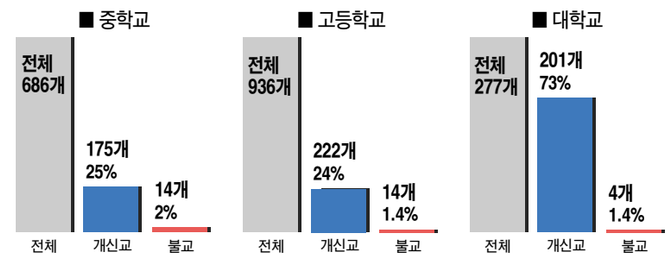
현장에는 학력과 연령 등을 고려한 세심한 포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포교원에서는 포교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현장의 실패와 어려움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언오 전무(삼성경제연구소, 재가자 대표)**: 포교원 예산 20억을 1000만 불자로 나누면 1인당 200원으로 포교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앞으로는 불가 특유의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김강진 기자

종교계 운영 사립 중 · 고 · 대학 수 및 비율



종립中 전체의 2%, 高 1.4%, 大 1.4%

조계종 포교원 자료집 '불교계 현주소' 생생

2004년 10월 현재 조계종 소속 사찰은 모두 2890개이며, 스님은 비구 6395명 · 비구니 5997명 등 총 1만 239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자 국회의원은 16대 43명(15%)에서 17대 34명(11.4%)으로 줄었다. 가톨릭은 66명(24.1%)에서 70명(23.4%)으로, 개신교는 112명(41%)에서 103명(34.4%)으로 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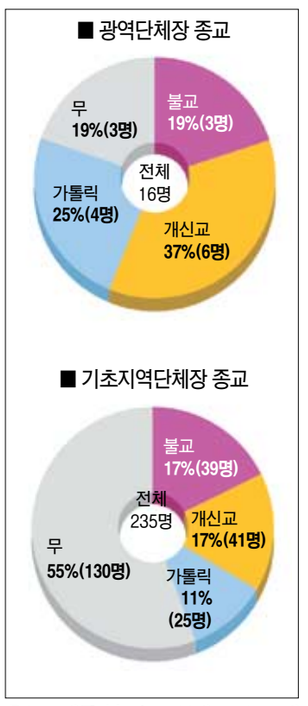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12월 9일 개최한 '조계종 포교 10개년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조계종의 현주소를 다각적으로 보여준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2004년 11월 조사한 단체장들의 종교를 보면 개신교 6명(37%), 천주교 4명(33%), 불교 3명(19%), 무교 3명(19%)이다. 기초단체장은 불교 39명(17%), 개신교 41명(17%), 가톨릭 25명(11%), 무종교 130명(55%)이다.

종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 비율은 불교계가 최저로 떨어진다. 중학교의 경우 전체 686개중 불교는 14개(2%)에 불과해 175개(25%)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개신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여서 전체 936개중 불교계 학교는 14개(1.4%)에 불과했으며 개신교는 222개(24%)에 이르고 있다. 대학역시 전체 277개 중 개신교는 201개(73%)이지만 불교계 대학은 4개(1.4%)에 지나지 않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제공한 '종교계 운영 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총2343개중 불교는 322개(14%)로 개신교 1401개(60%), 가톨릭 620개(26%)에 비해 저조했다.

미디어포교역시 극동방송과 기독교방송이 3%를 선회하는 방송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불교방송의 경우 0.07%에 지나지 않아 0.3%를 기록한 후발주자 원음방송에도 밀리는 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미디어로 본 포교 현실(인터넷 사회/문화/종교 카테고리 순위) 자료제공: 랭킹닷컴(2004.9.15)

	종교명	사이트수	1위 사이트명	전체순위
1	개신교	114	갓피플닷컴	185
2	교회	105	사랑의교회	162
3	개신교동호회	13	직장인 성경공부모임	2821
4	천주교	12	가톨릭인터넷	927
5	불교	38	부다피아	4157

보우승가대학 학인모집안내

초종파적 인재양성을 위한 본 대학은 교계최초로 출가득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출가자(행자)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교의 제반의식과 경전강의및 특강반을 개설하여 유명 강사진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알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과정
▶ **출가자(행자)과정** - 출가득도를 희망하는 남 · 여(1년)
▶ **경전연구자 과정** - 스님및 교임, 관심있는 불자(1년)
▶ **의 식 과 정** - 초심자, 불자, 법사, 교임, 스님(1년)
◎ 기본반 : 4개월(월,화) ◎ 전문반 : 4개월(수,목) ◎ 연구반 : 4개월
▶ **의 식 과 정** -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만 집중적으로 지도함
◎ 바라반 - 바라춤에 관한 일체를 집중 지도함
◎ 착복반 - 다게 도량게 사방요신등 일명 나비춤 을 집중 지도함
◎ 사물반 - 목탁 요령 태징 법고등 사물다루는법 지도
※ 그 외 호적, 서예, 생활역학 등을 희망하시는분 직접 지도해 드림

2 장 소 서울 종로구 창신동 원각사내 ☎ 02)763-5213
(기숙사및 숙식 가능함.주차장 완비)

3 개강일자 **2005년 1월 3일 오후 4시(예정)**

4 모집방법 서류전형및 면접(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보우승가대학 학장 월봉 합장

(주)야단법석과 함께 할.... 모집합니다

· 수익사업을 생각하는 사찰
· 기금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신도회 불교단체
· 신행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갖고자 하는 불자

야단법석은...

● 문수사업부 - 행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봉축행사,
산사음악회 기획 연출

● 보현사업부 - 다음 생을 위한 법회, 사십구재보험

스님은 다비와 사십구재,
신도는 시다림과 사십구재

● 관음사업부 - 법회때마다 음향때문에 고생하셨다면……

법당전용스피커 v-818

● 지장사업부 - 다비는 스님의 마지막 法門입니다.

충남 금산 서대산 일불사 지정 다비장 운영

야단법석 문의 : 050-5244-0108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선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음향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
1. 날마다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아도 고장난다.
2. 렉(RACK)에 보관 하며 한달에 1회 이상 청소한다.
음향 기기도 애정을 갖는 만큼 성능을 발휘한다.
3. 일정온도가 유지 되는곳에 설치한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4. 관리자를 두며 사용 전에 미리 점검한다.
날씨와 집객에 따라 셋팅하여야 한다.
5. 3년 정도 사용하면 소모품을 교체한다.
(마이크, 스피커선, 마이크선, 연결짹 등)
6. 스피커 및 앰프 추가시 전문가와 상담한다.
저항 및 출력을 계산하지 않고 연결하면 고장의 원인이 된다.
7. 사용 후 볼륨을 다 줄인 후 전원을 차단한다.
그냥 전원을 차단하면 스피커에 무리를 준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사원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영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채 요가지도자 용

- 지원자격 : 1. 2004년도 4년제 대학 졸업자 or 2005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요가 수련 경험이 없어도 심신이 건강한자 지원가능 2. 대구 지역 근무 가능한자
- 제출서류 :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주민등록등본 4. 재적 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 접수기간 : 2004. 12. 10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인통보 면접

※ 이메일접수 : albong99@hanmail.net

휘트니스 요가원 대구시 중구 포정동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神 비법 강의
초종파 불문하고 무조건 찾아오세요. 이곳에 선지식 한분 계시니 속지 않을 겁니다. 우주법계가 자신속에 있지만 모르면 道 아니다. 배우고 나면 누구나 훌륭한 道人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용사 법경 합장 ※ 빙의치유세미나
※좋은인연이란 주고받는 거래일뿐이다. 그게바로 福
055-573-7832 / 010-3189-3525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330번지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비구니스님이 만든 야생오미자차
高山에서 자생하는 오미자
기관지,천식,간장병,신장병
쉽게 피로하며 잘 붓는 사람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슈잔드린 함유
055)345-6667

육임역학 비법 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1)245-8575
053)551-1356(011-1763-3567)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삼존불 보시받습니다
(아미타,관음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공주시 계룡면 양하리 금강암 비구스님
041)855-6936

치 질 치 루
● 치열이 있는분
● 통증이 심한분
● 재발이 잦은분
● 한방비법과 운동요법으로 완전 정복함
(스님들께는 특별보시함)
팔공산 천룡정사
017-533-1356,054)336-0052

신축 사찰 창건하실 주지스님 모십니다
강원 인제
011-9109-3660
(24시간 상담)

가족처럼 함께 지낼 공양주보살님과 처사님을모십니다
▷경남 김해 산사
011-693-7742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40 ~ 50대
054)636-0229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기도 가평
011-9723-096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50세. 포항시 근교
010-6658-3397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0~65세
법비내리는 동해사
033)672-2900
033)671-7753
017-554-0737

법납 30년된 50대초반 승려로서 포교 및 사찰운영관리 책임지고 평생 머물곳을 찾습니다
▷부산 경남지역 원함
051)553-574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출퇴근. 80만원
강남구청역 4거리
010-5541-6568
02)458-110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40대 ~ 60대전
부산근교 조계종 사찰
011-693-7742

공양주보살님(45~57세) 포교사(숙식가능-유급) 행자(나이불문) 모심
양주백석 지산리 기장사
02)352-6406

공양주보살님 (50대 이후) 모십니다
▷대구
010-4667-0715

불사동참
중생을 위하여 간병 기도 정진하는 수행자임. 이제 고통에 시달린 몸과마음을 부처님 전에 맞기시고 남은여생 안락하게 살아가실 평생 인연을 모십니다
018-406-3073
스님이 되고자 하는 고졸이상 남,여 행자모십니다

생사리 이백팔과
충남 홍성군 광천읍 덕계리 영도사
041)641-3249

(급)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논산. 조계종
011-791-2889
041)734-8730~1

화주보살 구합니다
02)952-7277

천일기도 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부전도 가능)
02)790-0805
017-515-7527

가족처럼 함께지낼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054)654-4925
011-758-181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 고양시
019-211-8533

사찰종무행정요원모집
PC가능, 신심 용모단정한 30~40대 불자 여성.
이력서(사진첨부), 주민등록1통, 자기소개서
· 접수일 : 2004.12.13일까지 (서류심사후-면접통보)
· 접수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 대구포교원 선광사
053)963-9945

달마도 무료 보시합니다.
액운소멸, 수맥차단 달마도
불자님들의 은혜에 보답코자 천운사를 방문하시는 모든 불자님께(음력, 12월 31일까지) 무료 보시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엄미리 207번지
031-764-3399 천운사 구암 합장

女 36세이하 직원구함
▷운전면허 소지자 숙식가능 (부산)
016-637-6144

사찰운영하고 싶은 비구, 비구니,보살님 초빙합니다
철학상담.
약간의 자금 소유자 환영
017-390-0909
02)2201-0796

산세좋고 물맑은 천하명당자리에 절터를 갖고 있습니다. 창건불사에 동참하실분. 절터, 집터, 묘터, 점포, 상가터 인연되는분 부처님 원력으로 천하명당자리를 무보시로 찾아드립니다.
용천사 용천선원
010-4524-8058

도시환경에는 맞지않아서 포교에 관심있고 인수 받을 능력있는 스님을 찾고 있음. 그리고 40 ~ 50대의 비구니 스님이 사원을 관리할 비구니를 구함
부산설법원 051-441-1430
예천내원암 054-653-1180

운세 10초내에 맞추면 수강신청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똑같은 사주라도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되는일이 없습니다. 조상의 흐름을 찾으세요.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3월 22일(화), 24일(목) 개강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동시강의
▶전국 제 1의 불교대학 · 체계적인 교육
▶주 · 야간반 선착순
출가 학교 및 행자 모집
문의 : 011-9852-0075 충무스님
- 3월 22일(화)-주간반, 24일(목)
- 주 · 야간반 각 요일 선택. 주 1회
- 불교 TV 금강경강의,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큰스님들의 특별 법문
- 인터넷방송국,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문의-대구큰절: (053)474-8228, 경산도량: 811-0337, 칠곡도량: 312-8221
인터넷 홈페이지 : www.TVbuddha.co.kr

이십팔숙 특별지도
● 역술과 이십팔숙의 특수비법을 쉽게 설명
불설 28숙은 모든 역술을 총괄하는 비법이며 이것을 모르고는 역술을 논할 수 없다
●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은 서로 다릅니다
● 지도 : 대주스님
☎ 02)926-1259 / 011-741-0867

학인모집 www.walyoung.com
● 역학, 연수과정(기초 ~ 전문까지)
● 3개월 이수 후 불교대학 등록시 연수과정 산입
● 불교대학 월 1회 2년간 본교 수업
● 오후반 : 2시, 4시 저녁반 : 7시 9시 강의
● 원정스님 직접 강의(원정의 경력 및 저서 홈페이지 참조)
042)222-5786,042)211-4287,011-9429-5786
만대교학대학원 대전교육장

요사채 건축공사 및 내부시설공사 전문
1.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
2. 증축 확장 개보수 공사
3. 보일러 설비 및 위생배관 공사
4. 전기 공사
5. 샷시 창호 공사
6. 미장 방수 공사

불심으로 봉사하는 여일 종합 건축 공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12-22 대표 윤재만
TEL. 02)476-8139 H P. 011-9720-1443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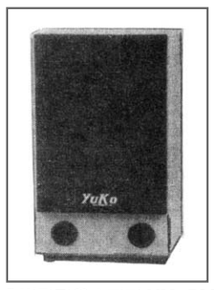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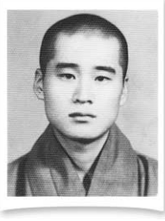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현대인의 성인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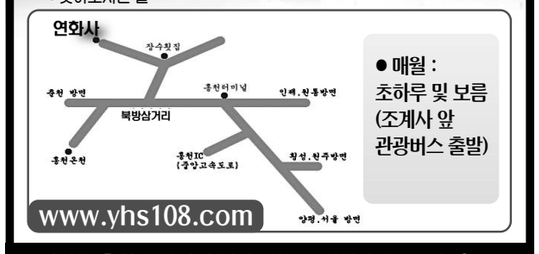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빕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나,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재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한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효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없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꼭 한번 래원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
TEL. 031)376-2748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 찾아오시는 길



● 매월 :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www.yhs108.com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서울 강북구
- 법당 요사 : 60평
- 임대료 : 480/50
- 시설비 : 2000만원

- 위치 : 경남
- 법당 : 1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400평
- 가액 : 1억3천만원

- 위치: 강원
- 임법당 : 30평
- 부지 : 1300평외
- 임대사용 : 2000평
- 가액 : 3500만원
- 공부하는 스님 조용한 기도처 필요한분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안내
- 서울 3억 / 5억 / 10억
- 경기도 : 7천 / 8억 11억 / 13억
- 서울. 수도권사찰. 사찰터 다량보유

양도 운영 하실분 상담환영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서울 : 2억5천, 3억, 4억, 4억3천, 4억5천, 5억, 10억, 12억
- 경기 : 1억4천, 3억, 9억, 11억, 14억
- 충청 : 1억, 1억5천, 2억, 5억, 6억

※ 사찰터 多, 공양주 연결
양도 운영 하실분 상담환영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구합니다
- 장소 : 부산, 대구, 서울 을 제외한 지역은 전화 사절

011-9338-2993

사찰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부지 : 만평
- 법당 : 10평
- 요사 : 35평
- 가액 : 1억 8천

- 위치 : 경북 소도시
- 부지 : 1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5평
- 가액 : 1억 5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대변리 동부산 관광지,버스에서 5분거리
- 평수 : 36평, 2층 법당
- 1층 방 2개, 법당 12평 요사채 15평
- 가액 : 7,500만원(절충가능)
- 시설비 일체 없음. 시설일체

016-819-0318
051)721-6735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 대지 48평
- 건물 :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4천5백만원

041)841-3090
017-337-4168

사찰안내
- 위치 : 포항 죽장 상하옥
- 대지 : 200평
- 전 500평, 국요지 300평
- 신축요사 법당
- 경치좋은곳
- 가액 : 1억 3천만원

054)262-6673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왜관읍
- 평수: 200평, 대지: 200평
- 건물: 43평 2동
- 상태: 시설 A급
- 비구니스님 포교수행도량으로 적합 앞마당 잔뒤, 주변경관 수려
- 가액 : 1억1천9백만원

011-522-4896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1동 망우 4거리
- 4층건물에서 3층
- 법당 30평, 방 2개, 부엌 1개
- 삼존불, 지장전, 산신, 칠성, 신중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9-571-1732

사 찰 안 내 (전 세)
- 위치 : 남양주시내
- 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200평
- 양도가 : 20억
- ※ 산세 계곡 좋음

- 위치 : 천안 목천 IC
- 부지 : 1000평
- 법당 : 40평(목조)
- 요사 : 50평
- 전세가 : 2억 5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 약 40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 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400만원
- 덕산온천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018-601-3389

토굴(급)안내
- 위치 :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 위 맥전마을
- 대지 : 436평
- 건물 : 조립식 1동 황토방1동, 벽돌방1동
- 토굴로 적합(산세수려,전망좋음)
- 가액 : 6천 5백만원

011-9340-1331
043)743-5577

포교당(급)안내
- 위치: 울산 남구 인구밀집지역
- 2층건물 중 2층 (32평)
- 건물 (시설) : 법당 15평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016-640-8133

사찰 터 안내
- 위치 : 신행정 수도권역(명산자락)
- 용도 : 사찰, 별장, 농장, 최대요지
- 대지 738, 전 3,187 답 1,958(우량농지조성)
- 지상물 : 신가옥(원목 고건축 한옥 1동 2004년말 준공) 구옥 1동 비닐하우스100 (현대식)

011-409-9243

좋은 인연 찾음
- 백두대간 지리산 동하 뒤 천황산자락. 무량산. 남 앞으로 천왕봉, 장군봉 좌천룡우백호의 봉황포란형
- 종교부지 300여평 기타 1000여평 태백산 赤松 원통전 30평 요사채 30평 기타 지음
- 자연경관 300여만평의 숲에 쌓임. 숲속산길 일품
- 선방 및 기도처 휴양공간으로 최적. 등산로 옹달샘
- 여러조건 10억 → 지금 5억(불경기 및 급히 인도 요양)

010-8019-4862 고성(경남)

사 찰 안 내
<전원주택>
- 위치 : 의령
- 부지 : 1300평
- 건물 : 50평
- 가액 : 1억 5천
- 한적한 외단 벽돌집

- 위치: 밀양
- 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2억 5천
- 전통한옥 개조한 토굴

- 위치 : 부산근교
- 부지 : 3,0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50평
- 가액 : 4억 8천
- 교통양호한 숲속암자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 부지 : 200평(텃밭, 주차)
- 법당 : 아담하고 시설이 완벽함 삼존불(개금), 각단탱화, 영단, 집기일체, 살림포함
- 몸만오시면 됨.즉시법회가능. 교통편리
- 전세 : 4천만원
  시설비 : 2천 7백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7705-222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도로변
- 3~4층 (방8개) 총 135평 옥상 80평 (노상법가능)
- 특징 : 최고의 위치,시설(시민선방, 불교대학,대중포교당으로 최적지임)
- 가액 : 1억 5천만원(시설비(권리금)포함)

053)745-3334
017-501-7369

포교당 안내
- 위치 : 후암시장 입구 2층건물 중 2층
- 평수 : 12평
- 가액 : 전세 500만원에 월 30만원(시설비 약간)
- 즉시법회 가능
- 철학관 적지
- 땅은 있고 법당 보시하실분 연락바랍니다

02)771-190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읍내
- 대지 : 192평
- 법당 : 28평
- 요사채 : 28평
- 산신각 : 각 10평(2층)
- 가액 : 1억 2천만원

019-292-7025
052)294-7025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동 264-5 주안전철역 2분거리
- 건물 7층 중 4층 90평, 5층 90평
- 전세 8천만원. 6층 건물 45평
- 전세 1천 5백만원. 월100만원

011-734-7918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산면
- 대지 : 약 1000평
- 건물 : 요사채, 삼성각
- 법당 : 20평(삼존불, 단청)
- 특징 : 마산-통영간 국도변
- 가액 : 5억

055)931-9633
011-9521-9633

암자안내
- 위치: 울산시 북구 중산동
- 평수: 100평
- 삼존불, 산신, 용왕, 약사여래불, 신중영가단
- 가액: 전세 2500만원 (양도가능)

052)223-2823
018-550-726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상인동 4층 중 2층
- 방 3개 주방1, 화장실1 총 70평(법당 30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2천만원

011-822-6104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당진군 합덕읍
- 평수 : 총 500평 건평 : 115평
- 시설모두 갖춰져 있음 정원 완벽
- 가액 : 1억 5천만원

041)363-4905
011-325-1272

암자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소재 삼천포에서 5분거리
- 평수: 420평 (종교부지 120평, 전 300평)
- 임법당 15평, 요사 25평, 방5개
- 산세수려, 경관좋음. 35년된 암자
- 가액: 1억5천만원

011-564-9016

사찰안내
- 위치: 경남통영시내
- 법당, 요사 2채, 화장실
- 가액: 보증금 없음 월 2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6355-6397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시장 사거리
- 평수: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2층건물 중 2층
- 약 35평
-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절충

02)6497-09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 평수 : 35평, 5층 중 4층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시설 : 삼존불, 각단탱화, 주지실, 주방

011-317-0582

포교원안내
- 위치: 수원시 장안구
- 3층건물 중 3층. 70평
- 내부시설 A급
- 가액: 1천만원 월11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총 2천만원

010-6304-0036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1동 계산시장 옆 교대역 계산역 5분거리
- 평수 : 총80평, 4층건물중 3층 법당 1개, 방4개, 삼존불, 탱화, 상단, 신중, 칠성, 산신, 영단, 엠프시설 및 집기류 일체 완비
- 특징 : KT1577서비스 불교상담 전화 및 인터넷 광고, 계양구 1회선 독점 대표번호 확보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에 월 80만원, 시설비 5천, 역학하시는 분 유리함

011-424-8668
032)546-4121

사찰안내
- 위치: 강서구 대저1동
- 법당 : 20평
- 요사채 : 30평
- 주지실 : 3평
- 주차장 : 200평

051)941-0195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감전동 부근
- 총 40평 (공양간, 방3개)
- 감전 지하철 역에서 5분거리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500만원 월세 25만원

011-813-8806
051)327-902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일반주택 사찰)
- 대지: 160평
- 건물(시설): 36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즉시입주(법회) 可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답사 후 가격 절충 可)

019-503-7959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평수 : 600평(대지 402평)
- 대웅전 33평(삼존불) 7층석탑, 삼성각 10평 요사 66평
- 경치 전망 좋고 산세 수려
-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143-0098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 110평
- 요사채(1~2층) 60평
- 법당(40평)
- 시설 : 소불 천불 모셔져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853-3843

사찰(급)안내
016-9771-273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성내동
- 크기 : 30평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02)482-1222
011-335-295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홍재 전철역 부근 10분거리 상가건물 1층
- 평수 : 약 50평
- 전세 : 3,206만원
  시설완비
  시설비 : 답사 후 절충가능

02)3216-1118
017-766-2788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평수 : 약 35평, 방1, 부엌, 화장실, 법당, 오불 모셔져 있음. 각단 탱화 갖추어져 있음.
- 가액 : 보증금 2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51-524-8108
011-844-9893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500만원

011-9238-9960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봉덕3동
- 평수: 약80평
- 전통한옥법당. 정원이 아름답고 외관수려
- 즉시법회가능
- 가액: 1억6천 (융자5천7백 별도)

019-473-760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삼천포
- 대지 및 부속토지 3필지 합 930평
- 분할 또는 전부
- 가액: 1억4천만원~ 1억6천만원. 절충가능

016-332-1265
055)832-1265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반야월
- 평수 : 150평
- 법당1, 주방, 방6, 화장실, 창고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년 7백만원 시설비 무
- 특징 : 밭 300평 사용

053)961-022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 42평 4층건물 중 4층
- 법당, 산신각, 방2, 주방, 거실, 욕실
- 가액 : 보증금 4천만원에 월 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7-372-8968

포교당(급)안내
- 위치: 전남 순천시 장천동 도심지 포교도량으로 최적지
- 평수 : 2층, 3층, 32평
- 삼존불, 지장, 신중 모두 갖추어져 있음 집기일체 포함.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 150만원/월25만원
  시설비 : 480만원

061)744-5623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내
- 부지 : 900평
- 법당 : 25평(목조)
- 요사 : 40평
- 양도가 : 2억 8천

010-8678-132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덕포 초등학교 앞
- 평수 : 50평
- 삼존불,지장전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집기 일체 포함, 법회 즉시 가능함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51)303-7477
011-9338-747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총부지 : 813평(대지: 200평, 주차장 613평), 용도변경 되어있음
- 건축물 : 46평(법당, 요사채, 객실) 한동으로 되어있음
- 특징 : 자연석축으로 가람이 조성됨 자연석 다량 보유 (무상양도可) 공터가 주변 200평있고, 구조물 일체양도, 법회즉시가능함
- 가액: 3억 5천(융자 6500만원포함) 답사 후 절충가능

011-9378-5637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건물 내 2층내) 법당1, 방2개, 후원1개 대중방, 욕실
- 주차 : 도로상 일렬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모든시설완비, 삼존불, 탱화, 영단, 복사기, 팩스 etc 집기류 일체)
- 포교와 법회 등, 바로 운영 가능한 최적의 장소임

017)269-2629
032)517-3001

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중심지역
- 상가주택 대지 8m×6m 코너 절
- 평수 : 113평, 건평 120평, 1층 상가 4개,
- 2층 사찰 대웅전 25평, 스님 방겸 큰방 3개, 후불순금탱화, 조성입체 120평, 신중순금탱화 50평, 칠성순금탱화 입체 50평 부처님 순금 4자 반, 삼신불 법단 3단, 홍송조각 연꽃 16자, 자신있게 갖춘 도량
- 가액 : 4억 8천중 잔금 2억 7천만원이며 등기완료
- 좋은조건 : 매월 상가, 입대료 1백 50만원 나옴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포교요충지

※가능성 없는 전화 사절
주인직거래 011-650-848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북구(경북대 후문)
- 평수 : 신축 건물 130평 (5층 중 4 ~ 5층)엘리베이터
-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주지실 40평
- 시설 : 삼존불, 각단 및 사천왕 탱화 500옥불 인등, 방7개, 화장실 5개, 일체 시스템 에어콘, 무선앰프, 집기류 일체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190만원 시설비 1억4천만원

※ 최적의 포교중심지
053)959-0490

도심속포교당겸토굴안내
- 위치 : 부천역사 부천시장부근 유동인구 밀집지역
- 2층 30평, 대웅전, 법당1개 큰방2, 거실, 욕실, 도시가스완벽 온수기, 부처님 금불상, 삼존불, 법단2단, 열석자 조각
- 보증금 : 1천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 스님 개인사정상 1500만원에 보시하고자함
- 비구니, 부전스님, 보살님 도량

010-3166-8483

사찰안내
- 위치 : 부산근교 (시내버스 다니는 신도시)
- 대지 60평, 평당 200-250만원대
- 건물 64평 신축건물 1층 32평 요사채 2층 29평 법당 3층 4평 칠성, 산신, 나반
- 실 수요스님 일절 중계인 사절

011-868-5997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가격 절충)

041)753-3766

"보조선 '여말삼사'에 계승 안돼"

신규탁 · 윤기엽 씨 '元간섭기 선종계…' 공동논문서 주장
인경 스님 김방룡씨 주장에 반박…여말삼사와 관계 '시각차'

"보조지눌 스님의 선풍은 단절돼 여말삼사(나옹 · 태고 · 백운 스님)에 이어지지 않았다. 이 점에서 보조선은 여말 임제선의 뿌리가 될 수 없다."

지난 11월 27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정기학술대회에서 인경 스님, 김방룡 박사 등이 제기한 "한국의 간화선은 돈오점수의 체계며 보조지눌의 간화선풍은 여말삼사에까지 이어진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논문이 발표됐다.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와 윤기엽 박사(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12월 10일 연세대 국학연구원에서 발표한 공동논문 '원(元)간섭기 선종계의 변화와 몽산사상의 수용전개'를 통해 "보조 스님의 선풍은 원간섭기를 겪으며 퇴색해 여말삼사에 이어지지 않아 여말 삼사에게서는 보조 스님보다 몽산 스님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팀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그에 따른 불교계의 변화를 주목, 선종의 부흥과 신앙결사운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무인정권기의 불교계가 원 간섭기에 겪은 변화와 그것이 선종에 미친 영향을 조망했다.


신규탁 교수


윤기엽 박사

다음은 논문요약.

보조 스님(1158~1210)이 활동하던 무신정권기(1170~1270)가 끝나고 원의 간섭이 본격화된 원감충지(圓鑑沖止) 스님 때에 이르면 수선사는 자발적으로 원나라 황제(세조)의 원찰로 전락한다. 뿐만 아니라 충지 스님은 미륵정토신앙을 적극 수용해 보조 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길을 걷는 등 수선사에서 보조선풍은 점차 사라져갔다.

다시 수선사를 일으켜 세운 이는 제 10세 만항 스님. 만항 스님이 원나라 임제종 양기파의 선승 몽산덕이와의 교류를 통해 임제선을 들여오면서 국내의 수행풍토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수선사뿐 아니라 당대의 선종계를 대표하는 가지산문 또한 몽산 스님과 교류, 임제선이 적극 수용된다.

보조지눌 스님은 화두참구를 강조하면서도 규봉종밀류의 선교일치 사상, 지(知)를 중시하는 하택종 사상, 이통현 화엄 사상의 풍모를 두루 포함하지만 원간섭기를 거치면서는 고려 선풍에서 교학적 요소가 점점 삭제돼 화두 참구에만 몰입하는 몽산덕이 선풍이 풍미하게 된다.

몽산덕이 선풍은 <금강경> <화엄경>수지독송, 화두참구, 보현행원, 지계와 참회, 무심수행, 돈오, 선지식의 점검, 견성성불, 당사자의 주체적인 체험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여말 삼사에게서도 나타난다.

규봉종밀의 저서를 읽다가 보조 스님의 저서를 읽고, 여말 삼사의 저서를 읽어보면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종밀 스님과 보조 스님은 통하지만, 종밀 스님과 여말 삼사는 통하지 않는다. 보조선과 몽산선, 보조선과 여말삼사의 임제선 사이에는 각각 단절이 있다.

따라서 여말 삼사의 뿌리를 보조 스님에서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보조종조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장락사지 삼국시대 유적
충청대 조사단 시 · 발굴

보물 제 459호 장락동7층모전석탑이 있는 제천시 동쪽 장락사지는 삼국시대 창건돼 조선 초기까지 6차례에 걸쳐 중창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부터 이 지역을 시 · 발굴해온 충청대박물관조사단(단장 장준식)은 12월 8일 지도위원회에서 "'長' '〇〇六月大吉' '天〇' '責三' 등이 새겨진 기와, 연화문 · 당초문 · 귀면문 막새기와와 용도를 알 수 없는 이형기와편과 승문 · 선문평기와가 출토됐다"며 "승문 · 선문기와는 삼국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장락사가 삼국시대에 창건됐음을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와를 비롯해 출토유물들은 삼국의 문화가 융합되고 독창적으로 재창출된 요소를 담고 있어 제천지역 고대문화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발굴팀은 또한 건물지 유구를 통해 창건 후 통일신라시대 2차례, 고려시대 1차례 등 6번의 중창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같은 성과와 관련 발굴팀은 "장락사지는 장락동7층모전석탑과 함께 제천지역의 가장 중요한 불교유적지이므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안내판을 설치하고, 절터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수로를 유적 외곽으로 설치해 유적 훼손을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박익순 기자

"청소하니 더욱 정드네요"

전국 문화유산자원봉사자 대회 120명 참가

문화재 사랑을 실천하는 전국 35개 단체 120여명의 문화재지킴이가 한 자리에 모였다.

12월 7 · 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전국문화유산자원봉사자 대회. 이번 대회는 그간 문화재 관리정책에서 소외돼왔던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예고한 행사였다.

단체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벤치마킹 차원에서 마련된 수범사례 발표시간에는 학생대상 교육을 특화한 사단법인 한국의 재발견(대표 손용해), 한 가족 한 문화재 운동의 원조격인 안동문화지킴이(대표 임재해), 학생을 주축으로 활동하는 제주문화지킴이(지도교사 이재삼) 등이 발표했다. 특히 보유 문화재가 500여 점이나 되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지역의 실정을 알리고, 그런 여건에서 시작돼 활성화 일로에 있는 '한 가족 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소개해 갈채를 받기도 했다.

대회 이틀째인 8일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창덕궁 연경당의 먼지를 털고 쓸며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연소 참가자 고아라양(제주 문화재지킴이 · 신성여중 3년)은 "고건축 문화재를 청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청소하고 나니 문화재들이 내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틀간 행사에 동참했던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은 "다른 단체의 활동을 보며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창덕궁 연경당을 청소하며 참가자들은 문화재를 내몸처럼 아끼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추진되다보니 대회의 성격에 대한 고민이 불충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이번 대회는 토론회인지 축제인지 성격이 모호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05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지원 예산이 2억 2천만원 신규 편성됐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대회를 여는 한편,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글 · 사진=박익순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56>

열림에 대한 자각

생명의 한 모습(蘊)으로서의 생명체는 결코 머무르지 않는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생명체가 머무르지 않는 열림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관계(關係) 그 자체임을 말하고 있다. 관계란 이것이 있음에 저것이 있음이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음이다.

현대 생명과학은 지금까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오온(五蘊)을 해체해 각 구성인자를 찾아가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결과 유전자 지도가 나오고 단백체공학이 나타났으며 생명체복제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제 되돌아보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는 현대 생명과학에서 더욱 요구되는 것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인자에 대한 지식이나 이들에 대한 조작이 아니라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균형잡힌 관계에 대한 지식이며 이러한 관계의 복원, 그리고 이를 위한 전체적인 연구 방향의 정립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과학이란 이름으로 해체해 온 관계의 복원과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불교는 생사(生死)를 뛰어넘는 깨달음을 말한다. 허나 깨달은 자가 죽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불가에서는 불이(不二)라는 말이 있듯이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그렇다면 생(生)을 그리 열심히 추구하는 생명과학과 불가의 연결점은 어디일까?

생명과학이 지금처럼 생명체의 소멸이라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살아있는 상태에 대한 집착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불교가 지향하는 고(苦)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고란 열린 관계가 머물러 닫히며 억압될 때 생겨난다. 따라서 생명과학이 관계에 바탕을 두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명과학의 바닥에 깔려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전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과 삶과 고통에 대한 인식전환을 말하고 있다. 우리의 인식이 이 세상은 살아있어 항상 열려 있는 관계 그 자체이라는 것으로 철저히 바뀌어야 한다. 이미 이 세상(생명)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식의 전환을 통한 열림에 대한 자각이란 그 무엇도 절대화 시키거나 이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멀리해야 함을 뜻한다. 주위에서 종종 깨달음이라고 말하면서 승속을 막론하고 어려운 말로 열심히 이야기하는 이들을 본다. 그것은 닫힘이다. 깨달음이 체화(體化)되어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는 일상의 언어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깨달음은 머물러 닫혀 죽은 것이 된다. 선종(禪宗)의 위대함은 일상(日常)의 재발견을 통해 불교를 재발견한 것에 있다. 그렇기에 밥 먹고 잠자며, 생로병사가 있는 이 일상의 삶은 버려야 할 화택(火宅)이 아니라 생명체의 천진(天眞)한 모습이니 생명과학은 이를 위해 있을 뿐이고, 그렇기에 불교를 통한 생명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조건 죽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를 중생수순(衆生隨順)으로 열려있게 하여 진정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은 살아 있기에 항상 열려 있는 것
일상의 재발견 통해 깨침의 삶 추구해야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그림 : 문병성

佛心에 원력이 깊으신 투자자를 모십니다
국내최초 불교병원
방부불교병원은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자비실천운동을 펼치는 불교종합병원입니다.

"
병자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만일 병든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돌보지 않으면 법률로서
다스리리라.
이것이 내가 내린 명령이니라.
〈증일아함경〉
"

제일은행 725-10-022949(예금주 방부의료법인)
투자문의 062-221-3204
011-655-1406 / 011-613-9050

불교세가 약하다는 호남의 중심 광주 한복판에 '불교'의 이름을 걸고 佛法 수호는 물론 부처님의 慧命을 받들고자 신명을 다해 250여 병상을 갖춘 '방부불교병원'을 개원해 1년여를 운영해 왔습니다.
오로지 빛고을 광주에 佛心을 일으키고, 열악한 불교 의료환경에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마음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영 미숙으로 상당한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부처님 전 눈물로 기도에 매달리지만 현실의 냉정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 제방의 대덕스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佛心에 원력이 깊으신 佛子 여러분에게 투자해주시기를 읍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전 애원하면서 중생 환우들을 구하실 法友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약사여래불

갑신년 10월 관음재일에
병원장 홍기표 합장



현대불교신문 465호(2004.3.17) 게재

진한감동, 따뜻한 병원
방부불교병원
BANGBU BUDDHISM HOSPITAL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88-14
Tel. 062)221-3300

• 가정의학과 Ⅰ · Ⅱ · Ⅲ • 내과 Ⅰ · Ⅱ • 일반외과 • 신경외과 • 정형외과 • 비뇨기과 • 마취통증의학과 • 영상진단의학과 • 예진실 • 종합건강증진센터 • 응급실 등

"자연환경과 사찰의 조화 아름다운 사찰 만들기로…"

창립 30주년 학술대회 개최
사찰조경연구소 홍광표 소장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찰의 환경문제는 자연과 문화적 건강성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불사를 진행해온 탓입니다. 이젠 사찰조경연구소가 사찰 건축과 조경의 모범을 제시해 나갈 겁니다."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 · 사진)가 올해로 창립 30주년 맞았다. 연구소는 이를 기념해 12월 11일 동국대에서 '아름다운 사찰 만들기와 사찰조경'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고 우리 전통사찰의 이상적, 현대적 복원 방안을 모색했다.

故 공태훈 박사의 주도로 1974년 동국대 경주캠에서 창립된 사찰조경연구소는 사찰건축 조경 역사 지리 불교미술 등 각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연구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은 전통사찰 경관과 입지성, 공간구성 기법, 경관구성 요소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사찰의 복원 및 현대사찰의 창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왔다.

84년 동국대 조경학과 전임교수로 부임하면서부터 연구소 활동을 시작한 홍 소장은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불교생태학과 관련 연구를 우리 연구소는 이미 30년 전부터 실행해온 셈"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홍 소장은 "한국의 사찰의 전통적 조경원리를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질서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최근 이러한 면이 무시되면서 사찰의 경관과 정체성이 손상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연구소가 쌓아온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에는 '아름다운 사찰을 만들기' 캠페인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일주문



구미 경실련 새 대표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은 12월 3일 열린 구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기총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됐다.



2004 승가인의 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정념 스님은 12월 8일 월정사에서 '2004 승가인의 밤' 행사와 동문회 제2차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BBS 총괄국장에 임명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장적 스님(경산 안흥사 주지)은 12월 1일 대구불교방송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괄국장에 임명됐다.



서울불교전문강당 동문회 창립

서울불교전문강당 동문회 회장 각명 스님은 12월 15~16일 서산 안면도 롯데캐슬에서 동문회 창립법회를 개최한다. (011)9716-8130



해인사 교구환경위원장에

前 서울 경국사 주지 종본 스님은 12월 7일 조계종 제12 교구본사 해인사의 교구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올해의 '에너지 산업대상'

진각종 서울 강남 행원심인당 한준호(한국전력 사장) 신도회장은 12월 8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에너지산업대상'을 수상했다.



가족아카데미아 부모교육 세미나

(사)가족아카데미아 이사장 이근후 박사는 12월 14~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소외아동관리와 올바른 부모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우병 안걸리는 소 개발 추진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12월 8일 강원도청에서 광우병 저항인자를 가진 소를 개발하기위한 강원도 · 서울대 생명공학합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1회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수상



안휘준씨



전상운씨



전흥수씨



김동휘씨

문화유산에 관한 학술연구, 보존관리, 봉사활용 유공자에 대한 발굴 및 시상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제정된 대한민국문화유산상이 12월 8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첫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대한민국문화유산상은 '학술 · 연구' 부문에 안휘준 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와 전상운 前 문화재위원, '보존 · 관리' 부문에 전흥수 대목장(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과 김동휘 한국등잔박물관 관장, '봉사 · 활용' 부문에서 (사)한국의 재발견(대표 손용해)이 수상했다. 박익순 기자

불교사회복지대회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지산 스님



고재욱씨



조석영씨



이영례씨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 법장)이 2004년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12명을 선정했다.

유공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복지시설단체 운영부문, 불교사회복지발전 공헌부문, 자원봉사활동 개인부문으로 나눠 각각 4명씩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12월 15일 종로 하림각 대연회실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선재동 자원 원장 지산 스님,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고재욱 관장,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석영 사무국장,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영례씨가 받는다. 김은경 기자

"불교계 봉사활동 성장 계기될 것"

경남자원봉사자 금상 수상 효천 스님



"개인이 받은 상이 아니라 불교가 받은 상입니다. 불교계가 더욱 더 앞장서서 소외된 곳을 찾아가 보살행을 펼쳐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12월 7일 경남도청 도민홀에서 열린 2004 경남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경상남도 자원봉사상 금상을 수상한 효천 스님(화방복지원장 · 사진)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 대표 이사로 남해 화방복지원을 운영하며 노인복지는 물론 여성권익 신장, 청소년과 장애인 복지 등에 기여한 공적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독거노인들의 장례비 지원을 위한 장례지원봉사단체 백련회 결성, 저소득층 여성 자립기반 조성, 장학재단 설립 등으로 남해지역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제16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



조계종 제16회 포교대상 시상식이 12월 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대상 수상자인 동춘 스님(내원정사 조실 · 사진 왼쪽)과공로상 풍경소리, 손안식 부회장(중앙신도회) 등이 참석했다. 동춘 스님은 "이 영광과 상을 포교하시는 분들께 돌리고 싶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제12회 보리방송문화상 시상식



제12회 보리방송문화상 시상식이 12월 8일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방송작가인 윤청광 씨가 총무원장상(사진)을 비롯해 MBC 다큐멘터리 '대자유인-한국의 비구니'와 '6인의 女행자' 등이 올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불기협의 밤 ·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



2004년 불기협의 밤과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이 12월 6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열렸다.

올해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선원빈 기자상)을 수상한 김명환 기자(월간 불광)는 "불광 창간 30주년을 맞는 해에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불교사진연합회 새회장 전제우 씨



전제우씨(사진)가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는 지난 11월 22일 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개편했다.

△고문: 관조 스님, 안장헌 △자문위원: 선암 · 법타 스님, 이병윤, 김우영 △부회장:김광동, 조현숙 △감사: 고흥택 △지도위원: 윤중일 △신임간사: 이한규(총무), 박정숙(재무), 강승규(연구), 강창국(사업), 유원식(홍보), 하호숙(섭외)

불교출판 '거목' 이봉수 씨 타계

68년 보련각 설립 600여권 발행



40여년 간 불교출판계를 일궈 온 도서출판 보련각 이봉수 대표가 12월 3일 별세했다. 향년 72세.

불교출판 1세대인 이 대표가 불교출판 외길을 걷게 된 인연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부분의 경전을 필사해서 봐야 할 정도로 '볼 만한' 불서가 없던 시절, 이 대표는 직접 불서를 만들어 보급해보자는 원력을 세우게 됐다.

68년 불교전문 출판사 보련각을 설립해 본격적인 출판 사업에 뛰어든 이 대표는 이후 '최초'라는 수식어를 단 책들을 줄줄이 선보였다. 최초의 독송경집 <불자수지독송경>(1974년)과 최초의 한글 다서(茶書)인 <한국의 다도>(1975년)를 비롯해 뇌허 김동화 박사, 이종익 박사, 효당 최범술 스님 등 당대 내로라하는 불교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불교사상전집>(전10권, 1973년)을 선보여 불교출판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7권짜리 <불교대사전>이 한글로 된 최초의 불교사전임에도 10년이라는 시간과 적지 않은 빚을 남기는 등 좌절을 겪기도 했다. 초판을 20~30년간이나 팔지 못한 책도 수두룩했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불자들의 책꽂이에 불서 한 권 둘 수 있게 한 것"을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여겼던 이 대표. 현재 경제난과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침체기를 맞은 독서시장 탓에 예전만큼 활발한 출판사업을 벌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보련각은 여전히 불자들에게 불심의 자양분으로 남아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회와 종교화합 실현을 위한 범불교도 대회

포항에서 대한민국의 불심을 바로 세웁시다!



정장식 포항시장은 52만 포항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와 강령을 어기고, 개인 자격이 아닌 포항시장의 자격으로 포항을 기독교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포항 기관장 홀리 클럽'의 창립을 주도하고 중심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5월 29일부터 6월2일까지 포항실내체육관 등에서 개최된 '제1회 성시화운동세계대회' 기간동안 명예준비위원장으로 행사를 주도하고 신앙간증을 통해 "포항을 기독교 도시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세계성시화운동'의 사업재원으로 포항시의 재정 1%(약52억)를 사용하려 기획했으며, 이밖에도 정시장은 평소 근무시간 내에도 포항시 소속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직무와 관련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강조하며 변형된 선교활동과 종교편향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장식 포항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 종교편향대책위원회(이하 종편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편위는 지난 12월 6일 종편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월 9일 낮 12시까지 정장식 시장에게 최종적으로 기관장 홀리클럽 탈퇴와 최근 정시장의 종교편향 정책에 대해 공식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에 종편위는 오는 12월 15일 '사회와 종교화합 실현을 위한 범불교도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천명하며, 이 대회를 대구 • 경북 불교도들과 시 • 도민 3만여 명의 마음을 모아 사회와 시민화합 실현, 종교간 교류 및 종교화합 실현, 종교편향사례에 대한 대응 및 해결을 위하는 대회로 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구 • 경북 불교도들과 시 •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548(2004)년 12월15일 오전 11시**
■ 장 소 : **포항시 종합운동장**

■ 주 최 :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조계종대구경북5본사, 태고종, 천태종 대구지구, 경북지부, 법화종 동해교구, 원효종, 원융종 경북종무원, 진각종 포항교구청, 총지종, 본원종, 동국대학교 대구경북지구 석림동문회
■ 주 관 :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종교편향대책위원회

종교편향대책위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1동 353-8(운흥사 내 1층)
☎ 054)232-1900 팩스 054)232-5633



불자 세상보기

장 지 현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연말, 당신의 체온은 몇도?

구세군 '자선냄비', 사랑의 온도탑, 복지단체들의 송년행사 등 올해도 어김없이 낯익은 세모의 풍경들이 등장했다. 또 한해가 저물어감을 알리는 우리 사회의 세월을 배웅하는 방식이다. 연례행사처럼 펼쳐지는 이러한 행사들이 올해는 경기가 침체되어 성과가 있을지 걱정이지만, 나눔과 울력을 생각하는 시들지 않는 정성들만으로도 마음에 온기가 느껴진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벌써 대기업들이 거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는 소식도 있고, 익명의 기부자들이 성금을 기탁하고도 그 이름을 숨기려는 애뜻한 미담도 전해진다. 나라든 개인이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힘들 때 서로 돕고 의지하는 우리네 미풍양속은 아직 변하지 않은 듯 하다.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지성과 양심을 실천하는 순수의 미학이다. 거기에는 무슨 이익과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불순한 의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의상관(相依相關) 관계의 우주적 이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주고받는 관계로 되어있다.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 생존도 문화도 갈구할 수 없는 인간이, 인간을 돌보는 것은 휴머니즘의 출발점이요, 모든 종교의 탯줄이기도 하다.

오탁의 세상. 어둠 속에 갇힌 등불이 더 뜨거운 것처럼, 삶이 각박하고, 경기가 침체될수록 작은 온정이라도 그 향기는 진동한다. 거액의 뭉텅이 기부도 필요하지만, 역시 자선은 작은 사랑이 더 아름다운 것 같다. 작은 사랑, 익명의 나눔, 그것은 세상을 여는 문이다. 열쇠도 모자라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되는 세상의 많은 문들이지만 익명의 기부자들처럼 남 몰래 세상을 열어주는 따뜻한 손들도 있다.

지난 한해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실질적인 빈곤층도 다시 늘어났다는 통계를 접한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전체 국민의 5%가 전 국토의 2/3를 소유하고 있고, 전체 은행 고객의 2%가 전체 저축액의 56.7%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 그런가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 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생계형 자살' 로 내 몰리는 실질빈곤층이 3백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나라 경제를 되살리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요 기업인들의 수완인지 모르나, 이 어려운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희망의 새싹을 틔우는 것은 평범한 소시민들의 몫이다. 달마가 양무제에게 '무공덕'이라고 한 것처럼 사진 찍고 소문만 내는 것은 진정한 자선이 되지 못한다. 자선이 복전이 되는 것은 무주상 보시이기 때문이고, 왼 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기 때문이다.

'인생 역전'이란 유행어를 낳으며 몰아쳤던 로또 열풍은 2년 동안 434명의 한국판 백만장자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이중 총36명의 당첨자가 64억여원을 기부금으로 사회에 회향하였다고 한다. 2004년도에도 전년도 대비 당첨금 규모는 축소되어 1인당 평균 기부금은 줄어들었으나, 기부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힘들수록 고통을 나누고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라는 것이 우리의 교육방식이다. 웰빙도 좋고, 해외여행도 좋지만 '카드빚 20만원'에 시달려 자살하는 우리들의 이웃인 생계형 자살자들을 생각해 보자.

물고기들도 목마를수록 거품을 뿜어 서로의 갈증을 달래주는 것이 그 진화의 본능이다. 종교인들의 자원봉사가 수행의 차원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나눔과 베품도 이제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 찬바람 드는 빈부갈등의 틈새가 메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포교원이 별원 설립 10주년을 맞아, 앞으로 1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포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별원으로 발족한 지난 세월의 성과를 정리하고 포교의 미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꼭 있어야 하고, 또 의미 있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여러 계획들 가운데는 그 실천을 위한 대안들까지도 마련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박희승 차장의 '수행 플러스 포교전략' 발표 가운데 "포교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계획을 추려낸 것이다"는 말은 포교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조계종 신도 정체성 확립', '종단 포교행정시스템 구축-직할교구 행정시스템 구축', '포교전문인력 양성과 네트워크화', '법회 의례의식의 개선 및 한글화' 등은 분명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시급히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확실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포교도 '백년대계'

예를 들어 '법회 의례의식의 개선 및 한글화' 전략을 보기로 하자. 한글화된 의식을 위한 통일적인 요전이 없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전근대성을 대변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한글시대에 맞는 포교의 지향점과 방침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방침이 정해지고 나면 통일된 의식의 제정과 종단 내부의 통일된 사용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침이 나와야 할 것이며, 현장에서의 실행까지도 점검하는 총체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 포교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포교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또한 포교원이 하나의 불교단체나 할법한 일에 직접 나서서는 안된다는 것도 포함된다. 포교원이 올바르게 큰 틀을 짜면, 그 위에서 아름다운 포교의 꽃들이 피어날 수 있게 된다. 포교원의 할 일은 바로 그 큰 틀을 짜는 일인 것이다. 원장 스님 이하 이미 그러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믿지만, 혹 조급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 올바른 포교의 대계를 이룩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자비의 삶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숫타니파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에서 한국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냈다. 41개국 가운데 읽기는 2위, 수학은 3위, 문제해결능력은 1위를 차지했다. 늘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받아온 교육계는 모처럼의 '쾌거'를 즐기는 분위기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각국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위권 성적을 낸 독일의 한 교육단체장은 한국의 혹독한 공교육과 엄청난 사교육비 투자 등이 좋은 성적의 원인이라는 시샘어린 주장을 하는가 하면, 국내 일각에서는 최상위층이 엷어졌다며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가 부족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베르나르 위고니에 OECD 교육국 부국장은 한국의 성적에 대해 평준화정책의 영향 탓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옆에 있으면 못하는 학생이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 성적은 물론 장애 여부에 따른 구분도 하지 않고 모두 한 교실에서 공부시키는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

같은 시 ·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연법의 원리가 온 우주에 인드라망이 되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옆 친구도 열심히 하듯,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 따뜻한 마음은 일파만파 세상에 퍼져갈 것이다.

이 추운 세상을 따뜻하게 나는 비결, 그것은 내 안에 있지 않을까.

■ 박익순(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사찰도 영수증 발급했으면

매년 이맘때가 되면 급여 생활자는 연말정산에 신경을 쓴다. 그러나 급여생활자 중 불자들은 세금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나 성당에 기부금을 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불자들은 산에 갔다오다가 사찰이나 암자가 있으면 참배하면서 시주금도 넣기도 하고 성지순례, 어른스님들의 법회 등으로 사찰을 찾을 때마다 부처님전에 시주금을 넣기도 해 영수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재적사찰에 시주도 하지만 대부분의 불자들은 등산이나 관광시 사찰이 있는 곳에 참배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참배할 때마다 작게는 1~2만원씩, 또 대웅전, 지장전,관음전 등 전각마다 참배하고 시주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진정으로 세금 혜택을 보지 못한다.

한 사찰에 시주한 것은 소액일지 몰라도 1년동안 시주한 금액을 합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에 달한다. 얼마 안되는 금액을 시주하면서 그때그때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시주할 때마다 봉투에 주소 성명을 쓸 수도 없다.

따라서 불교계 종단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사찰에 통일된 양식의 영수증을 비치토록하여 재적불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시주할 때에는 그자리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을수 있도록 한다면 불자들이 연말정산시 번거롭지 않고 세금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김광수(조계종 홈페이지)

성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며칠전 서울 인사동의 한 음식점을 갔다가 석탑이 정원에 있는 것을 봤다. 음식점 주인에게 왜 석탑이 그 곳에 있는지를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을 회피했다.

따지고 보면 이런 경우는 많다. 조선의 궁궐이었던 경복궁 뜰에 있는 석조 문화재는 대부분 사찰에서 가져온 탑과 부도들이다. 이들 탑과 부도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의 대상이거나 추모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성보들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관광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성보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더욱 심각한 점은 불교계 내에서도 이런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법당에 있어야할 불상과 탱화가 보호라는 미명아래 성보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다. 제자리를 떠났으니 이미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관람거리가 되어 박물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든 성보든 제자리에 있어야 참 가치가 있음을 상기했으면 좋겠다.

문석천(경기도 고양시 행당동)

불교가 통일 밑거름 되길

남한 각 종단과 대북교류단체에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측이 만남을 제의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 당국의 대화는 경색되어 있지만 종교계, 문화계 등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불교계만 보더라도 다소 경색된 정치환경에 비해 교류가 활발하다. 신계사 복원사업이 순항하고 있고,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도 마무리 단계다. 또한 불교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불교 교류현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생(相生)과 불이(不二)를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중의 하나가 바로 통일의 문제다. 국민의정부 시절 상당한 변화발전을 거듭했지만, 최근에는 '핵'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된 것이 사실이다. 이럴수록 남북불교문화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교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역사적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통일과 상생의 길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교류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느리지만 내실있는 교류를 위해 지금부터 모든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한걸음 한걸음씩 내딛어 가자. 박미경(남양주시 호평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乙酉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광주대학교 식물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2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후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현풍F&B HYUN PUNG F&B CO., LTD.

창간 10주년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매화나무 아래서 매화꽃 띄우고 차한잔 마시는 매화차회.

"어려운 이웃과 나눌 수 있어 기뻐"

김창배 화백, 선묵화 30점 본사 '나눔의 손잡기'에 기증



담원 김창배 화백

"사회가 어려워지는 만큼 10여 년 간 그려온 선묵화를 모두 내놓을 생각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12월 7일 본사 '나눔의 손잡기'에 선묵화 30여점을 기증한 담원(潭園) 김창배(49 · 담원갤러리 관장) 화백.

차와 선에 심취하여 선묵화를 그려온 김화백은 "차와 불교는 나눔으로 귀결 된다"며 "30년 그림인생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2005년도에는 나눔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화백은 본지 뿐 아니라 2005년도에 강릉 자비원과 김흥국 장학회, 심장병재단에도 선묵화를 기증할 계획이다.

30여 차례 개인전과 200여회의 국내외 초대전을 개최한 김화백은 굵고 활달한 필력과 동양화의 모든 분야에 능한 독창성 있는 한국화가로 정평이 나 있다.

"'찻잔은 내 몸이고, 차는 내 마음'이라 생각하며 먹을 갈고 그림을 그린다"는 김화백은 "홀로 조용히 마음을 관하고, 그 마음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다보니 차와 불교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선지 김화백의 그림에는 고사성어나 선시, 작가가 받은 영감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유독 많다.

충남 서산의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태어난 김화백은 어린시절 문설주에 걸려 넘어지면서 큰 가마솥에 빠져 사경을 헤매야 했다.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기자 집안에서 '부처님의 은덕'이라며 어린 김화백을 마을 인근의 절에 보냈다.

절에서 생활한 1년의 추억은 훗날 김화백이 불교와 차 그리고 선묵화에 심취하는 계기가 됐다.

김화백은 대학시절부터 염불소리에 심취하여, 그림을 그릴 때면 꼭 염불테이프를 틀어놓고 작업한다. 염불소리를 들으며 작업하다보면 마음이 저절로 맑아진다고.

단원 김홍도의 맥을 잇는 북종화의 대가였던 고(故) 금추 이남호 선생의 수제자인 김화백은 "가능하면 불교의 정신, 달마의 행적을 더듬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애쓴다"고 말한다.

군포불교신도회 회장을 역임한 김화백은 "불교와 차 문화의 포교를 위해 선묵화를 그린다"고 말할 정도로 포교열정이 남다르다.

선묵화 달력을 25년간이나 만들어 보급해온 것은 물론 정보통신부 그림공모에 참여해, 차와 선을 표현한 선묵화 연하장을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8년부터 <한국의 달마> 2권을 비롯해 <선방풍경> <차한잔의 풍경> <차한잔의 인연> <차한잔의 명상> <붓가는대로 마음가는대로>등 글과 그림을 조화시킨 화문집도 7권이나 발간했다.

김화백은 더 나아가 선화의 세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00년 인사동 사거리 성보빌딩 3층에 30여평 규모의 상설전시관인 담원 갤러리를 열었다.

"전통의 거리 인사동에 불교가 없다. 그래서 선화를 전문 전시관을 열게 됐다"는 김화백은 현재 담원 갤러리에 달마도와 스님과 일반인들의 일상을 그린 선묵화 3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담원 갤러리는 누구나 찾아와 명상음악을 들으며 국산차를 마시고, 선묵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365일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02)736-7445

한편 현대불교신문사는 김화백의 기증그림을 2005년도에 국내외 전시회 및 인터넷 또는 지상전시회를 통해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02)722-4162

김원우 기자





시공간을 초월한 차를 정성스럽게 바치는 '헌다도'(사진 위)와 빈산에서 다동과 차한잔 마시는데 계곡에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는 '수류화개'(사진 아래).



본사 나눔의 손잡기 생명나눔 표창장 수상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로부터 협력단체 '표창장'을 수상했다.

12월 3일 인사동 느티나무에서 열린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10주년 기념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임종민 후원부회장은 "현대불교신문사가 올 한 해 동안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등의 사업을 통해 불교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가 커 표창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부분 표창에는 자원봉사자 현재옥 씨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현대불교신문은 2004년도에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며,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협력단체로 골수기증사업 및 헌혈증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위영란(왼쪽) 부국장.

김은경 기자

'좋은벗 풍경소리' 후원의 밤

16일 송현클럽…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기념법회

좋은벗 풍경소리(총재 지현)는 12월 16일 오후 7시 송현클럽에서 '2004 좋은벗 풍경소리 포교대상(공로상) 수상 기념법회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좋은벗 풍경소리는 12월 4일 조계종 포교원 주관으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제 16회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법회에서 좋은벗 풍경소리는 부총재로 원명 스님을 추대할 예정이다. 또 1년 동안 '어린이 청소년에게 찬불동요 CD를 보냅시다' 캠페인을 풍경소리와 함께 전개한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이 천태종에 찬불동요CD를 전달할 계획이다.

좋은벗 풍경소리 회장 성행 스님(청계사 주지)은 "이번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그간 마음을 모아 늘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02)723-9836

김원우 기자

아름다운 선율로 여린 생명 살려요

자비복지원, 14일 후원기금 마련위한 초청 음악회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대표 부동 스님)이 복지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복지문화기금 마련을 위한 '제 2회 자비복지원 초청음악회'를 12월 14일 강릉대 해람문화원에서 개최한다.

성악과 김관동, 국악인 김영임, 영산작법 전수자 임묵 스님 등 국내 정상급 음악가들이 함께할 이번 음악회는 하늘, 땅, 인간이라는 주제로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 '하늘의 소리'에서는 아리아리랑, 그리운 이름이여, 박연폭포 등의 아름다운 민요와 가곡 등이 공연된다. 또한 2부 '땅의 울림'에서는 국악인 김영임 씨의 태평가와 인묵 스님의 범패작법, 무용사 김종우 씨의 한국무용 학품 등이 선보인다. 3부 '인간의 어울림'에서는 대중가요 '보고 싶다' 등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자비복지원 산하 강릉자비원에 있는 김상도(경포고 2년) 학생의 치료비와 후원회 결성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상도 학생은 현재 희귀병인 골육종양을 앓으며 병원에서 항암치료 및 종양제거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033)642-3535

김은경 기자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나눔의 손잡기 성금

한마음선원 거사합창단 테너2팀(팀장 류석권) 일동 – 50만원, 무명의 스님– 10만원

총 누적금액 28,903,500원

알림– '나눔의 저금통' 회수합니다

연말을 맞아 본지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올 한해 전국에 배포한 '나눔의 저금통'을 수거하고있습니다. 개인은 본사로 직접 접수해 주시고,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저금통을 모아 직접 개봉하여 온라인으로 입금한 뒤,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눔 스티커 및 저금통 신청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동 반야사포교원(원장 정담 스님) 저금통– 150개, 스티커– 150장

경남 거창읍 대동리 이옥희 보살 저금통– 10개, 스티커– 10장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 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효능원 김정자 원장



내 부모라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

9년째 치매·중풍 환자 돌봐…의대생 아들도 "봉사 대 잇겠다"



김해 효능원 전경.

"내가 너희 엄마하고 그럴 수 없이 친한 사이야. 오늘 집에 놀러 갈 테니 기다려."

12월 초, 오갈 데 없는 치매 환자들의 보금자리인 김해 효능원을 찾았을 때 한 할머니가 반색하며 건넨 인사였다. 일순 당황했지만 김정자(53 · 연화정)원장의 눈짓에 "네, 할머니! 꼭 집에 오세요."라고 대답하며 손을 잡아드렸다. 치매를 앓으며 '나'와 가족, 사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인 효능원의 일상은 늘 이렇다.

32명의 치매와 중증 중풍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효능원. 수년째 자신을 보살피고 있는 김원장을 향해서도 욕을 퍼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처음 만난 듯 '누구냐?'고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 물음은 '내가 누구냐?'는 절박한 물음인지도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에겐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밥을 안 줘 배가 고프다' 거나 '원장이 내 돈을 가져갔다'는 말로 봉사자들이 김원장을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김원장은 그런 하루하루를 9년째 이어오고 있는 효능원의 안주인이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김원장과 치매 노인들과의 인연은 1995년으로 거슬러간다. 김정자원장이 김해 성모병원 간호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장기 입원으로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긴 한 치매 할머니의 퇴원 결정이 내려졌다. 중증이라 보낼 시설조차 마땅치 않아 행려병자로 보호 받게 하기 위해 구청 앞에 데려다 놓기로 했다. 동지 하루 전

노인들 보낼때 마다 인생무상 절로
본인은 암투병중, '고통'은 뒷전
내년 7월 '정부인가시설'이 소원

이라 몹시 추웠던 그 날, '내 엄마라면' 하는 생각에, 구청 앞을 서성이던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것이 시작이었다.

"치매 할머니 한 분 모시는 것이 뭐 어렵겠나 했는데 소문이 나자, 집 앞에 (치매노인을)데려다 놓고 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나중엔 아파트가 비좁아 도저히 모실 수 없을 정도가 돼 버렸어요."

따로 아파트 하나를 더 빌려 거기에 모시다가 결국 2002년 집을 짓기 시작했다. 퇴직금과 저축했던 돈을 모두 투자해 복지시설 인가를 받을 요량으로 효능원을 지었지만 처음엔 긍정적이던 김해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 보조금 한 푼 없이 32명으로 늘어난 대식구의 생계를 꾸려야 하는 가장이 돼 버렸다. 병원 치료가 잦은 효능원 식구들의 병원비, 치료비는 물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소비되는 기저귀를 충당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남편의 연금과 김원장이 병원아르바이트로 버는 돈, 강의료 등을 고스란히 쏟아부어야 했다. 남편 류양렬(63)씨는 효능원의 울타리이자 일꾼이 되었고 새벽 2~3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드는 것도 다반사였다.

"아침에 쌀 씻으면서 내일 걱정을 해야 하는 날들도 많았어요. 힘들 때마다 언제나 부처님은 내 편이 돼 주셨지요.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을 해왔으니 이 모두 부처님 덕입니다." '부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김정자원장은 말끝에 눈물을 내비쳤다.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죽을 결심을 했지만 부처님께 기도하며 삶의 지혜를 찾았던 김원장이기에 매일 아침 청수를 올리고 하루를 시작할 정도로 늘 부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

황대선원 조실 성수 스님은 김원장에게 큰 영향을 준 마음의 스승이다. 조그마한 휴지 한장도 반으로 갈라 사용하며 "낭비는 자연에 빚지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던 성수 스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있다.

"치매에 걸렸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치매가 살아온 과거를 여실히 드러내는 삶의 거울 같아 놀랄 때가 많아요." 착하게 산 사람은 치매 증상도 심하지 않다고 귀띔한다. 노인들 치매를 늘상 보아오며 김 원장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연기(緣起)속에 존재함을 저절로 알게 됐고 지은대로 받는다는 인과의 도리도 터득했다. 부모처럼, 때론 자식처럼 보살피던 어르신들을 169분이나 떠나보내게 되자 무상의 도리는 절로 익혀졌다. 치매와 중풍에 걸린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나날이 고되었지만 정진과 깨달음의 시간으로 화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극심한 피로로 파김치가 되는 날이 계속되자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다. 지금 김원장은 항암치료 중이다. 다행히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경과가 좋지만 항암 치료 휴유증으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렸다. 가발을 쓰고 있지만 어르신들에겐 아프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원장은 암 걸린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요즘 하고 있다. 효능원이 정부 인가 시설이 되려면 내년 7월까지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그 비용 3억 8천만원 중 국가보조금 1억 외에 2억 8천만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데 암보험금으로 1억원이 나온 것이다.

"부처님이 도우신 거죠. 시설 보완해서 인가를 받으면 더 많은 분들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부처님이 계시니 다 잘 되겠지요." 암조차 감사하다는 김원장을 가로막을 장벽은 없어 보였다. 여러 어려움 앞에 중도 포기도 생각했지만 "할머니들과의 약속이 있는데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할머니들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아들의 말에 힘을 얻고 마음을 다잡았다. 의예과를 다니고 있는 아들 경률이가 김원장의 뒤를 잇겠다고 하는 일도 기쁨중 하나다.

개인 사비뿐 아니라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자기가족들도 외면한 치매 환자를 보살펴온 김 원장. 그는,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국가가 치매 문제를 싸안아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 할 모두의 공업(共業)이기 때문이다.

김원장의 마지막 원은 효능원이 부처님도량이 되는 것이다. 불법을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어르신들과 나누며 행하는 생활 속 수행처가 되길 발원하고 있다.

김원장을 향해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가진 걸 나눠보세요. 줬을 때 상대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의 그 기분은 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글=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치매와 중풍에 걸린 어르신들과 함께 한 날들이 비록 고되었지만 오히려 정진과 깨달음의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김정자 김해 효능원 원장이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정토사 건립 불사 一千佛殿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 여래불께 귀의하여 크나큰 가르침 깨달으며 불자님들과 함께 법연을 맺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성불하여지이다.

한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세계가 이루어 진다.
卍 무량수경 卍



귀의 삼보하옵고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과 마음마다 불보살님의 가피속에 보리반야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 드립니다.오늘도 고통의 그늘 속에서 몸과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불연을 만나고도 무상한 마음을 터득하지 못하며 탐, 진, 치 어두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을 서원하는 염불만일회 삼각산 정토사는 이 땅에 불국정토를 이룩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불심이 깊은 불자들이 한마음의 자재한 법을 배우고자 모여 들었으나, 도량이 협소해진지라 충분한 수행공간과 부처님 도량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싶은 바람은 모든 대중의 마음속에 한결 같았습니다. 이에 정토사에서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만민의 기도도량과 교화의 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하고자 법당 중창 불사의 원력을 세웠습니다. 법당이란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삶을 가다듬는 곳이자 기도 정진에 임하며 자기의 신앙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불사 동참을 권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때일수록 공덕을 짓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신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본래 불사란 인연 있는 이는 더욱 깊은 신심을 갖도록 하고 무연 중생에게는 인연을 맺어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복락을 누리게 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불자님 한분 한분이 원력을 세워서 금번 불사에 동참한다면 이러한 인연의 공덕으로 무명의 업장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깨달아 성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불심이 지극하신 불자님들의 정성으로 이 중창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원하며, 아울러 동참하여 주신 분들의 인연과 공덕이 후대에까지 길이길이 회향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원하면서 다시 한번 불자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시길 축원올립니다.

나무 무량수 여래불 나무 무량수 여래불 나무 무량수 여래불
염불만일회 삼각산 정토사 주지 응천

● 정토사 중창불사 365일 특별 관음기도
· 입재 : 2004. 12. 5. 오전 10시
·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정토삼부경 강의
● 일천불 부처님 조성불사
1인 1불 30만원(분납 가능), 설판제자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 법당불사 내역 : 대들보 (대 중 소), 주춧돌, 기둥, 문짝, 시멘트
● 불사동참 입금계좌
온라인 : 농협 204044-52-048294 (예금주 박창식) ※ 불사금은 분납 가능합니다

정토사 정기법회 안내
• 매월 초하루 · 신중기도 : (음) 1일 ~ 3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산신재일 : (음) 8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보름인등법회 : (음) 15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지장재일 : (음) 18일 오전 10시 30분

염불만일회 자성미타원 정 토 사 회주 박설산 주지 박응천 합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23-61번지
전화 : 02)396-3405, 379-5502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21> -끝

연재를 마치며

부처님 당시 사왓띠 성내에 한 은행가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집으로 자주 밥을 얻으러 온 스님에게 저도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럼 당신의 재산을 삼등분하여 사업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부처님의 교단에 시주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은행가의 아들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또 스님에게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교단에 귀의하고 다섯 가지 계를 받아 잘 지키라 했습니다. 그는 이 일도 곧 실천한 다음,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출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됐고 아누뿜바라는 법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스승으로부터 율장 등 많은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율장을 가르치는 스승은 어찌나 성격이 까다로운지 하루 종일 많은 질문을 쏟아내면서 이것저것 따지고 질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누뿜바라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자 출가생활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출가를 한 이유는 다만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함이었는데 이제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찌 해야 되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됐다. 차라리 가정으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자 아누뿜바라는 스님 생활에 더욱 흥미가 없어졌고 불만만 쌓여갔습니다. 그의 갈등은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병자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 본 동료 스님들은 아누뿜바를 저렇게 두었다가는 큰 병에 걸리거나 미쳐 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는 이 사실을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전해들은 부처님은 아누뿜바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왜 너는 수행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저는 생사윤회의 흐름에 따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출가를 하였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저를 더욱 괴롭고 혼란하게 만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은 "너는 이제 한 가지 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행할 필요가 없느니라"하고 타이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아누뿜바여 그 한 가지란 무엇인가 바로 너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 이 한 가지만 충실히 하면 너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 날수 있게 되느니라"하고 가르쳐 주신 다음 마음은 섬세하고 미묘하여 보기 힘든 것 어느 곳이건 즐거움을 따라 움직인다.

모든 불교수행 마음 관찰로 귀결
자기 마음 잘보면 괴로움 벗어나

현명한 자는 그런 마음을 잘 관찰 하나니 잘 관찰 되어진 마음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게송을 읊으셨습니다. 이 게송을 들은 은행가의 아들 아눕뿜바는 다른 수행승들과 함께 번뇌가 다한 아라한의 경지를 성취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년여에 걸쳐 경전에 나오는 수행담과 함께 수행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수행은 그 방법이 무엇이던 간에 결국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참선, 염불, 간경 등 불교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하나의 일에 의해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마음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부처님을 볼 수없다는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마선원장



서울 금강선원 신도들이 12월7일 선원 법당에서 열린 '능엄경 수행' 강좌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보고 듣는 그놈을 돌이켜 깨쳐라

혜거 스님이 말하는 능엄경 수행법

'마음 어디에 있나' 구체적인 선수행법 제시
깨닫는 방법 25가지·공부 증상 50가지 설명

1988년부터 생활참선을 위주로 도심 포교를 해온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불교TV에서 <금강경> <육조단경> <유식30송> 등 '경전강의'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최근에는 초심자를 위한 참선책 <참 나-좌선의 강의>(선문출판사)를 펴낸 스님이 12월 7일부터 4개월간 '능엄경 수행론' 강좌를 마련했다.

스님은 이날 강의에서 <능엄경>이 수행의 방법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난의 문답으로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능엄경 수행의 핵심은 회광반조입니다. 빛을 보면 빛을 보는 그 놈을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빛이든 소리든 냄새든 보는(觀) 그 놈을 원만히 통달(圓通)해 삼매로 들어가는 행법이 바로 능엄경 수행입니다. 이를 위해 능엄경은 각각 열 가지의 신(信), 주(住), 행(行), 회향, 지(地) 등 보살의 5단계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수행단계를 점검하는 50병마법까지 일러줘 수행의 길라잡이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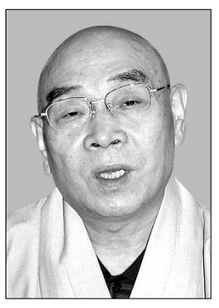
'능엄수행이 수행자에게 깨달음의 확신과 발심을 일으켜준다'는 것. 12월 7일, <능엄경>이 '수행법의 매뉴얼'이라고 강조하는 스님을 서울 개포동 금강선원에서 만나 '능엄경 수행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cafe.daum.net/sunmoontemple. (02)445-8484

▲'능엄경 수행' 강좌를 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엄경>은 선수행의 행법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전입니다. 수행법, 화두 드는 법, 관법하는 법 등을 사실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을 안 본 선사가 없다고 할 정도지요. 때문에 <능엄경>은 선수행의 길잡이입니다. 구체적인 행법을 제시하기에 재가불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능엄경에서는 무슨 수행법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능엄경>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시하는 경전입니다. 수행의 핵심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25가지 방법과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 50가지 마장을 경에서 명시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25원통은 6가지 '인식의 뿌리'인 육근(六根:눈, 귀, 코, 혀, 몸, 의식), 6가지 '인식의 놀음'인 육식(六識)과 '인식의 대상'인 육진(六塵:물체, 소리, 냄새, 맛, 느낌, 법), 7대(땅, 물, 불, 바람, 공기, 뿌리:地水火風空根) 등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원만하게 통하게 하는 행법을 말합니다.



수원통을 예로 든다면, 밖에 내리는 비는 내 안의 눈물, 침, 피 배설물과 똑같은 물이라고 관하는 행법입니다. 그 근원이 같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 관계를 규명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삼매에 들어서게 됩니다. <능엄경>은 이처럼 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원통 중 대표적인 행법이 이근원통입니다. 스님이 평소 '회광반조(廻光返照)'가 수행에 기초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를 '소리 끝에 깨친다'는 이근원통법에 적용한다면 '회음반조(廻音返照)'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근원통은 25원통 중 하나입니다. 6가지 인식의 뿌리인 육근 중, 소리를 듣는 이근(耳根)을 반조해 삼매에 드는 행법이지요. 처음에는 소리에 보고(觀), 다음에는 '듣는 놈을 돌리는(反聞聞性)' 단계로 진입하는 수행법입니다. 때문에 회광반조의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리를 돌이키는 '회음(廻音)반조'도, 냄새를 돌이키는 '회향(廻香)반조'도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의 눈은 밖을 향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기 안에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밖을 볼 수 없는 눈을 안으로 돌려야겠지요. 이것이 회광반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리는 밖에 들립니다. 하지만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엄경으로 깨달은 분이 많습니까?

-옛 선사들이 소리를 듣고 곧바로 깨친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근원통의 마지막 단계가 듣는 성품 자체를 다시 반문하는 '반문문성'인데, 가령 백장선사 문하에서 어떤 스님이 종소리를 듣고 깨쳤다든가 대나무가 부딪치는 소리에 견성했다는 것들이 '소리 끝에 돈오했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25원통 행법이 <능엄경>에 바탕을 둔 선법이라 해 '능엄선'이라고도 불립니다.

▲25원통 행법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들여다볼 때는 눈도 귀도 코도 그 경계를 봐야 합니다. 심지어 세포도 그 마음자리를 봐야 합니다. 6근, 6진, 6식 등의 인식 틀이 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세상의 실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히 보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원통이 이루어집니다. <능엄경> 수행은 '바로 보고 듣는' 훈련입니다. 바로 보는 것에 집중하면, 바로 그것이 삼매가 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선으로 본 '금강경' 특강

서울대교수불자연합회 불이회(회장 소광섭)는 12월 22일 오후 7시 교내 인문대 8동 102호실에서 '선승이 본 금강경' 특강을 연다.

송광사 前 방장 승찬 스님의 상좌인 정왜 스님(여주 백화사 주지)이 강설하는 이번 특강에서는 참석자들과 즉문즉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018-313-9660

위빠사나 초보자 수행강좌

한국 위빠사나 선원은 12월 27일까지 제3차 위빠사나 수행 초보자 수행강좌를 개최한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2~5시에 열리는 이번 강좌는 조계종 이종숙 포교사의 지도로 법문, 좌선, 경행, 면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02)512-5255

개 천지조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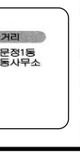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웰빙바람 타고 명상문화 '활짝'

전문가 양성 · 상업화 부작용 해소 등 과제로



인사동 '명상아루이 선'에서 그림명상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 명상아루이 선은 올해 40여개 센터를 열었다.

명상편의점 등 대중화…질적 수준은?

2003년 11월 19일 서울 광화문에 명상편의점이 들어서면서 명상문화는 대중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선도명상 수련단체 수선재의 자매단체격인 '명상편의점'과 '명상아루이 선(仙)'의 명상법은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사듯 손쉽게 명상을 할 수 있다"는 언론의 대대적인 홍보에 힘입어 빠르게 확산돼 갔다. 광화문, 인사동을 중심으로 확장활동을 벌여온 단체는 그림명상, 걷기 명상 등의 손쉬운 명상법을 지도하며 현재 40여개의 명상편의점 · 명상카페 · 명상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신세계원은 연초부터 정신문화 관련 잡지인 <웰빙라이프>를 매월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50개 이상의 명상관련 강좌들을 연이어 개설하며 눈길을 끌었다.

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동작으로 심신을 정화시키는 '춤명상', 화두와 동작을 결합시킨 '선무 명상' 등이 30여 건에 이르는 문화행사에 초청되면서 명상계 안팎에서 시선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명상편의점과 명상 강좌 등에서 제공되는 명상 컨텐츠는 명상의 깊이를 담보할 수 있는지, 상업화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여전히 숙제로 남기고 있다.

요가 인구 급증…지도자 자질 문제 심각

요가가 웰빙시대 건강지킴법으로 각광받으면서 올 한해 요가 인구가 급증했다. 특히 최윤영, 옥주현 등의 유명 연예인들이 몸매관리 · 건강관리법으로 요가를 내세우면서 요가 수련원 개원과 관련 서적의 출판량 등은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한국요가지도자연합회, 홍익요가연구원 등이 사단법인 요가협회로 등록하면서 한국요가협회 등 3개에 머물렀던 요가협회의 수도 2배로 늘었고, 최초의 요가 전문 잡지인 <요가코리아>가 발간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후죽순 생겨난 요가수련원의 부실한 지도 내용은 사회 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돈내고 3개월만 버티면 요가지도자 자격증을 무리없이 취득할 수 있는 요가계 구조 때문에 요가지도자들은 대책없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요가철학이나 호흡법 등에 대한 이해 없이 동작만 지도하는 수련원이 늘기 시작했고, 웰빙 요가 · 다이어트 요가 등 임의대로 변형된 요가가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요가와 체조와의 구분조차 무의미해졌다.



동작에 화두를 실은 선무명상은 행선을 변형시킨 명상법으로, 건강 · 수행을 동시에 챙기려는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학문적 토대 구축…전문인력 부족

올해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요가학과에서는 국내 최초로 요가학 석사 3명을 배출해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 인도철학과 등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요가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된 적은 있지만,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이수한 요가학 전공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춘해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등에서 요가학 학사 · 차기 석사 배출을 준비하고 있다.

4년제 정규 대학에서 요가 · 명상 강의를 역시 잇따라 개설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양대는 요가강좌를 신설했고, 동국대는 정각원에서 진행하는 '요가와 자아탐구' 강좌에 수강신청이 몰려 추가로 분반을 마련했다. 또한 대학교 사회교육원 · 평생교육원 등에서의 요가 · 명상 강좌도 대폭 늘어, 50여개 대학 교육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웰빙 명상&요가' 과목을 개설했으며, 원광디지털대학교는 사이버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요가명상학과를 마련해 내년부터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권 교육 과정에서 지도되는 요가 · 명상 커리큘럼도 평가의 칼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요가학을 강의할 만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학 부설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요가 강좌 역시 다이어트 등에 초점을 맞춘 사례가 많아 요가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치유 수단 '주목'…치유사 자격 문제 논란

올 한해 명상은 '정신의학계'의 화두이기도 했다. 한국정신치료학회가 치료자의 수련과 명상을 강조하는 '도정신치료'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신의학계 학회에서는 처음으로 '명상'을 주제로 학회를 열어 화제를 모았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행사를 계기로 정신과 의사들을 주축으로 한 '명상치료연구회'가 발족되기도 했다.

한편, 전현수(전현수 신경정신과) 원장은 미국 메사츄세츠 의과대학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인 '명상과 자기치유'를 국내에 도입해 강좌를 세 차례 시작하는 등 현실적인 명상치료의 장을 열었다. 또한 최훈동(한별정신병원) 원장, 이정호(상계백병원 신경정신과) 교수 등이 환자치료에 명상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명상 치유가 보편화되면서 치유사의 자격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도의 오쇼 라즈니쉬 아쉬람 등에서 명상 테라피 단기 과정을 이수한 이들이 국내에서 센터를 열어 치료를 자임하기도 하는 등 '규제 밖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2004 명상계 결산

2004년 한국 최고의 키워드는 바로 정신과 신체의 고른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 • 참살이)'이었다. 그 웰빙의 주요 컨텐츠로 '명상'이 주목받으면서 한국사회는 한 해 동안 명상 문화의 꽃을 피웠다.

명상과 차담을 겸할 수 있는 명상카페가 국내 명소로 떠올랐고, 요가 수련 인구는 종교인구에 필적할 만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요가 • 명상 등을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명상테라피(therapy)를 실질적인 치유 방안으로 응용하려는 시도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퍼져버린 명상문화의 한켠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상업화된 정신문화가 뱉어낸 '혼탁한 공기'를 정화하는 것 역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순풍과 함께 암초를 만난 2004년 명상계를 결산한다.



최훈동 한별정신병원장은 명상이 대안적 치료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진은 정신질환자들이 명상치료를 받는 모습.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선의 세계 ㊾

돈수(頓修)와 점수(漸修)-4

성철 · 지눌 스님의 공통된 당부 성불 목표로 열심히 수행 하라

앞의 글에서 돈오돈수론의 돈오와 돈오점수론의 돈오는 다른 개념이며, 돈수와 점수가 반대말인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했다. 성철스님의 돈오돈수론도, 지눌스님의 돈오점수론도 다 방편설법이라는 얘기도 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셈이다.

종교적인 가르침이 일차 목적인 설법이라 할지라도 그 말, 그 개념 자체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거기에 담긴 사상의 체계를 그려본다거나 계보를 따져본다거나 하는 등등의 일도 의미가 있다. 그것은 학술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설법도 학자들에게는 받들어야 할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분석할 자료이다. 목사님들의 설교나 신부님들의 강론도 마찬가지다.

한편으로, 설법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입장, 즉 수행자나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 방편이 가리키고자 하는 뜻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 낙처(落處), 즉 그 가르침이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헤아려야 하는 것이다.

돈오돈수론을 지침으로 해서 이루는 깨달음과 돈오점수론을 지침으로 해서 이루는 깨달음이 과연 다른지 같은지 필자는 모르겠다. 달리 말하자면, 그 두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이 같은 달인지 각자 다른 달인지는 모르겠다. 어느 쪽을 지침으로 삼느냐에 따라 수행하는 양상이 필연적으로 다르게 되는지 어떤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은 수행자들이 직접 체험을 하든지 실험을 하든지 해서 점검을 할 일이지 개념분석이나 이론으로 따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다만 성철스님과 지눌스님이 선사(禪師)로서는 흠이 될 만큼 장광설을 풀어내는 수고를 감수하며 그야말로 "눈썹이 세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입아프게 말하고자 한 공통된 당부 하나쯤은 누구나 알아들을 만하다. 수행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지눌스님의 글, 특히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이나 수심결(修心訣)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동료들로 하여금 본격적인 수행에 매진토록 분발케 하려는 의도가 절절하게 나타난다. 정법(正法)이 쇠퇴한 말법(末法) 시대라 깨달아 성불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내생에 좋은 데 태어나기 위해 좋은 업을 쌓거나 극락에 가기 위해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부르는 데 힘쓰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지눌스님은 우선, 선정(禪定)을 닦아 성불한다는 최상승(最上乘)의 법문을 그대가 만난 것은 전생에 이미 오랫동안 인연을 쌓아온 덕분이요, 그것만으로도 그대가 최상근기(最上根機)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추켜세운다. 말법시대니 어쩌니 하는 것은 하근기(下根機)를 위한 임시방편의 가르침이니, 이미 선법(禪法)을 만난 최상근기로서는 거기에 매달려 내생에 좋은 데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할 일이 아니라 성불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불, 경(經) 공부, 선행(善行) 등도 해로운 건 물론 아니고 수행자가 마땅히 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게 밖으로만 구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아 그 진상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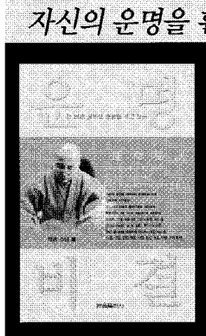
선법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 본래 부처님이니 바로 그 진상을 깨닫는 것이 성불이다. 그것은 이미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다 가르쳐준 진상이니 이를 굳게 믿고 분수에 따라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물러서느냐, 최상근기로서 최상이 아닌 수행에 매달리는 것은 비겁하고 나약한 짓이며 조상(부처, 조사)에 대한 배반이라고 말하면서 어르고 달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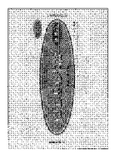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금강선원 해광(海光)스님 포교역정 생활불교 에세이]
속을 보이는 사람들
해탈이란 마음의 해탈이다.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자유가 해탈이다. 이것과 저것을 가르고 내 것과 남의 것을 가르는 분별심을 버리고 마음 깊숙이 들어 앉은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그것이 해탈이다.
"저를 해탈하게 하소서."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는가?"
"아무도 저를 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승찬 대사의 해탈법문을 듣는 순간 온갖 번뇌와 미혹, 망상과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의 경지를 얻은 구도자는 훗날 제4대조가 된 도신 대사이다.
본문 해탈이란 무엇인가? 中



사랑의 묘약을 먹으면, '화해'라는 평화가 가득해진다.
우리인간은 어디에도 몸 둘 곳 없는 바람이다. 홀연히 이 세상에 나와 부질없는 마음에 얽매어, 한바탕 소꿉놀이 같은 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어디로 무엇을 찾아 오늘도 길을 나서는가? 바람 같은 인생살이 마음에 원망과 분노를 짊어지고 무겁고 힘든 걸음걸이를 하기에는 참으로 아까운 날들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용서하자. 내가 나를 용서하고 너그럽듯이, 남을 그렇게 용서하자. 그리고 화해하자. 화해는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준다. 용서는 사랑이며, 사랑은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묘약이다. 사랑의 묘약을 먹으면, '화해'라는 평화가 가득해진다.
해광(海光)스님 저 서 불교비전의숲서 「불가비의」 / 실용 역학서 「운명비결」 / 최초의 소설식 불교교리서 「왕 초보 절에 가다」 집필 중.
해광스님 / 열린출판사 / 값 9,000원 금강선원 032-665-8472
열린출판사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33-4 영화빌딩 504호 / 02-2275-3892

화제의 신간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수와 숙명
● 자동차의 사주팔자
● 집 ·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사주팔자
● 부동산(집 · 땅 · 가게 · 사업장)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 교제 · 결혼 · 취직)의 궁합
● 인간 일대사를 평생토록 즉시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해광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416페이지 / 정가 12,9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6,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12,000원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봉서 지음/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정가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譯註圖解/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哲學博士 曺誠佑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배광 지음/정가 8,000원
12 사주 임상록 신국판/양장본/이상욱 지음/정가25,000원
13 전통 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진상백 서/정가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金允中 지음/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정가 30,000원
16 꿈풀이 살풀이 대백과 신국판/정현우 지음/정가 17,000원
17 명가홍가의 기상학 비결 신국판/김용식 지음/정가 15,000원
19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양장본/문길여 지음/정가 25,000원
20 육효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지음/정가 30,000원
21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양장본/박봉주 지음/정가 25,000원
22 적천수 형의(上)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3 대권과 풍수 地氣를 해부하다 신국판/우영재 지음/정가 18,000원
24 21C 천문만세력 4*6배판/정수홍 지음/정가 35,000원
25 실전 명리학 첫걸음 신국판/정수홍 지음/정가 15,000원
26 적천수 형의(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정가 40,000원
27 정설 사주공부 신국판/양장본/일현스님 지음/정가 20,000원
28 新 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정가 9,000원
29 풍수학논법 신국판/양장본/성재권 지음/정가 25,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쩍이는 지성, 반물을 꿰뚫는 투시력, 특히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청산 김성진 지음 · 신국판·양장본 · 값 3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 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24) 정념(正念)과 위빠사나

오온법 체화위해 팔정도 삼학 닦아야

우리는 지금 불교적 지혜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 강의에서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잘못 쓴 문장에 길들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초기불교가 가르치는 '오온(五蘊)'의 법(法)은, '나'에 속한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남의 것이었다는 것, 아니 세계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핸드백이나 엠피쓰리, 자동차나 아파트, 명예나 지위 같은 외적 소유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욕망하고, 행동하는 것들까지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다들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허나 불교가 알리고자 하는 진리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지점을 깊이 늘 명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점착으로부터, 아니 자신의 환상으로부터 깨어나 해탈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 저기,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고 하시는 분이 있군요. 그렇지만 그저 고개만 끄덕여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이 다르고, 지식과 지혜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불교는 그래서 체화되지 않은, 몸으로 경험하지 않은 지식을 '알음알이'라 하여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게 여깁니다. 이런 '마른 지혜(乾慧)'는 자칫 수행자의 자만을 부풀리게 하는 심각한 해독을 끼칠 수도 있으니, 깊이 유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계정혜 삼학 전부를 동원해야

각설하고, 이 법(法)을 온몸으로 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에 건너뛴 팔정도(八正道), 즉 삼학(三學) 전부를 동원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각각을 잠깐만 살펴볼까요. 1) 올바른 이해(正見)와 올바른 의지(正思惟)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하나 덧붙이자면 올바른 이해에서만이 올바른 의지가 나옵니다.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의지이고, 그 의지는 다름 아닌 생각에서 나오니까 말입니다. 이 둘이 '지혜(慧)'에 속한다면, 3) 올바른 말(正語), 4) 올바른 행위(正業), 그리고 5) 올바른 직업(正命)은 '계율(戒)'에 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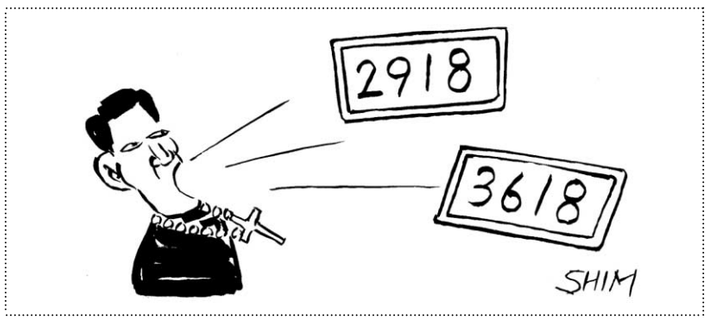
그리고 6) 올바른 노력(正精進), 7) 올바른 관찰(正念), 8) 올바른 집중(正定)은 '선정(定)'에 속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한 둘이 빠지거나 균형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제대로 득력(得力)할 수 없습니다. 남의 험담을 즐기고 행동은 엉망이더라도, 문득 가부좌를 틀고 좌선에 몰입하면 깊은 선정에 들 수 있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는 그야말로 '사상누각'이요, 선가의 어법으로 하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삼학과 팔정도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도와주면서 상승해 나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위빠사나는 팔정도의 하나?

위의 항목에서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7)정념과 8)정정을 왜 '관찰'과 '집중'으로 번역했느냐는 질문이 있을 법하군요. 여기 몇 마디 설명을 보태 두고자 합니다. 7) 정념(正念)은 불교 고유의 의미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ight mindfulness라고 합니다. 아, 요즘 새 대안 수련으로 떠오르고 있는 '위빠사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위빠사나는 새롭게 불교에 수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한국불교가 팔정도와 삼학의 전통이라기보다 화두법과 간화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아이러니칼하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빠사나는 팔정도의 일곱 번째 항 정념을 현대적으로 수정 개발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7) 정념은 내 몸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행과정을 차갑게 주시하고 관찰하는 일입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분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반쯤 도통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요. 무엇을 주시하고 관찰하라는 것일까요. 대상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육신(身), 2)감각과 지각(受), 3) 충동과 정념(心), 4) 사유와 의지(法)가 그것인데, 1)은 호흡을 포함한 육신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2)는 감각적 자극에 대한 감정의 유쾌하고 불쾌한 반응을, 거기 내맡기지 말고 주시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느닷없이 끼어드는 차에 대고 바로 욕이 튀어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그것을 회광반조, "아하, 내가 지금 마음속에 화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구나"하기는 어렵지요. 더구나 그것이 일어나고 축적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생주이멸의 과정을, '남의 일처럼' 차갑게 관찰해 나가기는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신부님이-혹은 스님이- 운전하면서 차마 욕을 할 수 없어 1-9까지의 번호로 대신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장안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3)의 관찰은 탐욕이나 증오, 선망과 질투 등의 충동과 정념의 실제를 자기기만과 정당화 없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4)는 그 밖에 마음을 떠도는 수많은 생각들이, 먼지처럼 뿌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집중하여 관찰하는 일입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1분을 놓지 않을 수 있으면 거의 견성 해탈에 다가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설명으로 제가 왜 7)정념을 '올바른 관찰'로 명명했는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즈음 이 개념을 두고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들이 많은 듯합니다. 여러 대안이 있겠지만, '마음 챙김'은 너무 억지 한글식 같은데 순전히 제 편견인가요.

주자학의 경(敬)공부와 불교의 정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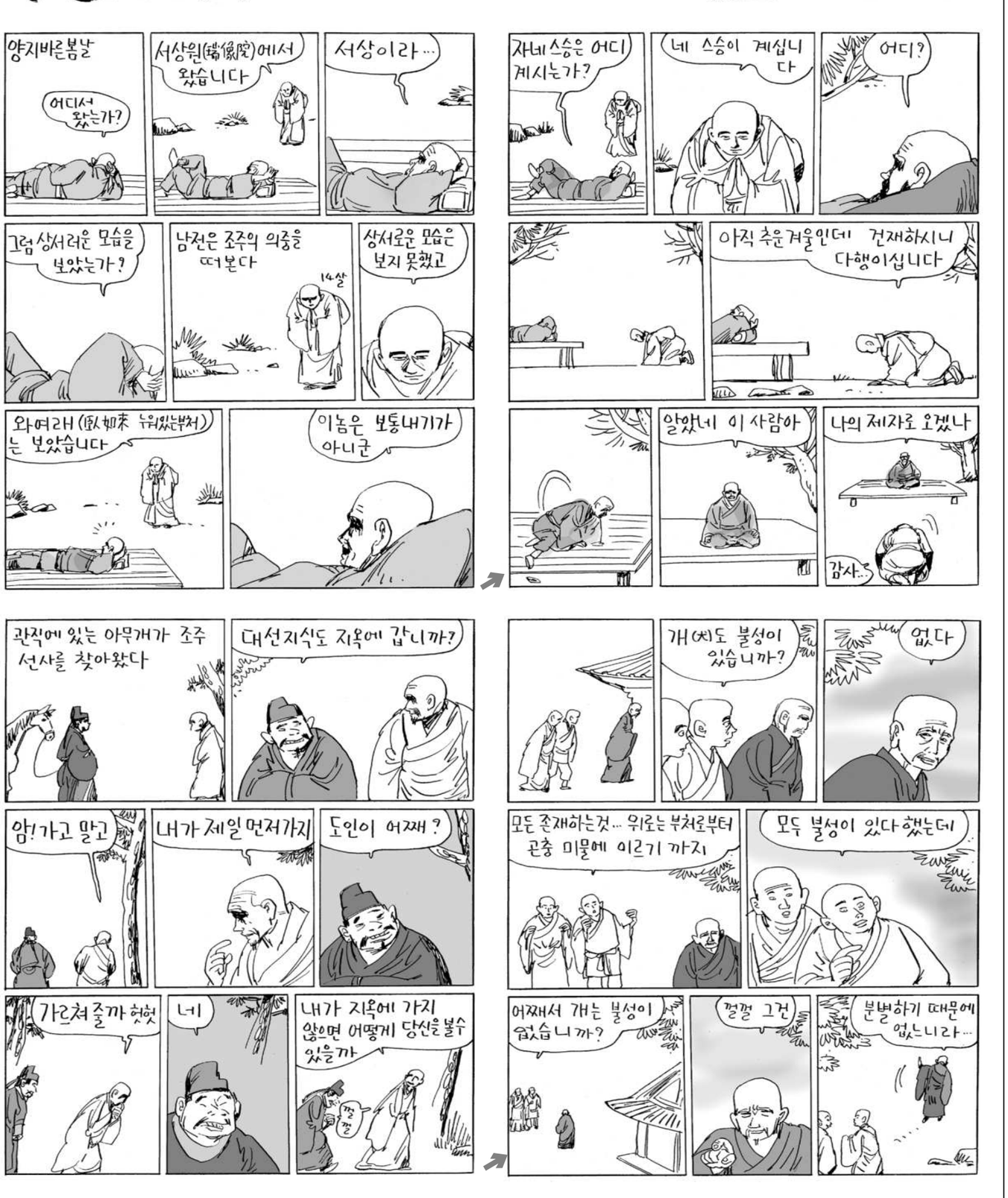
아 참, 이 정념은 나중 수출도 하게 됩니다. 주자학이 불교를 그토록 배척했다는 것, 조선조에는 승려들을 도성에 출입도 안 시켰다는 소리는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자학은 불교로부터 그 철학적 사고는 물론이고 수련법까지 배워갔습니다. 사람이나 사상이나 가까울수록 큰 목소리로 '차이'를 강조하는 법이지요. 주자학이 불교 형이상학과 심리학에 빚진 것은 나중을 기약하고, 우선 그 수련법에 있어 정념(正念)을 핵심적으로 채택했다는 것만 말씀드려 둡니다. 물론 용어는 바뀌었지요. '경(敬)'이 바로 그것인데, 동사를 살려 '거경(居敬)'이라고도 합니다. 주자학은 경 혹은 거경의 방법으로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거기 아예 서암 화상의 성성(惺惺)도 들어 있습니다. 성성은 <무문관> 제 12칙의 골자입니다. 서암 화상은 늘 자기 이름을 불러 놓고 스스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개야!" "네."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해(惺惺著)!" "네." "차후로는 누구에게도 속아서는 안돼!" "네, 네."

주자학에서의 경(敬)은 마음의 자각과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자기 안팎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있는 경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몸 밖으로 나간 마음을 내 몸 안으로 다시 불러오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주자학 또한 불교처럼,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악에 빠져드는 것은, 사물에 마음이 빼앗겨, 마음의 본래적 각성상태를 잃고 혼침(昏沈)과 산란(散亂)에 빠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자따라… ㊼ 조주선사의 지옥

조태호



조주선사(778-897): 중국 산동성 조주부에서 출생. 남전보원 스님에게 법 인가. 80세에 조주성 관음원에 정착. '끽다거' 등 활발한 가풍으로 선객 제접. 120세에 입적.

네티즌 교리문답

"'육조단경'을 왜 읽어야 하나요?"

문 참선수행 초심자들이 꼭 읽어야 할 선어록으로 <육조단경>을 꼽고 있습니다. 왜 <육조단경>을 읽으라고 하는가요? 또 어떤 부분이 참선수행 초심자들에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IP 궁금이)

답1 : 아마도 <육조단경>이 선종성립사에서 초기에 해당되어 교와의 관계가 많이 남아 있고 또 전체를 얕긴 하지만 비교적 개괄적으로 골고루 언급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수행을 좀 해본 사람들은 <육조단경>이 싱겁고 미온적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육조단경>은 후대에 와서 인위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는 점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철 스님이 특히 선종인 조계종의 종통과 종지와 종조 등 독자적인 존립의 근거를 확실히 하려고 <육조단경>을 신성시하고 자신을 육조의 아손이라고 자처했는데, 실제 마음속으로는 <조주록> <운문록> <임제록> 등을 훨씬 아꼈음이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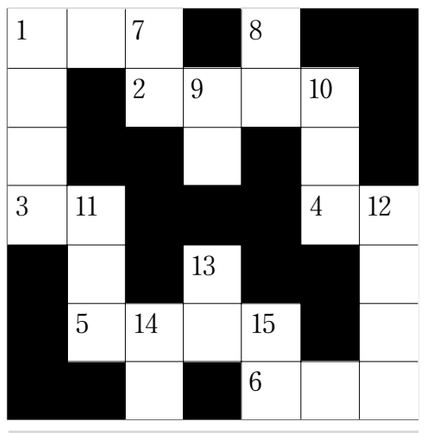
사실 <육조단경>은 위경(僞經) 혹은 수사적 창작품이라는 주장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육조단경>은 그 뒤의 본격적 어록들인 사가어록 등 전성기의 어록들에서 단 한 구절도 인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사가의 조사들이나 제자 등 후대의 승단에서 <육조단경>의 존재를 전연 몰랐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완전히 무시 경멸했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육조단경>은 적어도 육조의 사후 200년쯤에 비로소 세상에 나온 데다가 본격 선어록의 내용이나 체취가 없이 어떤 문장가가 다소간의 불교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피상적이고 두리뭉실하게 육조의 전기를 흥미 위주로 창작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토출용궁)

답2 : 광덕 스님이 역주하신 <육조단경>을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스승님을 통해 경이 가르치고자하는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조단경>을 읽어야하는 이유는 돈오, 정과 혜, 선정, 좌선 등 선문에 필수적일 용어에 대해 아주 명확히 육조대사께서 정의를 한 후에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선공부시 개념 파악에 용이합니다. '경'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그 만큼 높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돈점에 대한 기술도 <육조단경>에 있으며, 청화 스님도 입적하시기 전에 <육조단경> 번역에 많은 신경을 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yeworld)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가로 1. 세계의 역사 2.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3. 여러 가지 일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 발행한 책자 4. 약을 파는 곳 5.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 6. 음용 또는 공업용 물을 제공하기 위해 취수 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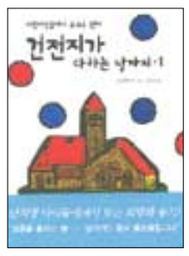
세로 1. '세계는 한 송이의 꽃' 7. 개인적 견해 8. 작은 아버지의 다른 말 9. 포대기의 다른 말 10. 회충을 제거해주는 약 11. 석가모니가 그 아래에서 변함없이 진리를 깨달아 불도를 이루었다고 하는 나무 12. 숭산 스님의 발원으로 지어진, 화계사에 있는 선원, 전 세계 수행자들이 모여 수행하는 곳으로 유명함 13. 다른 사람의 방문에 대한 답례로 방문하는 것 14.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성(華城)이 있는 곳으로 경기도 도청소재지 15.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등을 판단하는 일.

정답은 26면에


일본 나가노현에 있는 어린이병원. 빨간 고깔모자 지붕이 돋보인다.

아픈만큼 아름다운 어린 천사들

난치병과 싸웠던 아이들의 가슴뭉클한 생명 이야기



건전지가 다하는 날까지1
은방울꽃모임 엮음
황소연 옮김
한울림 펴냄
8천5백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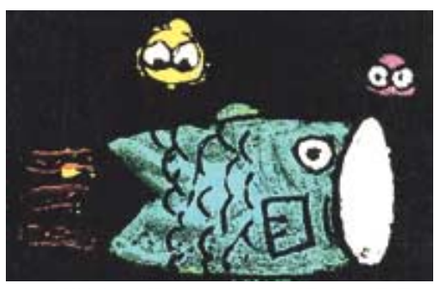
1998년 6월, 일본 후지미 구청에서는 조촐한 장례식이 열렸다. 소아암의 일종인 신경아세포증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다 끝내 세상을 떠난 한 소녀의 장례식이었다. 소녀의 이름은 미야코시 유키나. 세상과 작별하기에는 너무도 어린, 겨우 11살의 나이였다.

그리고 장례식에서는 한 편의 시가 낭독됐다. 유키나가 하늘나라로 떠나기 4개월 전에 쓴 '생명'이란 시였다.

"생명은 굉장히 소중하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건전지 같은 거다.
하지만 건전지는 언젠가는 다 닳아 없어진다.
생명도 언젠가는 닳아 없어진다.
건전지는 바로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되지만,
생명은 쉽게 갈아 끼우지 못한다.
…(중략)…그래서 나는 생명이
'나 피곤해 죽겠어'
하고 말할 때까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갈 테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유키나. 시에서 썼던 것처럼 생명의 건전지가 다할 때까지, 그래서 '닳아 없어지는' 순간까지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소녀였다. 병마가 덮쳐온 다섯 살 때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의연했고,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빠진 머리에도 "이러다 빡빡 대머리되겠다"며 늘 웃음을 지어보이던 천진난만한 '빨간 두건'의 소녀였다. 또 "왜 하필 나야"하며 울부짖는 병실 친구들에게 "조금만 참고 노력하자"고 격려하며 밥을 먹이던 어린 천사였고, 약 먹기 싫다고 떼쓰는 아이에게 약을 먹이던 '꼬마 해결사'였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밤이면 남몰래 울음을 삼키던 평범한 소녀였다.

<건전지가 다하는 날까지1>은 이처럼 어린 몸으로 난치병과 싸웠던 유키나를 비롯해 병과 힘겹게 싸운 아이들의 진실한 '생명'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나는 약하지 않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중학교 1학년 이시타케이, "괜찮아, 난 괜찮아"하며 자기 주문을 걸었던 중학교 1학년 헴미 히토미, 엄마와 쇼핑하는 것이 꿈이라 말했던 4살의 사토 유키 등이 주인공들이다. 그들의 생(生)에 대한 애착과 투병의지가 천진난만한 언어로 쓰여져 있다.


의료사회복지가가 꿈이라는 나가사카 메구미가 만든 물고기 판화.

때문에 이 책을 눈으로 쫓고 있다보면 활자가 금세 흐려진다. 눈물이 고이기에 그렇다. 비록 어린이들의 이야기지만,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든다.

특히 두 돌 3개월 만에 소아암 진단을 받고 5살 때 세상을 떠난 사토 유키의 시 '약'에서는 삶의 비장함마저 묻어난다. "맛있는 약은 이 세상에 없나요?"라고 물었던 유키가 "이제부터는 약도 열심히 먹을 테야"라는 유키의 마지막 시구에서는 병마와 정면을 맞서 살아가려는 강한 '생명'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유키의 어머니 사토 히로미 씨가 다섯 살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딸을 그리며 쓴 글에서는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물약 가루약 가리지 않고 참 많이도 먹었지요. 약을 먹고 바로 토해낸 때도 많았어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도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참 열심히 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혈압을 낮추는 약은 정말로, 정말로 싫었나 봅니다."

열다섯 해도 다 못 채우고 떠난 사카모토 마사미의 '마지막 치료'에서도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어린 아이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번만 잘 참아내면 / 건강해질 수 있다 / 병이 나을 수 있다 /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 집에도 돌아갈 수 있다 /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은 모두 할 수 있다."

어린이 병원학교에서 나눈 아이들의 우정도 눈물겹다. 지금은 병을 이겨내고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다무라 유카가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유키나에게 쓴 시를 읽으면 이내 마음이 뭉클해진다.

"유키나는 2년 전부터 줄곧 병원에서 산다 / 매일 치료 때문에 힘들어한다 /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울고 있을 땐 / 자기가 아픈 건 말짱 잊어버리고 / 금세 쪼르르 달려가 아픈 친구를 달래준다 / 가아~끔 / 밤에 훌쩍이는 소리가 난다 / 언제나 다른 친구들을 달래주는 유키나가 울면 /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미안해 달래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유키나."

나가노현 어린이 병원학교 야마모토 아츠오 담임은 이 책에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 치료에 임하는 아이들에게서 천진난만하면서도 귀여운 어린 수도승의 얼굴이 떠오른다"며 "치료하는 고행 속에서 얻은 '뭔가'를 확실하게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아이들은 분명 아픈 만큼 아름다워진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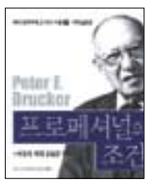
생명은 굉장히 소중하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건전지 같은 거다.
하지만 건전지는 언젠가는
다 닳아 없어진다.
생명도 언젠가는 닳아
없어진다.
건전지는 바로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되지만,
생명은 쉽게 갈아 끼우지
못한다.
…(중략)…그래서 나는
생명이
'나 피곤해 죽겠어'
하고 말할 때까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갈 테다.


1. '빨간 두건'의 천사 미야코시 유키나가 제작한 판화.

2. 하나자토 에미가 중학교 2학년때 어린이병원 학교에서 만든 판화.

3. 병실에서 꼼짝없이 갇혀 지냈던 스에모리 아야카가 그린 토끼 그림.

전문가 서평



프로페셔널의 조건 - 자기실현 편
피터 드러커 지음 | 이재규 옮김 | 청림출판 펴냄 | 1만2천원

"당신은 진정한 프로인가?"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 산 정상에 오르면 곧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경쟁자들은 선두를 끌어내리려고 언제나 안달이다. 이런 현실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 프로의 자세는 바로 이것이다.

현존하는 경영학의 대가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인 피터 드러커. '경영의 귀재'로 칭송 받는 피터 드러커가 <프로페셔널의 조건>을 통해 우리에게 개인의 자기실현을 위한 전략을 들려주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이미 오래 전 자신의 책에서 미래 사회를 지식사회로 규정하고, 그 사회를 움직일 지식 근로자에게 관심을 가져왔다. 이제는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 요소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주던 시대가 끝났으며, 치열한 경쟁 환경 하에서 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의 핵심은 그 기업이 고용한 '지식 근로자'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지식 근로자가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성을 소유했느냐'의 여부이다. 즉 지식 사회의 기업은 지식 근로자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일엔 왜 관심이 없을까

피터 드러커는 지식 근로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에는 '어떻게 자기실현을 할 것인가'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다. 기업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요소인 지식 근로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자신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설명하고 있다. 지식 근로자 개개인이 생산성 높은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 필요충분조건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답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잘 나타나 있다. 불교와 기업경영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는 모든 것이 결국은 그 가르침이나 전략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법구경>에도 나와 있듯이 불교는 많이 아는 것보다는 얼마나 실천하느냐를 훨씬 더 중시하는 종교이다.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지식 근로자의 나아갈 길 역시 결국은 이것과 일맥상통한다.

피터 드러커는 이 책에서 몇 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일이다. 프로는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 강점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인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식 근로자 개인의 강점에 기초해서 인력 배치를 할 경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정작 자신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강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피터 드러커는 '강점 활용하기' 외에도 '효율적인 시간 관리',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프로페셔널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이제는 지식 근로자 개인을 대변해주는 것이 '소속' 보다는 자신의 '전문 지식 분야'가 됐다. 이러한 지식 사회의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해 피터 드러커의 혜안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강민구 (선진에셋가디언 부사장)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

모든 감정을 탁 놔버려라!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禪 너는 누구나
선원장 스님들의 사자후

울 초 조계사에서 3개월간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대법회'에서 11명의 선사들이 펼친 법문을 모았다. 선의 본질과 의미, 화두 두는 법, 선 수행의 요체 등을 주제로 선의 정수와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 중앙일보

'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자신들의 수십 년 수행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했던 지난봄 조계사 선원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 조선일보

지난봄 매주 3천여 명 이상이 동참하는 뜨거운 열기로 이어진 선원장 법회의 내용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 매일신문

여시아문 3주 연속 베스트셀러



■ 고우 스님-선의 본질과 의미 ■ 무여 스님-화두 드는 법 ■ 대원 스님-선과 깨달음 ■ 함주 스님-마음은 무엇인가 ■ 현산 스님-비우고 쉬는 공부가 선 ■ 영진 스님-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 지환 스님-선 수행의 요체 ■ 혜국 스님-머무는 곳마다 주인되어 진실되게 사는 법 ■ 현응 스님-한국선의 세계화와 생활선 ■ 도현 스님-선 스스로 만드는 행복 ■ 설정 스님-단박 깨침이란 무엇인가 ■ 특별법문·법장 스님-경허 · 만공 선사의 가르침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화제의 책

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
선어삼백칙
(禪語三百則)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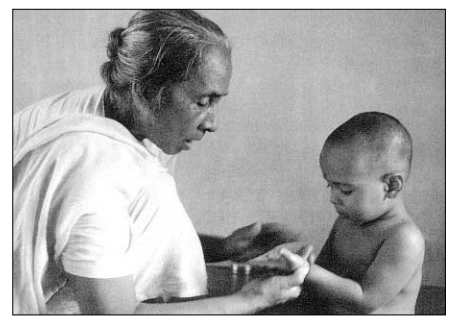
'선어삼백칙 – 주제가 있는 선 이야기 삼백 가지'는 역대 선지식들의 수행담과 득도를 향한 열정이 담긴 핵심적인 어록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스스로 불성을 지니고 있다', '문득 깨달아 부처가 된다', '한 올도 걸리지 않는다' 등 주제별로 선수행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 무조건 '어렵다' 고만 느껴온 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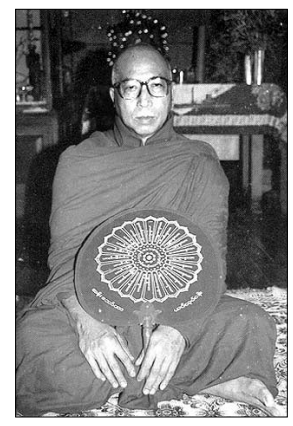
신국판 / 420쪽 / 차차석 譯解 값 10,000원 /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02)737-0695 Fax:02)737-0696 www.yosiamun.com
여시아문

길은 일상에 있으니 …

위빠사나 대가 2인의 일대기·수행지침





스승의 가르침이 없다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무척 더디거나 혹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물론 '부처님'이라는 큰 스승이 있지만, 가까이서 바른 수행의 길로 안내해 주는 자상한 스승이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붓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와 〈큰 스승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으로 널리 알려진 위빠사나 수행자인 디파 마와 아신 자띨라 사야도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다. 책을 통해 생생한 가르침을 전해들을 수 있는 기회다.

'수행이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며 걷고 말하고 먹고 청소하는 일상 속의 모든 일이 수행'이라고 강조하는 두 스승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붓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
아미 슈미트 지음
이명원 옮김
꿈꾸는 돌
8천5백원

생활 수행법 고안한 '명상 대가' 디 파마의 삶 | 수행 기초~열반단계 경전에 입각해 설명



큰 스승의 가르침
아신 자띨라 사야도 지음
오원탁 옮김
묘원 스님 주해
행복한 숲 | 1만3천원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명상의 대가'가 된 한 수행자가 있다. 위빠사나 명상센터의 공동 창립자인 조셉 골드스타인과 스피리트 록 명상센터를 설립한 잭 콘필드 등이 '정신적 스승'으로 여기는 '디파 마(Dipa Ma, 1911~1980)'이다. 〈붓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는 '빛의 어머니'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의 일생과 가르침을 정리한 책이다.

후에 '디파 마'라 불린 나니 발라 바루아는 1911년 미얀마 국경과 인접한 동벵갈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인도의 전통에 따라 12살에 결혼한 나니는 남편과 함께 미얀마로 이주하게 된다. 결혼 20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지만 3개월 만에 병으로 잃었고, 다시 4년 후 딸 디파(Dipa)를 출산했으나 이번엔 남편 라자니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다.

낯선 땅에 혼자 남겨진 40대 중반의 나니는 7살짜리 어린 딸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남편을 잃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명상 수행의 길로 접어든다. 쇠약해진 몸과 어린 딸을 보살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는 1년 만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게 됐고, 명상 지도자가 되어 명상 수행법을 전파했다. 특히 그는 주부들이 요리, 세탁, 아이 돌보기 등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일에 마음을 집중하면 명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고, 실제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을 고안해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의 아파트에서 시작된 명상 수행법은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멀리 서구에서도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1980년과 84년에는 미국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던 그는 1989년 7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까지 끊임없이 명상 수행법을 지도했다.

책에서는 디파 마의 제자들이 말하는 '스승 디파 마'의 모습도 생생히 담겨 있다. 그들은 "디파 마는 부드럽고 꾸밈이 없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의력을 잃지 않고 단 한가지(수행)만을 행했다"고 스승을 추억한다.

디파 마가 전하는 교훈은 단순하다. 하나의 명상 수행법을 선택해 꾸준히 행하고, 매일 5분씩이라도 명상을 하라는 것. 또 마음을 자유롭게 가지고 감정의 불을 식히라고 충고한다. 자녀를 가진 여자의 몸으로 깨달음의 길을 걸었던 디파 마의 수행 과정을 읽다 보면 이제 "시간이 없어 수행을 못한다"거나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는 변명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붓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가 주부에서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된 디파 마의 일대기를 보여 주는 책이라면 〈큰 스승의 가르침〉은 아신 자띨라 사야도의 가르침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수행 지침서'라 할 수 있다.

40살이 넘어서야 명상에 입문한 디파 마와 달리 아신 자띨라 사야도는 일곱 살 때부터 마을 수도원에서 기본 교육을 받기 시작해 스무 살에 계를 받고 비구가 됐다. 수계 후 미얀마 종교성이 주관하는 경전에 관한 3개의 고급시험에 합격했고, 마사히 선원에서 우 빤디다 사야도의 지도 하에 강도 높은 수행을 받으며 차곡차곡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갔다. 마침내 1969년 삔마나 시에 마하시 선원 분원을 설립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했다. 현재는 양곤의 마하시 선원에서 외국인을 지도하는 수행 스승을 맡고 있다.

이 책에서는 위빠사나를 지도했던 경험을 토대로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의 기초부터 열반의 단계까지를 불교 경전에 입각해 차근차근 설명한다. 아신 자띨라 사야도는 "위빠사나 수행은 한두 생에서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윤회로 거듭되는 모든 생의 고통으로부터, 나아가 윤회 그 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매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무상(無常)한 특성을 주시하는 수행을 통해 위빠사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일상생활에서 집착과 탐욕, 성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이 발생하는 순간, 그것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위빠사나선원장 묘원 스님이 '깨달음의 일곱 가지 요인 경' '성자의 네 단계' '인간의 질병에 대한 법의 치유' 등에 대한 설명과 열반(니르바나), 관념적 진리(빠라맛타) 등의 어려운 불교용어를 역주로 풀이해 초심자들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시조시 정형 보여주고 싶어"

인터뷰 시집 '민박' 펴낸 김원각 시인



"시조시는 우리말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조시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그 내용은 자유시를 지향하는 '정체불명'의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 시조시의 '정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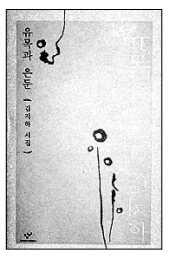
우리 시조시의 맥을 잇고 있는 김원각 시인이 단순하고 소박한 시조시 60여 편을 책으로 묶었다. "단순한 쇠 소리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풍경소리 같은 시"를 지향하는 시인은 "우리나라 정형시의 한 얼굴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말할 만큼 강한 자부심으로 시조시를 짓고 있다.

"산 속 허름한 집, 문 열고 들어서니/ 메뚜기 한 마리가 먼저 와 쳐다보네/ 반갑다/ 오늘 숙박비는 내가 다 낼게"('민박' 전문)

시인이 강원도로 거처를 옮긴지 벌써 3년 째. "거처를 옮긴다고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면서도 그동안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도 이웃임을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한다. 자연과 진정한 친구가 되고 자연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수 있기에 방에 들어온 청개구리가 '그저께 명함 내밀고 간/ 사람보다 반갑'고, 왕벌에게도 '이/ 산 속에선/ 너와 나 같은 벌레다'며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말의 운율을 잘 살린 담백한 시어와 종장(終章)의 반전, 해학을 통해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시와 어우러진 전각가 정병례 씨의 전각도 글맛을 더한다. 토방, 6천원.

죽음 속에 생명이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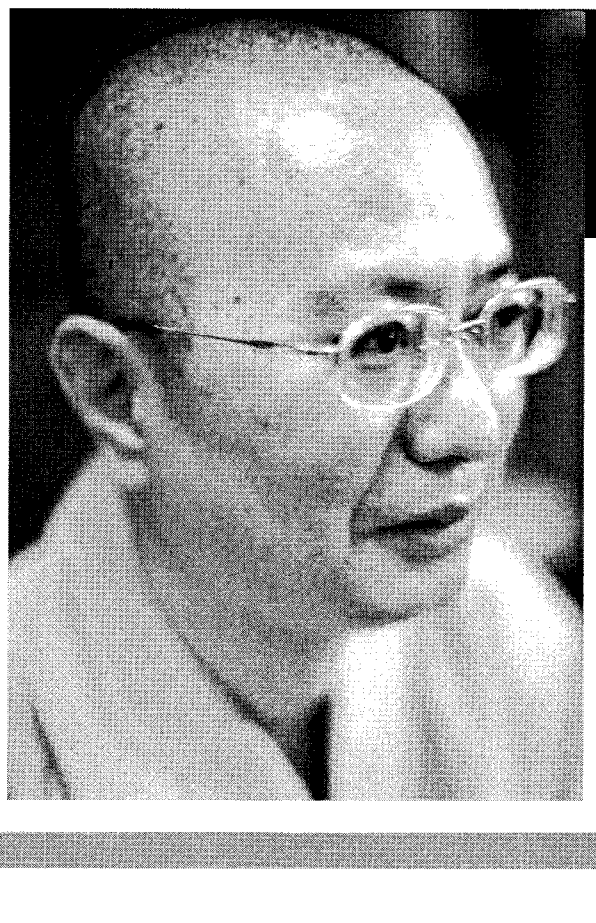
유목과 은둔 김지하 시집 | 창비 | 8천5백원

김지하 시인의 여덟 번째 시집 〈유목과 은둔〉은 '시인 김지하'에 대한 '생활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사상가·운동가의 이미지가 강한 김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老病死)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시인 스스로 "내 시집 중에 가장 허름하고 가장 허튼 글모음"이라고 밝혔을 만큼 90여 편의 시에는 생로병사의 한계 앞에 선 나약한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슬픔이 녹아 있다.

'좌골신경통'을 다스리기 위해 '중국에서 사 온/호랑이 고약 파스를 붙'이거나 아내와 함께 '뜸뜨러 여의도에' 다녀야 했던 시인은 9·11 사태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부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시위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시인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1, 2부가 시인의 '삶과 일상의 냄새'를 맡게 해 준다면, 3부에서는 삶에 대한 통찰을 느낄 수 있다. '선(禪)적인 것과 불(佛)적인 것을 아우르는 고졸한 미의 세계'를 보여주고자 한 연작 '화매오요' '삼소굴' 등의 시가 바로 그 예다.

"난장판 세상에 떨어진 불벼락 같은



이판사판 화엄경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총체적으로 난장판인 세상의 판을 바꿔 장엄한 세계로 이끄는 인류 최고의 행복 지침서!
본질에서 벗어난 정신없는 세상인 사판을 통째로 바로 잡고 이판의 지혜를 일깨우는 화엄의 죽비 소리!
어그러진 삶을 사는 동시대 모든 이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는 성법 스님의 사자후!
배꼽 잡으며 읽다가, 촌철살인 같은 지혜의 불벼락을 맞고 이판사판으로 삶을 바꾸게 되는 엄청난 책!

언론이 주목한 2004년 최고의 지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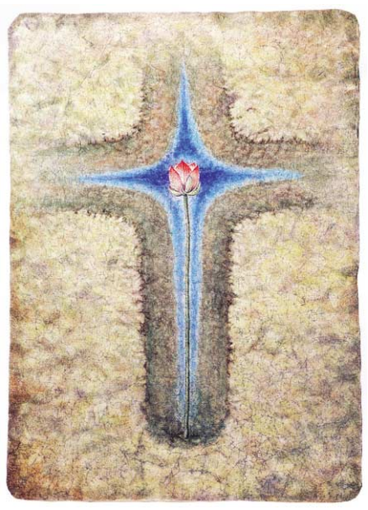
삶과 수행의 백과사전인 화엄경을 쑥쑥 들어오게 풀이했다 - 중앙일보/ 부끄러운 한국 불교의 자화상을 난타하는 책 - 조선일보
한 편의 에세이를 읽는 듯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 - 경향신문/ "보시는 투자가 아니다, 어리석음은 독" 등 현대인을 위한 삶의 지혜서 - 헤럴드 경제
첨단 과학 이론까지 접목시켜 흥미롭게 설명한 책 - 한국경제/ TV에 방영돼 쟁점이 된 〈영원한 대자유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 - 한겨레
바로 읽는 불교 경전. 상투적 해석을 개탄하며 초기 불교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 문화일보/ 화엄사상이 그의 손을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 세계일보
'인간은 욕심으로 꽉 찬 욕계(欲界)에 머문, 형편 없는 꼴찌'라고 갈파하며 화엄경의 지혜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 현대불교신문

성법 스님: 1957년 태어나 중동 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부처골 용화사 주지, 국내 최대 인터넷 불사佛事 「불교경전총론www.sejon.or.kr」 운영자. 20년 동안 경전 읽기와 수행에 전념했으며, '소원성취 보험회사'로 전락하는 현실 불교 개혁론을 펼치고 있다.



이판사
성법스님
이판사
지 차원
한 판단
의 진실
www.
tel.02.74

예술에는 종교벽 없다


천광호씨의 '함께 가는길'.


조병현씨의 '여래'.


노원희씨의 '생활의 기쁨'.

대구·경북 지역 종교 예술인들 음악 · 미술 통해 이해 폭 넓혀

연말을 맞아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이 예술을 매개로 한 종교화합의 한마당을 꾸려 훈훈한 감동을 전한다. 12월 9일 부산 여여선원 선방에서 열린 '생명 존중과 평화 정착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 음악회'를 시작으로 대구지역에서는 14일부터 19일까지 미술전 '사랑, 나눔, 자비, 평화의 합창 展'이, 16일에는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합창단이 한 무대에 올라 종교화합의 대합창을 선사하는 '종교 음악제'가 각각 펼쳐진다.

'사랑·나눔·자비·평화의 합창 展'

대구문화예술회관(12월 19일 까지)

대구지역에서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의 작가들이 미술 작품을 통해 한자리에 모인다. 1백명의 작가들이 참여하며 작품은 2백여점이 벽에 걸린다.

이번 전시는 원래 대구 · 경북지역 작가들이 중심이 돼 정기적으로 기획 전시를 열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회장 배현근)와 대구가톨릭미술협회(회장 천광호)의 주선으로 이루어 진 것. 지난해부터 두 단체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전시를 함께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개신교와 원불교 작가들까지 참여시켰다.

미술을 통해 종교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의도에서다. 출품되는 미술 장르도 회화를 비롯해 조각 공예 단청 서예 수묵화 등 거의 모든 분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이번 행사는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2층 특별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의 주제는 '사랑, 나눔, 자비, 평화의 합창 展'이다.

50여점 교도소에 기증 예정

불교측에서는 박현수씨를 비롯해 전연호 이태만 조병현 조해종 최성만 장영수 이정오 등 20여명이 나온다. 작품들중 눈에 띄는 것은 최윤석씨가 그린 '천수관음도'. 화려한 색채에 정교함이 돋보인다. 마치 펜으로 그린 것처럼 터치가 세밀하다. 단청을 활용해 소품으로 만든 작품들도 눈에 띈다.

김성희씨의 '비천도', 김윤기씨의 '귀면', 김윤정씨의 '봉황당초문', 전연호씨의 '단청' 등이 그것이다. 특히 큰 광배를 배경으로 부처님이 좌선하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조병현씨의 '여래'는 인상적이다.

대구가톨릭미술가회 회원들도 원동수 대구 죽전성당 주임 신부를 비롯해 천광호, 서창환씨 등 30여명이 참가한다. 종교간의 화합을 상징한 서양화가 천광호씨의 '함께 가는길' 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연꽃을 그려 넣어 종교인들간의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닥종이에 혼합 재료를 써서 그린 이 작품은 한 눈에 보아도 종교 화합의 의미가 짙어 이번 전시회의 취지를 금방 알게 해준다.

이외에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수채화 풍으로 그린 원동수 신부의 '풍경'은 바라보고 있으면 고요한 명상의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

개신교에서는 한춘봉 윤혜숙 윤형자 정용인 김광배 등 20명의 작품이 벽에 걸린다. 또한 원불교에는 노원희, 이동찬 등 4명이 참가한다.

이 행사를 주최한 배현근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는 기성 작가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일반인들도 참여시켜 나이와 종교를 초월한 지역 미술축제 형식으로 기획됐다"며 "올해는 비록 4개 종교에 국한시켰지만 내년에는 7개 종교의 작가들로 참여 폭을 넓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획한 천광호 회장도 "비록 작은 규모지만 미술인들 스스로 예술을 통해 종교의 벽을 넘어선 만남이라는 점에서 여느 전시회보다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관객들이 다양한 종교 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동시에 감상하며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가 끝나면 50여점 정도의 작품을 선별해 대구 화원 교도소에 기증할 예정이다. (011)498-0888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부산 여여선원에서 열린 '생명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음악회'.

생명존중과 평화정착…음악회

부산에서 성가대가 찬불가를 부르고 사찰 합창단이 성가를 부르는 이색 음악회가 열렸다.

12월 9일 부산 여여선원 선방에서 열린 '생명 존중과 평화 정착을 위한 기도회 및 작은음악회'는 스님, 신부, 목사 등 종교지도자들로 구성된 공동선 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의장 정여) 주최로 열렸다.

여여선원 다도회의 다도 시연으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는 선방에 둘러앉은 대중들이 한 잔의 차를 나누며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게 해 정겨움을 더했다. 불교합창단, 중창단, 천주교 합창단 출연 외에도 유교의 시창 순서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대구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종교 음악제는 '찬미'의 대상은 달라도 '음악'으로 하나 되는 종교 화합의 장. 특히 이번 무대는 대구시립국악단의 제 111회 정기연주회와 송년 음악회를 겸한 무대로 세 종교의 대표적인 합창단이 출연, 종교 음악의 진수를 선보이게 된다.

3대 종교 대표 합창단 공연

국악관현악의 반주로 진각종 금강합창단(지휘 류성욱), 대구가톨릭음악원(지휘 김정선 수녀), 기독교 경북챔버콰이어(지휘 김돈), 대구가톨릭 청소년소녀합창단 뿌에리 깐또레스(지휘 김정선 수녀)가 무대에 오른다.

교회 음악의 진수로 알려진 그레고리오 성가와 무반주 합창을 전문으로 하는 대구 가톨릭 청소년소녀합창단 뿌에리 깐또레스의 무대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종교음악의 맑고 깊은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무대로 기대를 모은다. 대구시립국악단 박상진 상임지휘자의 연합 지휘로 종교 연합 합창단이 들려주는 '청산별곡'도 빼놓을 수 없는 무대.

이 밖에도 소프라노 이정아가 객원 출연하며 대구 가톨릭음악원의 '미사' '받으시옵소서' 기독교 경북챔버콰이어의 '이 기쁜 날' '감사하세'와 금강합창단의 '거울을 닦아내듯' '연꽃 피어 오르리' '일천강에 비치는 달' 등이 연주된다. (053) 606-6310

천미희 · 배지선 기자


정·중·동의 조화를 보여주는 법우 스님의 '살풀이 춤'.

藝를 넘은 마음의 춤사위

법우 스님 전통춤 공연(대전시청 강당, 12월 15일)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에 박사(薄紗) 고깔을 한 법우 스님(대전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승무예능보유자 · 현불사 주지)이 승무의 춤사위를 흩날리는 무대를 마련한다.

법우 스님은 전통춤 공연 '초지일관(初志一貫)'을 12월 15일 저녁 7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연다. 이번 무대에서는 승무를 비롯해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돼 있는 법고춤과 천수바라춤, 나비춤, 회심곡 등이 시연된다.

이중 '천수바라춤'은 <천수경>중 '신묘장구대다라니' 진언을 염송하며 추는 춤으로 불법을 수호하고 악귀를 물리쳐서 도량을 청

두손벌리며 사뿐히 추는 '나비춤' 장엄

정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춤으로 양손에서 바라를 휘감아 돌리는 춤사위는 장엄함을 연출한다. 또한 조용히 느린 춤사위로 두 손 벌리며 사뿐히 추는 '나비춤'은 영산재 이식중 가장 아름다운 춤으로 손꼽히고 있어 이날 무대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개인 공연이지만 찬조로 출연하는 스님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준 보유자 구해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전수조교 원명 스님을 비롯해 정오 현준 병천 승우 도안 지수 등 20여명의 영산재 보존회원 스님 등이 무대에 선다. 여기에 장하선 지성철 최석권 류기형 이용운 씨등 20여명의 우리문화 예술원 회원들도 동참한다.(042)271-3395


불교무용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간의 애증과 희비를 표현한 '승무'.

해돋이가 아름다운 약산 약사 여래도량

신년 해맞이 대법회



부처님 가사에 얽힌 전설이 깃든 전남 완도 약산 가사 부락에 자리한 해동사는 약사여래불을 모신 도량으로 질병과 고난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이 영험을 얻고, 암도 치유되는 신비한 기도성취 도량입니다.

해돋이가 아름다운 약산 해동사에서 지난 한 해를 보내는 무사회향과 을유년 새해 소원 성취발원을 위한 철야정진기도(1080배), 연비식을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질병치유와 무량공덕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일 시 : 2004년 12월 31일(오후 6시) ~ 2005년 1월 1일

▮동참금 : 1인 1만원(저녁, 떡국 공양)

해동사 주지 일광 합장

전남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가사마을(가사리 해수욕장)

061)555-0879, 011-640-0879

▶ 오시는 길 : 전남 강진-마량 선착장-약산 해동사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초급, 고급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임상실습

▶ 개강 : 2005. 1. 3.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암침술학회

장소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카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카주라호-아그라-상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투만두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뭄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니-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라-바이샬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11>



참 아름다운 관계, 사제지간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듣고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종교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을 숭배하는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가 사리불을 보자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시오! 어딜 다녀오시는 길이오?"

"부처님을 찾아뵙고 법을 듣고 오는 길이오."

그러자 그 종교인은 딱하다는 듯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허허, 아직도 스승의 설법을 듣고 다니다니…. 여태 젖을 떼지 못하였소? 나는 이미 젖을 뗀지 오래요."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에게 출가하기 전에 이미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수백 명이 될 정도로 실력과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처님 계신 곳을 따라 다니며 낮은 자리에 앉아서 법을 듣는다니 제가 생각해봐도 그는 여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자는 태연스레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가?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오. 그대가 벌써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이요,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오. 어미 소가 있다고 합시다. 성품이 거칠고 사나운데다 젖이 적어서 아무리 빨아도 젖이 잘 나오지 않으면 송아지들은 어떻게 하겠소? 어미 소를 떠나게 될 것이오. 그러나 내가 배우는 법은 좋은 진리이고, 바른 깨달음이며, 번뇌를 없애주는 가르침이며, 의지할 만한 가르침이오. 마치 맛있는 젖이 풍부하여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항상 잘 나오기 때문에 송아지들이 떠나지 않는 어미 소처럼 말이오. 내가 오래도록 스승을 자주 찾아뵙고 그 분의 설법을 자꾸만 청해 듣는 것은 그 가르침이 바른 것이고 훌륭하기 때문이오." <잡아함경>35권(947경)

대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이기에 사리불 존자가 이와 같은 비유를 드는 것일까요? 스승의 깊이를 가늠할 수준의 제자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승에 대한 진실하고 소박한 마음가짐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리불 존자는 정작 자신의 제자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도 자못 궁금해집니다.

장사꾼들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며 여기저기 장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마침 그들이 길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 개가 장사꾼들의 고기를 훔쳐 먹었습니다.

"저런저런, 아니 우리도 아껴 먹는 고기를 감히 개가 먹어 치워?"

사람들은 그 개를 죽도록 때리고 다리를 부러뜨린 뒤에 그냥 버려둔 채 떠나갔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사리불 존자가 천안(天眼)으로 죽어가던 그 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서둘러 성에 들어가 음식을 얻어 가지고 나와 개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개는 음식을 먹고 간신히 기운을 차렸고 사리불 존자는 미묘한 법을 일러 주었습니다. 사리불 존자의 법을 들은 뒤 개는 이내 목숨을 마치고 사위국의 어느 바라문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사리불 존자가 그 집에 걸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 집의 주인인 바라문은 존자가 홀로 걸식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자 자기 아들인 균제를 그에게 출가시켰습니다. 사리불은 균제를 사미로 얻어서 기원정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차근차근 알아듣기 쉽게 설법을 해주자 아이는 마음이 열리고 뜻이 풀려 마침내 아라한과를 얻고는 공덕을 다 갖추었습니다.

도를 얻은 균제 사미는 '대체 나는 지난 세상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런 훌륭한 분을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을까' 궁금해 하다 지혜의 힘으로 지난 세상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전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리불 존자님의 은혜를 입었다. 내 몸이 다할 때까지 우리 스승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리라.'

그리하여 균제는 계속 사미로 지내면서 대계를 받지 않고 사리불을 모셨습니다. <현우경>

훗날 사리불 존자가 고향에 돌아가서 열반에 들었을 때도 끝까지 그 옆을 지킨 사람은 균제 사미였습니다. 존자의 유해를 부처님에게 가지고 와서 눈물 속에서 스승의 열반을 알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입니다만, 그 깨달음이 인간 속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제관계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꾸 우리 곁에서 큰 스승님들이 떠나가십니다. 만난 자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세상 모든 것은 흩어지기 마련이라지만 훌쩍 자리를 비워버리시는 스승님들이 못내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아직 그 젖을 못다 먹었는데 말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깨달음은 아름다운 사제관계가 있기에 가능한 것
훌쩍 자리를 비워버린 큰 스승님들 못내 야속

지금 하는일부터 최선을…



도견 스님은 "우리는 본래부처인데 번뇌망상 때문에 부처 노릇을 못하고 있다"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상 백고좌

도견 스님

(해인사 동당수좌)

무상(無相)으로 위종(爲宗)하고 무주(無住)로 위체(爲體)하고 묘유(妙有)로 위용(爲用)이라.

공부에 대해서 말한다면 <금강경>에 상이 없는 것으로 전체를 삼고, 주함이 없음으로써 체를 삼고. 마음의 용심하는 것으로 용을 삼으라 했습니다.

어떤 스님은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이 무슨 물건인고' 그러기도 하고 혹은 손가락을 쳐내밀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며)가리키기도 하는데 그것이 다 한 물건을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모든 스님네의 공부하는 방법이지요.

이 세상물건은 모든 것이 그늘이 있으면 양지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듯이 상대가 있는데 이 물건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뭐라고 입만 열면 한방망이 맞아야 하지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언어도단이고, 말 길이 끊어진 자리지요.

또, 천겁을 지났어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불기 몇 년이다' 그러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때' 라고 그랬지. 불기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견성한 분들은 다 자기가 본 마음 자체를 얘기합니다. 비유컨대 이만한 데를 들여다 보면서도 저쪽 문에서 들여다본 사람은 저쪽에서 본 것을 그대로

크든 작든 걸림없는 마음자리

얘기하고 이쪽에서 본 사람은 이쪽에서 본 것을 얘기하지요. 동서남북에서 본 것은 다 다르지만 본 당체는 하나입니다. 마음 자리를 찾기 위한 방법이 다 다르지만 간화선이니 위빠사나니 어쩌니 하는 것보다도 하나로 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니까 그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도 다 거기에서 생겨나고 모든 것이 다 마음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이 마음자리를 등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자리의 크기를 말하면 이 우주를 싸고도 남고, 작기로 말하면 햇빛에 비쳐보이는 잔잔한 수없이 많은 먼지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크면 작은 데 못 들어가고 작으면 큰 데 못 들어가는 것이 세상 물건인데, 마음자리는 작고

제20기 불교 전문 호스피스 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제 20기 불교 전문 호스피스 교육안내』



살을 저미는 이 세상 외로움 속에서
물같이 흘러간 그 나날 속에서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애타지게 부르면서
그 누가 죽어 가는가 보다.

정녕코 오늘 저녁은
비길 수 없이 정한 목숨이 하나
어디로 물같이 흘러가 버리는가...

호스피스...
生死, 고통의 늪에서 자비를 피어 오리는 구도의 길이며, 보리심의 꽃이며 성불의 열매다!

교 육 안 내

◆ 일 정 : 2005년 1월 9일 ~ 2005년 1월 16일(7박 8일)
◆ 장 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17-1 정토마을
◆ 교육대상 : - 스님 및 불교 의료복지 포교에 뜻이 있으신 재가법사, 포교사
- 불교인으로서 삼귀오계를 수지하신 분으로 신심이 돈독하여 보살행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
◆ 인 원 : 선착순 남,여 40명 ◆ 연 령 : 32세 ~ 65세 ◆ 교육수강료 : 19만원
◆ 지 참 물 : 공통 - 반명함판 컬러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1통, 필기도구, 개인 세면도구, 108염주
스님 - 가사장삼, 목탁
◆ 원서접수 : 전화접수, 우편접수, 직접방문 ◆ 원서마감 : 2005년 1월 5일

한국 불교 아미타호스피스 협회의 호스피스 교육은
국내 유명 강사진과 함께 의료복지 포교 및 자질 향상에 최선을 다합니다.

◆ 교육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정토마을 사무국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43) 298-2258, FAX : 043) 298-1457 주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1
Homepage: http://www.jungtoh.com(한글로 '정토마을' 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e-mail: jungtoh@jungtoh.com 불교호스피스연합 : cafe.daum.net/BHU

PALLIATIVE CARE CENTER 정 토 마 을 원장 能行 합장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6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수열(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주간반·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60명) · 불교문화답사학과 (정규반30명, 통신반2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4년 12월 11일~ 2005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불교문화답사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5년 2월 5일(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불교다도학과·불교미술학과·불교장례문화학과·불교문화답사학과 : 2005년 3월 8, 9, 10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큰 것에 걸림이 없습니다.

이 도리를 알면 매사가 다 하나로 통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뭐라고 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건 모두 잘못된 소견입니다.

과거 조사님들도 마음자리에 대해 얘기한 것이 800여 가지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사실 하나로 회통하는 데는 마음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공부를 해서 깨쳐야만 이 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인데 번뇌망상 때문에 부처노릇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번뇌망상이 공한 줄 알면 본래 부처라 이 말이지요.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어떤 제자가 자꾸 와서 '부처님이시여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하니, 나무를 흔들어서 '나무가 어떻더냐?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흔들리지 않더냐' 고 했더랍니다. 부처님도 이렇게밖에 못 가르쳤습니다. 가르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또 중국의 어느 조사는 제자가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물으니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 고 답했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한 물건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깨치기 전에는 모른다는 말이지요.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는 먹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옆에서 차고 뜨거운 것을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맛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얘기할 때 아주 고상한 법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는 것이고, 성철 스님은 신도들에게 꼭 삼천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번뇌망상 공한 줄 알면 본래부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일뿐 아니라 쓸데 없는 망상을 제거하고 통일된 그 마음자리를 오롯이 수행에 몰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6년 고행하신거나 달마 스님이 9년 고행하신 거나 다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진짜 마음의 도리를 얘기하면 전부 놀라서 도망가 버리지요. 그러니까 초보자에게는 근기에 맞게 부처님께 기도를 해라, 삼천배를 해라, 염불을 해야 등등 훨해라 하는 겁니다. 수련해 나가는 과정이고 자기가 직접 해보아야 합니다. 꾸준히 해 수행의 맛을 본 사람들은 남이 하라 마라 안 해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통일되었을 때 공부하는 방법을 바르게 일러줘야 곧바로 들어갈 수 있고 바른 가르침을 받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로 몰입될 때 화두참구가 잘 됩니다.

공부는 이 하나로만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잠깐이라도 화두를 놓치면 '염주(念珠)' 있지요. 생각 념(念), 구슬 주(珠), 염주를 생각하면 또 화두가 잡히는 수가 있어요.

과거 큰스님들이 비유한 말이 있습니다. 밀림 속에서 나무를 베어 끌고 내려올 때 나뭇가지를 다 자르고 나무둥치만 남아야 죽 끌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공부도 그러해야 합니다. 마음 다스리는 것도 그와 같이 해야 해요.

화두에는 1700공안이 있어요. 공부를 지도하는

마음 하나돼야 화두 잘 잡혀

방편이 그렇게 많은데 '뜰아래 잣나무니라' 혹은 '똥막대기니라' 하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공부할때는 다 형체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아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먹으면서, 대변을 보면서, 물건을 팔면서 아무데서나 공부할 수 있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형체가 있는 공부만을 해왔기 때문에 화두를 가르쳐 주어도 익어지지 않아 자꾸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복잡합니다.

한암 스님이 예전에 저에게 글을 가르치다가 너무 모르니까 '너희 할아버지가 글을 했느냐, 할머니가 글을 했느냐?' 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어느 누구도 글을 못배웠다' 고 말하니까 한암 스님이 '너는 글 하는 소리조차도 못 들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투르지. 그러나 자꾸 하다보면 과거의 것이 서툴러지고 새로 하는 것이 잘 개척해 나가는 것이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 공부든 마음공부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필경엔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재가불자 중에도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이는 스님보다 몇 배 공부가 쉽게 되는 이도 있고, 스님이라도 영 공부가 둔해서 안 되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래 오래 꾸준히 한다면 필경에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정성껏 하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법을 만났으니 한번 제대로 발심하여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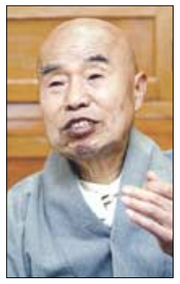
정리= 배지선 기자 · 사진 = 박재완 기자



매일 하루 두시간 포행에 나서는 도견 스님. 포행할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핀다"고 답한다.

도견 스님은

매일 2시간 여여한 포행
마음 살피고 자연과 교분 쌓고



법보종찰 해인사 선원 옆 극락전에는 도견 스님이 주석하고 있다.

스님은 오대산 분중이지만 25세때 해인사에 온 후 해인사가 좋아서 머물게 됐다.

해인사 모든 수좌들의 수행을 점검 경책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스님은 지금도 일주일간 잠 안자고 수행하는 용맹정진에 방장 스님과 번갈아 나가 경책하고 돌아보는 책임을 맡고 있다.

스님은 매일 새벽 6시 반, 낮 12시만 되면 어김없이 포행에 나선다. 해인사 극락전 뒤로 난 조그마한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면 지족암과 백련암으로 오르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 성철 스님 사리탑을 거쳐 한바퀴를 돌아온다. 1시간이 족히 걸리는 포행길이다.

"스님, 포행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포행길을 따라나서며 대뜸 여쭈었다.

"자기 마음이 어디있는가 살피지."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도견 스님은 스스로를 평할에 "전생에도 부처님 제자였고, 금생에도 부처님 제자고, 역시 앞으로도 이 길을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힘드시진 않으세요?"

"그래야 운동이 되지." 스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차분하면서도 여여하다.

바스락 바스락 낙엽 위를 옮겨 걷는 80 노스님의 발걸음 또한 결코 빠르지는 않았지만 한결같다. 가다가 재가불자를 만나면 인사도 건네고, 구석구석 자연과의 교분도 쌓아간다.

"저것이 잣나무지, 여기는 잣나무가 많아. 전에는 여기서 여우가 얼굴을 쏙 내밀었어"

스님은 우매한 기자에게 어떻게 하면 법의 진수를 알려줄까 재미난 이야기들을 섞어가며 시간도 적고 큰 것도 없는 하나를 알아야 한다고 시종일관 법문했다.

도견 스님은 1925년 인천시 강화군 화전면 부근리에서 태어났다. 1944년 오대산 동관암에서 지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45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3년간 교학에 정진했다. 이후 해인사, 순천 송광사, 선산 도리사, 부산 범어사 등 전국 각지의 선방에서 수행했다.

스님은 80년대 중반 중앙종회의장과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다.



지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적음 스님 (上)

오랜 도반 적음(寂音) 스님이 시집을 한 권 보내왔다. 그간 쓴, 한국 최초로 붓으로 쓴 아주 좋은 시집이다. 한지 재질로 만든 그 시집을 읽으면서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그의 묵향을 느꼈다.

사람은 늘 가고 오지만, 사람은 늘 그렇게 오고 가며 살지만, 그의 행방은 늘 묘연했다. 우리네 스님들의 삶이 그러하지만, 그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온 천지 온 산하를 떠돌며 살았다. 도토리 주워 먹고 고구마 캐먹고 외진 저 변방의 어느 산자락에서 그는 지금도 머물고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그의 행방을. 다만 그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네 곁을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음을 그런대로 추측할 뿐이다.

적음 스님은 열다섯 살 때 경주 함월산 기림사



그림 · 문명성

로 출가하여 대구 동화사 혜봉 노스님께 내전(內典)을 이수하고 중강으로 한참동안 후학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나는 조금 놀랐다. 적음 스님과 대학, 이런 것은 어쩐지 '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것도 동국대학 불교학과가 아닌 일반대학, 그것도 서라벌 예술대학이라는 생판 듣지도 못한 학교의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는 것은 나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스님은 남산 기슭에 있는 조그만 암자에 머물며 아침저녁으로 염불을 해 올리면서, 그렇게 어렵사리 학교생활을 한다고 들었다. 핍박스런 삶의 한 가운데, 그러나 그는 묵묵히 그것을 견뎌냈다고 들었다. 그의 학교 친구들과 후배들은 그를 일컬어 '사운드 오브 사이렌스'라고 하며 웃어댔다. 법명 '적음(寂音)'을 그렇게 그들대로 번역하며 즐거워했던 것이다. 그의 별명은 '재봉틀'이다. 한 번 웃기 시작하면 마치 털털거리는 재봉틀 같다는 게 그의 주변, 후배 친지들의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진정한 무소유(無所有)의 삶. 스님은 아직까지 그렇게 산다. 그는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생(生)을 지금껏 영위해 오고 있다.

그런 그가 몇 년쯤 전에 토굴을 하나 마련했다. 너무 떠돌다 보니 심신이 지쳤는지, 그냥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고 싶었는지, 어떻든 그는 허물어져 가는 외진 농가를 사서 수리해서 산다. 토굴 이름은 일소암(一笑巖)이다. 세상만사 한 번 웃고 나면 그 뿐이라고 그렇게 지었는가. 한 번 웃으면 만사가 형통이라고 그렇게 지었는가. 일소, 일소, 일소, 모든 번뇌를 잊고자, 그렇게 일소로 흘날려 버리자 그리하여 그렇게 지었는가. 저 먼 옛날 신라적, 서라벌 경주 남산에서 대안(大安) 스님이 가끔씩 장안에 나올 때면 대안 스님은 주문을 외우듯 대안, 대안, 대안 이러면서 다녔다. 적음 스님, 그도 앞으로 일소, 일소, 일소 하면서 서울 장안을 누빌지도 모른다. 건강하고 묵묵한 적음 스님의 시 한 편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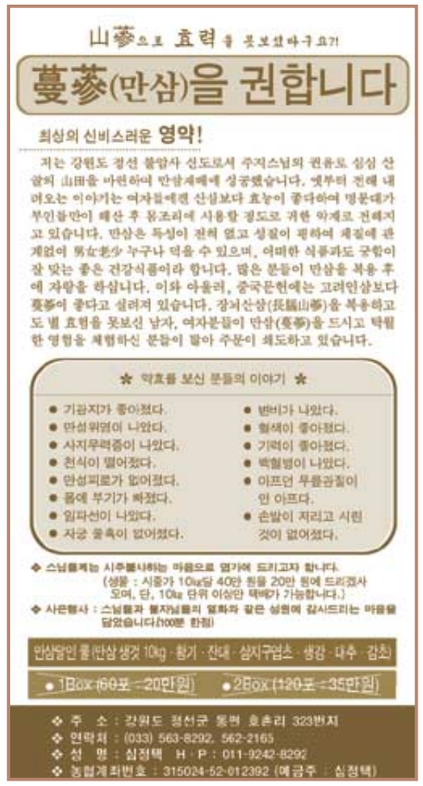
바람처럼 전국 떠도는 시인
젊은 화가들과 10년째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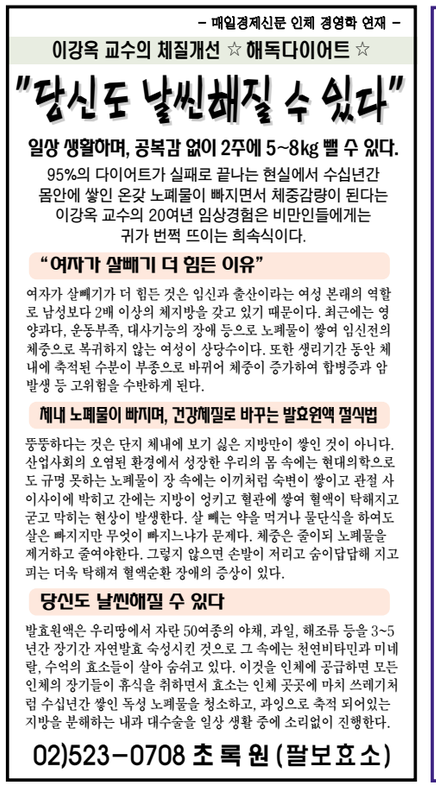
저녁에
왜 그처럼 늦게 연락을 주었는지 어제는 감꽃이 지기 시작하더니 초가을 바람 바람이 벌써 한 차례 비를 몰고 가는구나.
저녁엔 스산해서 한 잔 소주로 목을 달랬다.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놓아두고 그렇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이 저녁을 꾸려가야 하는 것인가.
연락은 한 차례 내리는 비처럼 왔다 갔다.
감이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적음 스님은 해마다 한 겨울이면 경기도 가평의 북한강 굽이치며 흘러가는 대성리로 갔다. 거기서 닷새 내지 일주일 정도 머물며 젊은 화가들과 함께 '오늘의 그림'에 대해 얘기하며 찬바람 부는 강가를 거닐었다. 한꺼번에 백 여 명 정도가 모이는 거기서 그는 꼬박 십 년을 그렇게 보냈다. 십 년을 한해도 거르지 않고 겨울 대성리를 찾았고, 젊은 영혼들을 만났다. 젊은 영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젊은 영혼들을 위해 노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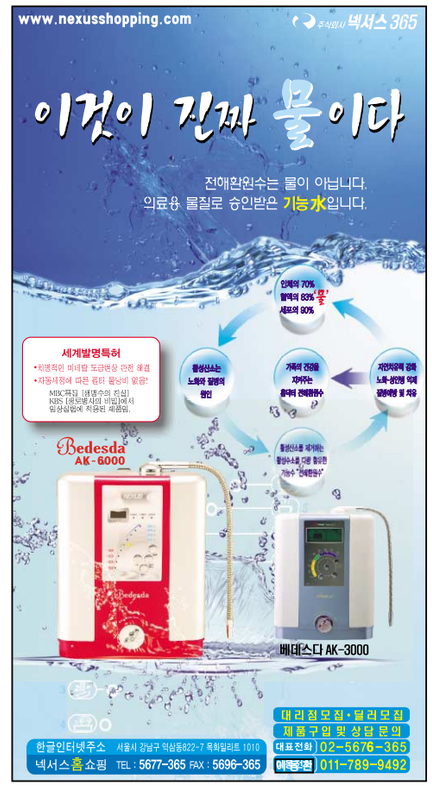
그의 시 '겨울 대성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지인들이 '겨울 대성리 전'을 기획하고 그를 찾아와 동참할 것을 요청했을 때 그는 몹시 망설였다고 했다. 그러나 끝내 그는 흔쾌히 동참했고, 수 백명 관중이 모인 강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시 '겨울 대성리'를 읊고 한 시간여 강연하면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계속)

지현 스님은 1971년 범어사로 출가, 현재 봉화 청량사 주지로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으로 종단의 이모저모를 살피고 있으며, '좋은 벗 풍경소리' 총재와 '함께 하는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전시·공연

어린이 국악인형극 '삼년고개'

경기도 국악당 12월 21~25일


노부부와 양반의 이야기를 통해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하는 국악인형극 '삼년고개'.

이번 연말에는 자녀와 함께 경기도국악당이 마련한 어린이국악인형극 첫 번째 시리즈 '삼년고개'를 만나자.

한국적 동심의 세계로 인도할 국악인형극 '삼년고개'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로 인본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유명한 작품이다. 한 번 넘어지면 3년 밖에 살지 못하는 고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노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욕심으로 망하는 양반의 이야기는 해학적이면서도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아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안겨준다.

삼년고개의 출연진(?)들은 드라마 '허준' '대장금'의 의상을 담당했던 한국복식 전문가 박현주 씨가 제작했고, 음악은 작곡가 김영동 씨가 담당했다. 공연은 12월 21~25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경기도국악당에서 열린다. 관람료 1만원. 2005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수요상설 국악인형극'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031)289-6422~30 강지연 기자

호림박물관 구입문화재 특별展

청자·백자·목공예 등 90점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목제 나전화조문경대.

(재)성보문화재단 소속 호림박물관(관장 오윤선)이 구입문화재 특별전 그 여섯 번째 전시회를 12월 14~2005년 2월 말 개최한다. 호림박물관이 2000년부터 박물관 자체 구입 문화재 중 예술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만을 엄선해 선보이는 구입문화재 특별전은 호림박물관의 유물구입 방향을 알려주는 시선 끄는 전시회.

이번 여섯 번째 전시는 청자·백자 등의 도자기와 목공예품 등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출품되는 문화재는 90여 점으로 관람시간은 오전 10~오후 5시. 전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학예연구원이 문화재를 설명하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다. (02)858-3874

조형과 만난 심상언어

대구 우봉미술관 원공 스님 심상展


원공 스님 심상전에 출품된 작품.

경주 유학사 주지 원공 스님이 12월 18일까지 대구 우봉미술전시관에서 '원공 스님 심상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겨울 농촌 풍경을 그린 풍경화를 비롯해 달마도, 전각, 문살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원공 스님은 "불교와 일상생활에서 오는 심상언어를 조형감각으로 접목해 나만의 세계에서 나만의 모양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갓바위 소원성취 메달

팔공산에 있는 '관봉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 일명 '갓바위 부처님'이 메달에 새겨져 불자들에게 다가간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나온 갓바위 소원성취 메달은 은제품으로 이 한국조폐공사에서 나왔다. 메달, 플라스틱 캡슐, 고급케이스 구성, 가격은 4만9500원. (02)732-152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 부산 FM 89.9 MHZ / 광주 FM 89.7 MHZ / 대구 FM 94.5 MHZ / 청주 FM 96.7 MHZ / 춘천 FM 100.1 MHZ

13일 12:20 뮤직펀치
14일 09:05 차 한잔의 선율
15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16일 10:05 BBS 신행상담실
17일 09:05 거룩한 만남
18일 20:05 다시 듣고 싶은 노래
19일 22:05 성전 스님의 행복한 미소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3일 07:05 명상음악산책
14일 17:30 특선 다큐멘터리
15일 12:00 경우 큰스님의 아미타경 특강
16일 12:00 산중대담 선지식을 찾아서
17일 20:30 영어법문 디스커버링 부디즘
18일 16:40 부처님경전이야기
19일 19:40 역사드라마 '제왕의 길'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정목 스님의 마음으로 듣는 음악 (12월 15일 저녁 10:05~10:55) 마음의 노래, 즐거운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정목 스님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상 시 감상을 통해 삶의 힘겨움을 잠시 놓을 수 있다.

■**불교텔레비전**: 왜 지금 붓다와 노자인가 (12월 16일 아침 8:20~9:10) 정신문화연구원 김형효 교수의 도덕경 총 81장의 핵심 다이제스트 강의. 도덕경을 통해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다.

톨스토이 서울 오다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서울에서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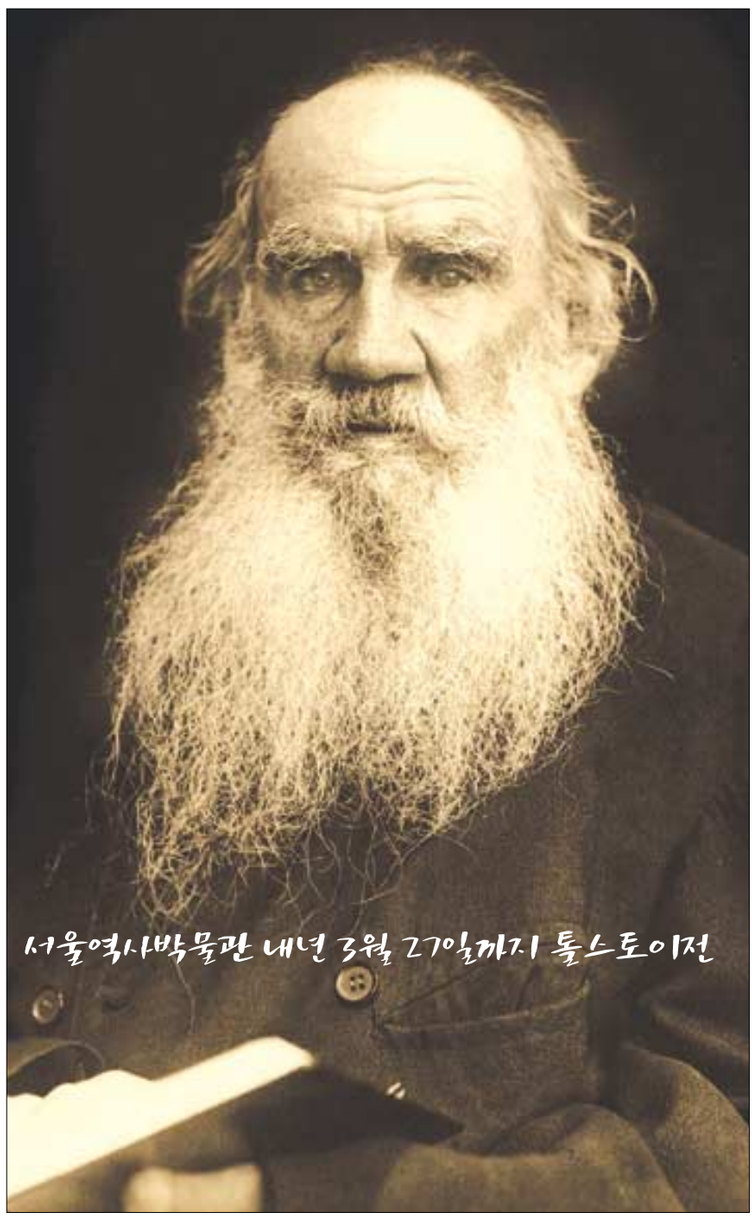
한·러 수교 120주년, 한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는 톨스토이 기획전 '톨스토이展-살아있는 톨스토이를 만난다'가 12월 10일부터 2005년 3월 27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기획전에서 불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전시물은 단연 <카르마>. 이 책은 종교적 방황을 겪던 톨스토이가 불교 사상에 심취해 저술한 불교의 업(業)에 대한 논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장사상을 다룬 러시아어 번역서들도 '사상가 톨스토이'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톨스토이의 대표작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등의 친필 원고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러시아어 초판본 작품들과 단행본, 삽화 등도 관람객들을 만난다.

친필 원고 외에 일리야 레핀의 회화, 에디슨이 선물한 축음기, 육성 테이프 등 국보급 유물 600여 점이 공개돼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중심으로 그가 향유했던 19세기 러시아의 문학 예술 교육을 밀도깊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시품은 모스크바 국립톨스토이박물관, 야스나야 폴랴나 톨스토이 박물관 등의 소장품들.

전시회는 △인간 톨스토이 △작가 톨스토이 △톨스토이와 친구들 △교육자 톨스토이 △사상가 톨스토이 등으로 나누어 명문 귀족으로 태어나 실천을 통해 구도자적인 삶을 살았던 톨스토이의 생애와 작품, 불교 등 동양사상에 심취했던 그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V.G. 체르트코프가 찍은 톨스토이 사진, 1910년 작이다.

'전쟁과 평화' 등 대표작 친필원고 최초 전시

에디슨이 선물한 축음기 등 유물 600여점 공개

본 전시와 더불어 러시아의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방학을 맞은 학생과 가족을 위한 연극 '바보 이반'은 2005년 1월 4~9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서 무료로 공연하며 로빈아트홀에서는 1월 14~2월 27일까지 공연한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사랑과 희망, 희생과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담은 트리를 만드는 '사랑의 트리만들기 페스티벌'은 서울역사박물관 광장에서 12월 10~24일까지 진행된다. 톨스토이의 책을 필사하여 공동 기록서로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책 만들기' 퍼포먼스는 12월 10~2005년 3월 28일 박물관 로비에서 개최된다(02-744-1447).

현지 톨스토이 학교 교사를 직접 초빙해 러시아 톨스토이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국내에 소개하고 국내 교사와 학생들을 재교육시키는 '톨스토이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용(1월 18~28일)과 학생용(2월 15~25일)으로 나누어 운영된다(02-323-4505).

톨스토이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무료 상영하는 러시아 영화제는 12월 중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열린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안나 카레니나> 친필원고 No.18, 1873~1874년.


레핀 作, 피아노치는 톨스토이와 딸 알렉산드라, 1907년.


야스나야 폴랴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톨스토이(왼쪽)와 고리끼, 1900년.

극장가


인크레더블 / 애니메이션 / 115분
개봉예정일: 12월 15일
감독: 브래드 버드
출연: 엘리자베스 페나, 스펜서 폭스 등
등급: 연소자 관람가
은퇴한지 벌써 15년 된 세계 최강의 슈퍼 히어로 '미스터 인크레더블'. 이젠 '몸꽝'이 되어버려 허리띠조차 튕겨버리는 그에게 정체불명의 특명이 떨어진다. 그러나 특명을 내린 사람조차 알 수 없는 1급 비밀작전. 과연 평범한 시민 '미스터 인크레더블'은 다시 빛나는 영웅으로 복귀할 수 있을 지….


역도산 / 드라마 / 137분
개봉예정일: 12월 15일
감독: 송해성
출연: 설경구, 나카타니미키등
등급: 12세 이상
술과 싸움으로 나날을 보내던 역도산은 운명처럼 '레슬링'을 만나 미련 없이 태평양을 건넌다. 2년 후 프로레슬러가 되어 돌아온 역도산은 역사적인 첫 경기가 열리던 날, 미국 레슬러를 때려 눕히며 패전으로 상실감에 빠져 있던 일본인의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역도산의 삶은 점차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블레이드3 / 액션 / 100분
개봉예정일: 12월 15일
감독: 데이빗 S. 고이어
출연: 웨슬리 스나입스, 도미닉 퍼셀 등
등급: 15세 이상
전설 속 뱀파이어의 제왕을 깨워 전세계를 장악하려는 가공할 음모. '블레이드'는 지금까지의 뱀파이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지닌 괴물을 상대로 마지막 혈전을 펼친다. 과연 '블레이드'와 '아비게일', 헌터 '킹'은 세계가 뱀파이어로 뒤덮이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게시판

공부합시다

위빠사나 법회 서울 불광사는 호두마을 김열권 지도법사 초청 '위빠사나' 법회를 16일 오전 10시30분 불광사 보광당에서 개최한다. (02)420-3200

불교호스피스 교육 불교호스피스요양시설 정토마을이 제 20기 불교호스피스 전문교육을 2005년 1월 9~16일 청원 정토마을에서 실시한다. 선착순 30명 모집. (043)298-2258

반나라마 집중 명상 반나라마(다보선원)가 12월 29~1월 2일 일반일을 위한 겨울 집중 위빠사나 명상을 개최한다. 이번 명상은 교사(1월 3~7일), 대학생(1월 12~16일), 청소년(1월 26~30일), 일반인(2월 4~7일) 등 총 5차에 걸쳐 계층별로 진행된다. www.pannarama.net, (051)331-2841

자비복지 특강 서울 옥수종합복지관 관장 상덕 스님은 '불교 자비복지 활동을 통한 불국정토의 실현'을 주제로 12월 19일 오전 11시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법문한다.

봉축 장엄등 강습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12월 18~20일 봉축행사 참가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봉축 장엄등 제작강습회'를 개최한다. (02)2011-1747

겨울 문화 프로그램 김포시 문화의 집이 테라코타 체험 및 미술공작체험, 신비한 과학 이야기, 문화유산답사 등 겨울철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2005년 1월 한 달간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과목당 1만~2만5천원이다. (031)980-5183

박물관 교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12월 21일까지 '박물관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2005년 1월 4~29일 진행되는 '박물관 교실'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연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체험 학습하는 기회. 8개 과목 80개 강좌당 수강료는 1만원. namu.sdm.go.kr, (02)330-1731

함께 해요

장수 어르신 잔치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관내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초청 '장수 어르신 잔치'를 12월 16일 오전 10시30분 복지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02)385-1351

해맞이 대축제 2005경주문무대왕릉 해맞이 대축제가 12월 31일 오후 4시부터 1월 1일 오전 7시까지 경주시 문무대왕 수중릉 앞 해변에서 펼쳐진다. 축제에서는 국태민안 기원 독경, 바라춤, 뮤지컬 갈라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054)779-6082

불교사상강연대법회 춘강정사(주지 수상)가 보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초청 제 3회 불교사상강연대법회(사진)를 12월 18일 오후 2시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064)702-7851

즐겁게 떠나요

문화 환경교실 서울 법련사가 제 2회 문화 환경교실 '작은 천사들의 겨울비행'을 떠난다. 12월 19일 오전 8시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로 떠나는 이번 기행은 멸종 위기에 있는 두루미와 재두루미,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다. 참가비 3만원. (02)733-5367

사찰환경답사 경기불교문화원은 12월 사찰환경답사로 예천 용문사, 김용사, 대승사 순례를 12월 19일 오전 7시30분 떠난다. (031)251-1083

20면 상식 퍼즐 정답

세	계	사		숙		
계		견	강	부	회	
일			보		충	
화	보				약	국
	리		답			제
	수	수	방	관		선
		원		상	수	원

신행수기

보현행원으로 불국이루리 〈하〉

이경숙 (성남시 수정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주는 것이 가슴아팠다. 그래서일까. 바뀌어버린 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염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내가 사춘기때 시련을 많이 겪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했든가. 2년 동안 혹독한 어려움을 겪은 막내는 차츰 제자리를 찾아 자기 갈 길을 가며 성숙해가고 있다. 밝은 웃음도 찾았고 특유의 익살도 부린다. 다시 부처님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여러 사찰을 찾아다니던 중에 불광법회를 찾게 됐다. 보수적이지 않으면서 매주 법회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절을 찾던 나로서는 너무도 다행스러웠다.

오랜 가뭄 끝에 단 비를 만난 것처럼 할 일이 많이 생겼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잘 알고 지내던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법회·봉사에 동참 감사와 기쁨 느껴

"언니, 나는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형편이 안돼서 그렇지."

그 후로 법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 가능한 절에서의 봉사도 빠지지 않고 동참했다. 불교방송이나 다른 절에서의 법회도 참석하며 신심을 키워갔다. 물론 사(寺)중에서의 교육도 빠지지 않고 동참했다. 이 과정 중에 어려웠던 부처님 말씀에도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렸다. 아마 부처님 공부하는 일에 더욱 더 매달리게 된 것은 현실을 잠시라도 잊고 싶은 마음에서 더 열심이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노력한 성과가 있다는 말을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다. 학교 다닐 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성과가 성적표로 나타나고 사회에서도 내가 성의를 보이면 보일수록 결과가 나타나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인정받았으며 또 뿌듯한 자부심을 안고 살 수 있었다. 결혼해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정성을 쏟으니 쏟은 만큼 키도 쑥쑥 자라주었고 남편은 어깨에 힘을 주고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도 내 뜻에 빗나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성을 보이고 불교 공부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어려웠고 고약해진 마음을 다스리기도 힘이 들었다. 그 때에는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차츰 불안정했던 마음도 가라앉으며 공부가 더욱 순일하게 됐다. 향을 사르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고 나로부터 빚어지는 일이었다. 그동안 살아온 내 모습을 조명해 봤다.



그림 · 문병성

공부 ·기도하며 점점 교만심 사라져…

어쩌면 그리도 허물이 많았던고. 어쩌면 그리도 교만하고 잘난 척을 많이 했을까. 부모님이나 남편, 동기간, 이웃들, 친구들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했고 섭섭하게 한 일도 많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그친 일은 또 얼마나 많았던고. 그 때마다 그들은 그 같은 시달림에 괴로웠을 텐데 그에 대한 아무런 배려없이 몰아붙이기만 한 것을 반성하게 됐다.

108배를 하고 1080배를 할 때에는 땀도 많이 났지만 눈물도 많이 흘렸다. 처음에는 내 처지가 서러워 눈물을 흘렸고, 이후에는 부끄러운 마음에 또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지나자 차차 감사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흘러 내렸다.

불교는 참회의 종교라고 누군가 얘기해 줬다. 우리는 많은 생애동안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로 윤회의 사슬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수많은 겁 동안 각기 다른 몸을 받으시면서 수행하고 자기 몸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기꺼이 보시했다. 부처님은 원력보살로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드디어 깨달음을 이루었다. 우리도 누구나 수행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입문 교육, 불교대학 과정을 밟아가며 내 자신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나 시비도 참아낼 수 있게 됐다.

사촌 형님 한 분은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서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다. 정말 그럴까를 생각하며 그 말씀이 헛되지 않게 되며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크고 작은 가피가 전해졌다. 꿈에서도 있었고 현실에서도 나타났다. 그럴 때마다 환희심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 나눠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년 전 광덕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많은 법우님들이 슬퍼했고 또 아쉬워했다. 많은 대중을 교화하셨고 일깨워줬던 스님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비통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더 큰 빛으로 이땅에 오시기를 기원하면서 수행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정진하는 법우들의 모습을 보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보시 중의 가장 큰 보시는 법보시라 했다.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을 만난다. 차에서 경전을 읽거나 책을 읽을 때 옆사람이 질문해 온다. 그 때 타종교인을 만날 수도 있고 초심자를 만날 수도 있다. 그 때마다 부처님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면 불자로서 떳떳할 것이며 그들에게 바른 법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계사에서 장궤 합장을 하고 연비를 하고 포교사 품수를 받던 날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다. 물론 그 과정이 아니라도 수많은 분이 전법하고 또 포교한다. 또한 소외된 이웃이나 어려운 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선택을 해야되나 말아야 하나의 문제로 많이 망설였다. 그러나 시험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과정을 복습하니 교리가 명확히 기억되고 믿음도 확고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품수를 받고 나서 연수과정을 거치며 포교사의 활약이 더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아직도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다. 부처님을 찾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대중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다.

육바라밀 실천하자 날마다 새롭게 다짐

누군가 이런 말씀을 했다. 초기에 부처님 제자들은 '사성제'로써 전법했다고. 우리는 그 외 여러 경전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 실제로는 전법에 게을리하고 있다고 한다. 아는 것만큼 전하고 역량만큼 가르쳐줄 수 있다. 누구나 전법자요, 누구나 불제자다. 아프고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외롭고 비통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잘못 살고 있는 데도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 등등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살기 좋아질 것이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이 국토가 청정해지고 불국토에도 가깝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선재동자가 찾은 선지식은 도처에 있다. 처처시불이라 하지 않든가. 우리의 스승 아닌 것이 없다. 사방에 문수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수두룩하다.

아니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부디 교만하지 않고 하심하며 보현행원 이루기를 원으로 삼고 방일하지 말아야 겠다. 보현행원으로 불국이루리. 마하반야바라밀. (끝)

릴레이 수행일기 (上)



김상규
경원전문대 E-비즈니스학과 교수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난 필자는 가끔 소풍을 절로 가곤 했다. 절이 가까이 다가오면 은은히 들려오는 종소리, 목탁소리, 그리고 염불소리에 귀 기울였고, 그 소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게 했다.

일상생활의 잡다한 일에 시달리다 보면, 잡념으로 산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절을 찾았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다. 절에 가서는 스님의 목탁소리에 맞춰 절을 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냥 염불을 따라하면서 모르고 지나온 지 수십 년이다.

처음 절을 했을 때는 다리가 아프기도 했다. 하지만 불 · 법 · 승 삼보를 비롯한 일체중생을 한없이 높이고 나를 한없이 낮추는 무아(無我)의 실천 수행이 바로 절이라는 것을 알고는 일념으로 절과 염불을 했다.

요즈음은 매월 한번씩 1000배를 할 정도로 절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고, 동시에 일념으로 염불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번뇌가 사라지기도 한다.

일념 염불 · 천배정진 '무아' 배워 사홍서원으로 교육자의 자세 점검

그러면서 자기 변화의 과정을 경험했다. 몸이 먼저 하심을 해야 마음도 따라 하심을 하게 된다는 것. 또 일념으로 고성염불을 함으로써 산만한 정신을 집중시키는데 도움을 받는 것 등 절과 염불은 나의 필수적인 수행법이 됐다. 뿐만 아니라 절과 염불은 초심 수행자인 나의 마음자리를 늘 점검하는 지침이 됐다.

사실 요즈음 젊은이들은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하면서 절을 하는 것이 싫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아파 오는 허리를 참기도 하고 아픈 다리는 풀리면서 다시 모이고 하는 반복적인 운동으로 차츰차츰 마음공부가 깊어졌다.

점점 절도 빨라지고 땀도 물 흐르듯 등줄기를 삭혀줄 때면, 흘러내린 땀방울 뒤에 마음은 한없이 시원해졌다. 일 배 일 배 굽히는 육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았고, 염불하는 내가 부처를 닮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요즈음도 나는 휴일이면 절을 찾는다. 스님 법문도 듣고 신심을 내어 부처님께 의지하며 살고 있다.

절과 염불 수행을 하기 전에는 부처님께서 복을 주는 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불교의 전부인 줄 알았던 나로서는 괄목할만한 자기 변화다.

때문에 지금도 염불 따라하기, 108배 하기, 1000배 하기 등 기도를 하고 있다. 처음엔 불자로서의 초발심을 내기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불자로 변해있는 내 모습에 뿌듯하다. 어떨 때는 변하는 내 모습에 놀라기까지 한다.

그리고 늘 사시 예불을 올리고 있다. 법당에서 들려오는 사홍서원은 내 가슴을 울린다. 그 중에서도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는 여전히 가슴을 뜨겁게 한다. '내가 과연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되물어 보게 한다.

또 '그간 시대의 요구와 현실적 교육 방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지은 업은 없는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얼마나 자만하며 살아왔는지' 자기 점검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지난 삶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루라도 마음수행을 게을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의 교육적 가치가 나의 가치관과 삶에 영향이 미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학교 교육발전과 청소년 인성계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계속)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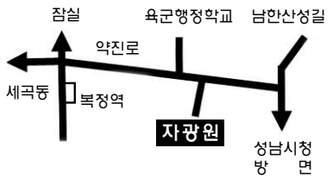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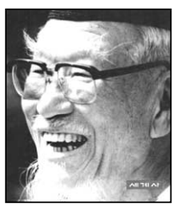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참선은 인생관을 바로 깨닫게 하는 최상승 법이요 철학적인 법이요 과학적인 법이다. 현대인들이 물질 문명에 현혹이 되어 날뛰고 있지마는 물질 문명으로서는 거룩한 인생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 몸 한번 받는 인연은 허공에서 겨자씨가 떨어져서 바늘 끝에 꽂히기 보다 어려운 인연인데 人生이 자기 인생을 느끼지 못하면 어찌 自信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21세기의 宇宙의 主人公은 인생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宇宙의 조물주는 인생이라야 됩니다. 地球村의 주인공인 인생을 창조하는 大道는 오직 參禪입니다. 대중은 어리석은 迷惑에서 벗어나서 生死에 자유인이 되기를 발원하여 大發心하여 금번 보림사 보림선원 칠일 용맹정진에 동참하여 칠일정진으로 見性悟道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용맹정진 기간중에는 백봉 김기추거사님의 최상승 선법문을 교재로 하고 법납 60년 수행하고 제방 선지식과 탁마를 하신 보림사 묵산스님께서 직접 지도하십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4년 12월 30일(목) 오후 8시부터
2005년 1월 5일(수)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번지)02)914-6187
■ 회 비 : 일반 8만원
■ 연락처 및 문의처 : 017)332-4096 / 02)914-6187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143,162,1012,1013번 정릉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장아파트 앞 하차 (돈암역에서 약 20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묵 산 합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54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등
· 작 법 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4년 12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 2004년 12월 30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제품 다양화 속 인프라 확산



▷'그린 마케팅' 활기…관광상품화로 지자체 경기 활성화

녹차 바람이 가장 거세게 일어난 곳은 단연 식음료 시장. 기업들은 앞다퉈 녹차 음료를 출시했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에도 녹차를 이용한 '그린 마케팅'이 활개를 띄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속옷 등의 공산품에도 녹차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녹차라떼' '녹차케익' 등을 판매하는 녹차 전문점도 속속 생겨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차를 이용한 관광 상품 개발에 앞장섰다. 차를 단순한 먹을거리로서만이 아니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동 야생차축제와 보성다향제, 문경찻사발축전 등은 이미 차인들의 '필수 관광축제'로 자리 잡았고, 전북 익산시와 무안군은 각각 임해사 터 야생차밭 복원과 초의선사 탄생지 성역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차제들의 이 같은 사업은 일반인들에게 차문화를 널리 알리고 우리 차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개방에 따른 국산 차 위기 속 자구책 마련 분주

국내의 '녹차 붐'과는 달리 차계 전반에는 '중국차 열풍'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셌다. 전문가들은 WTO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나라 차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했고, 그것은 일정부분 현실로 드러났다. 차 시장 개방에 발맞춰 자사호 작가 초청 전시회와 동남아 차문화를 소개하는 다례시연 등이 마련됐고, 수입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도 늘어났다. '진짜다 가짜다' 하는 진위논란이 식을 줄 모르는 보이차의 인기는 올해도 여전했다.

국내 차 생산자들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녹차의 고급화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전남 보성시는 올해 중국 선양시에 보성 녹차 직판장을 개설해 우리 차를 세계화하는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해결 과제는



웰빙 트렌드에 따른 녹차의 인기는 '시대적 요구'라 할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녹차가 하나의 '건강식품'이나 '상품'으로만 다루어지면서 차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정신문화가 소외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녹차가 단지 유행에 편승한 하나의 '인기 상품'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차문화협회 김해만 사무처장은 "최근 녹차 붐으로 인해 급증한 '초보 차인'들을 진정한 차의 세계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차 단체들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한다.

인기 편중에 우려…차에 대한 안목 길러야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중국차와 다구들이 유행처럼 팔려나가는 것도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정인오 교수는 "수입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차인들 스스로 차에 대한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계에서는 기독교와 천주교 차인회의 괄목할만한 성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들 차인회는 올 한해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고 헌다례를 응용한 다례의식을 정립하며 차문화 확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포교의 방편으로서 차문화를 연구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수령 기자

2004 차문화 결산

차가 '마시기 까다로운 고급 음료'라는 이미지를 벗고 대중 곁으로 다가왔다. '웰빙(well-being)' 열풍은 차문화계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음료와 과자, 화장품, 속옷 등 차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여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고, 대학 내에 관련 학과 개설과 차문화의 학문적 정립 시도가 이어졌다.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 '한국차학회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등 굵직한 행사가 잇달았던 차 문화계를 점검해 본다.

▷품평회 통한 정보 공유…경쟁력 강화 노력



수입 차에 대한 높은 관심은 우리 전통 차문화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일부 차인들은 우리 차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차에 관한 정보 공유와 차 품평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런 뜻으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품평 행사로, 300여 종에 달하는 차 제품이 출품되고 1천5백여 명의 차인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차 품평대회'는 차문화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는 '품다(品茶)'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국차인연합회와 한서대 정인오 짱유화 교수는 지난 10월 서울 인사동에 '한국국제차엽연구소'를 열고 '차 품평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내 차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적 출간 증가 · 학술 세미나 풍성



차 문화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었다. 원광디지털대학과 목포대등에 차학과가 신설됐다.

차 관련 서적 출간이 증가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한승원 씨의 <초의>는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고 정찬주 씨의 <다불>, 김영무 씨의 <초의선사 장의순> 등도 선보였다. 또 故 천병식 교수의 <역사 속의 우리 다인>과 김대성 씨의 <초의선사의 동다송>, 정동주 씨의 <한국인과 차>, 등도 눈에 띈다. 도서출판 이른아침은 '다유락 선고다인 총서' 시리즈로 절판된 근현대 다서의 복간(復刊)을 시작했다.

학술대회의 성과도 풍성하다. 한국차학회(회장 신미경)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제심포지엄을,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는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그동안 구전(口傳)으로만 존재했던 '구증구포'에 관한 문헌을 공개해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차 단신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3기 신입생 모집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는 우리 전통 차문화를 이어갈 3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신입생은 기초과정 2년, 연구과정 3년의 총 5년 동안 차 고전 강독 및 제다실습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전통문화와 차문화에 관심이 있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35세 이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한문과 논술 등의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원서는 1월 15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한다. (02)504-6162

■ 반야로차도문화원, '효당 탄신 100주년 기념 차담회'

근현대 우리 차문화의 맥을 이은 효당 최범술 스님(1904~1979)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반야로차도문화원(원장 채원화)은 12월 19일 동국대학교 예술극장에서 '효당 탄신 100주년 기념 추모 차담회'를 개최한다. 채원장은 "효당 스님은 국내 최초로 차모임을 결성하고 <한국의 차도> 등의 다서를 펴낸 우리나라 근대 차문화의 중흥조"라며 "이번 행사를 스님의 다도 사상과 반야로차의 맥을 되짚어 보고 이를 올곧게 이어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차담회는 추도식과 반야로차도 행다 시연, 무차대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02)764-8997

■ 5색의 찻그릇 전

우리 차문화와 다도구 발전을 위해 창립된 단국대학교 도예연구소 찻그릇연구회는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인사동 동양다예에서 '5色의 찻그릇 전'을 개최한다. 도예가 김갑순, 장영필, 정영, 정호진 씨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02)709-2269



남북국시대 ②

'茶' 기호식품으로 자리매김한 시기

8세기 후반, 신라가 바야흐로 불교문화를 꽃피운 시기로 접어든다. 김대성은 불국사를 창건하여 불국토(佛國土)에 대한 염원을 창출했다. 화랑들은 명산승지를 다니면서 음다풍류(飮茶風流)의 선적(仙跡)을 남겨 지금까지 전한다. 월명사나 진감국사 같은 다승(茶僧)들이 있었고, 다연원(茶淵院)이란 다소(茶所)까지 있었다. 중국은 안사의 난을 치르고 육우가 <다경>을 완성했다. 사상 최초로 다세가 부과된다. 공다원이 생기고 다마무역(茶馬貿易)이 성행했다. '칠완다시'가 쓰여졌고, 황실에까지 명전(차 겨루기)이 행해질 정도였다.

따라서 이 때는 차가 기호음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획을 긋는 시기였으며, 국가는 차에 대한 막대한 이득을 관장하기 시작한다.

① 석굴암 벽면의 문수보살은 오른손에 손 지름 크기의 찻잔을 들고 선정(禪定)에 들어 있다.

② 경덕왕 때 일괴(日怪)가 나타났다. 월명사가 '도솔가'를 지어 부르니 조금 후 평상으로 돌아왔다. 임금이 차 도구 한 벌과 수정염주를 내렸다.

③ 경주 창림사지에서 '다연원' 명(銘)이 있는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명이 있는 기와를 쓸 정도의 건물이면 그 위상을 알 수 있고 다원으로 추정한다.

④ 비에 한명(漢茗)을 끓여 마신 기록과 '다약(茶藥)'이라는 말이 나온다.

⑤ 옛 사람이 차를 끓여 마셨다는 돌부뚝막과 샘에 관한 이야기다. 안축, 김극기, 서거정, 이제현, 이곡 등이 쓴 기록에 명확하게 남아있다.

⑥ 육우가 안진경을 만나 다경을 집필하는데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⑦ 천자(天子)에게 차를 바치던 기구.

⑧ 고대 중국 서북지역의 유목민들이 그들의 말과 중국의 차를 바꾸어 교역하여 성시를 이루었다.

⑨ 안진경이 육우를 위해 지은 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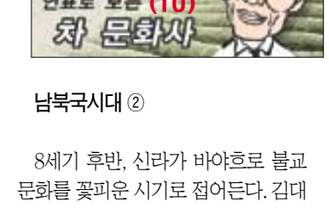
⑩ <다경> 육우가 차의 가장 근간을 기록한 책이다. 이로 인해 약용으로 쓰이던 차가 기호음료로 바뀌고 높은 정신세계에 오르게 된다.

⑪ 노동은 당대의 시인이며 차인으로 소실산(少室山)에 은거하며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가 쓴 '주필사맹간의기신다(走筆謝孟諫議寄新茶, 세칭 칠완다기)'가 유명하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한국	중국	일본
남북국시대	751 불국사 창건(김대성) ① 758 승려 30여 명이 일본 무장(武藏)에 이주하여 '신라군'을 설치함 760 월명사 '도솔가' '제망매가' ② 763 단속사(斷俗寺) 창건 766 다연원(茶淵院) ③ 771 성덕대왕 신종주조 774 진감국사 대공탑비(최치원) ④ 778 백좌법회를 열다 @ 묘련사 석지조 ⑤		
당대		755 안사(安史)의 난 @ 현종이 투다(차 겨루기)를 즐기다 @ 전기(錢起) 고황 757 육우, 안진경을 만나고 교연을 사귀다 ⑥ 761 육우, <다경> 초고 집필 시작 765 다술(茶述) : 배문 770 공다원(貢茶院) ⑦ · 다마무역(茶馬貿易) ⑧ · 양선차 진상기록 · 두보의 죽음 774 삼계정(三癸亭) ⑨ 780 <다경> ⑩ 덕종의 양세법(兩稅法) 781 차 진상기록(원고, 遠高) @ 노동(盧仝)의 시 ⑪ 왕부의 다주론(茶酒論) 793 차세(茶稅) 부과 (每十稅一)	
나라시대			@ 전교(傳敎) 스님, 당에서 차씨를 가져와 심다 794 평안(平安) 천도

"토르말린, 수정석, 맥반석 등의 천연광물이 뿜어내는 그 시원하고 후끈후끈한 열기,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
원적외선
불가마
형식승인번호(안전인증번호) : HU07305-2001A
5분 충전! ▶▶ 3시간 연속찜질!
딱 한번만 무료체험해 보십시오!
후끈후끈한 원적외선 열찜질!
몸 속 깊이 침투하는 그 시원함!
정말 놀랍습니다.

추석효도선물 목초수액시트 30매 증정
특별가 13만원
● 불과 5분 충전으로 3시간동안 연속찜질 OK!
● 전원차단으로 무선찜질, 유해전자파 걱정 NO!
●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편리성 YES!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도 그만!
◎ 제품의 특성
• 최신 특수공법에 의한 견고한 제품
• 수많은 실험으로 안전성, 기능성 확보
• 인체공학적 설계로 몸의 어느부위에도 밀착성 우수
• 내부 발열온도 135℃, 표면온도 60~70℃
• 원적외선과 음이온 다량발생 (원적외선 방사율 약 90% 음이온 182/cc)
◎ 주요 용도
• 노약자 보온용 및 무릎, 어깨, 관절 찜질
• 여성의 아랫배, 손발을 따뜻하게
• 학생이나 직장인의 목, 어깨 찜질 또는 베개대용
• 아픈곳이나 다친 곳의 찜질
• 낚시, 등산, 야영, 야외 작업시 보온용
• 춥고 습기찬 곳에서의 보온용
■ 자매품 : 청즙(3g 30포) 45,000원, 크로렐라 (200ml 1600정) 75,000원
www.bb21.com 상담실 : 02)969-8080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당하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관절과 연골에 글루코사민 포르테
관절염 치료제 BDX-1(특허 제0429595호)
BDX-1은 200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총 10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활성평가 연구실에서 30여 차례 이상의 효능 및 독성실험 등 임상 실험을 거쳐 완료된 관절염 치료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입니다.
2004년 4월 국내 특허를 획득(특허 제0429595호 : 생약추출물을 포함하는 관절염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하였습니다.
• 골관절염
• 통증을 감소 및 활동성 향상
• 관절손상 보호
• 항염증 작용
• 혈액과 관절에 쉽게 흡수되어 항염증, 진통작용
• 활동성을 향상
•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결석, 사고등으로 인한 관절계통의 상처 치유


관절과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포르테정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900mg 60정×2
"글루코사민 포르테"를 1개월만 복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2~3개월만 복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제이팜제약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

일체만물을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해야

계를 지키지 못할까 두려운데…

문 불교에 입문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신도 오계를 받고자 하는 불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10계명처럼 오계를 받는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지키지 못해서 나에게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답 사실은 오계라는 것도, 일체 만물을 보더라도 내 생명과 같이 아끼면서 내 생명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명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또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죽였을 때 바로 인도환생을 하면서 바로 그 살은 약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생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저 내 생명만, 그냥 나 먹을 생각만 하고 내 잣대로 항상 남을 재는 사람들은 나는 쑥 빼 버리고 남의 생각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소리죠.

만물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도끼로 나무를 찡 치니깐 피가 주르르 흐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 사람 눈에 그렇게 피가 흐른 겁니다. 나무가 그 사람하고 인연이 지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차원이 높으니까 그때부터 도끼를 팽개치고서 나무 장사를 안 했대요. 나무 장사를 안 해도 먹고 살기가 풍족하게 됐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직감적으로 나무도 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나무가 도와 달라고 이런다면 가다가 말고 돌아다보고선 뿌리가 패어졌으면 흙을 안겨 주고 '잘 있어!' 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을 잘 쓴다면 오계가 생사에 관한 건을 다 쥐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 들어가는 데도 걸림이 없고 태어나는 데도 걸림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무사통과로 들어갔다 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성삼보를 믿고 그렇게 하신다면 항상 내가 한 거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걸 내가 알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거짓이 거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체크한다는 얘기죠.

오계를 그냥 보통 받는 게 아니라 이다음에 죽어서도 그 오계 받은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최초의 근본이고, 뭐든지 탐하지 말라고 한 것이 죄상이 앞뒤로 업이 붙으니까 업이 없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남한테 말을 잘못 전달해서 싸움을 붙이지 말고, 모두 화목하고 그래야 복이 됩니다. 술에 취해서 식구들을 편안치 않게 한다면 모두 불편하고 애로가 많으니까요.

그러니 항상 마음으로 불을 켜야 항상 밝아집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정확한 반면에 공덕이 되는 거죠. 공덕이 된다면 생사윤회도 벗어날 수 있고 어떠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니까요. 정확해요. 하여튼 끝까지 배워서 남을 건지고 나를 건질 수 있는, 나를 사랑하고 또 자비롭게 실천하는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을 자비로이 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컴퓨터의 지적능력이 높아지면…

문 컴퓨터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면 인간 세상이 편해지는 좋은 기능도 있는 반면에 현재로서는 마음을 닦는 수행 능력이 없는 컴퓨터에게 자율에 의한 판단과 학습 능력이 부과되어지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공상 과학 소설 같은 것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대처 방향, 향후 문제에 대한 스님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답 우리 살아나가는 것도 보이지 않는 컴퓨터로 인해 살아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자기의 생각으로 망하든 흥하든 규정지어 나가면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모두 하죠? 자기 원소에서 컴퓨터 누르듯이 눌러 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나좋나 돌아가는 거, 즉 말하자면 거기서 한번 누르고 요거 보고 또 한번 누르고 요거 보고 하는 거처럼 눌림도 받지 않으면서 그걸 스스로 생각을 내서, 생각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냥 나와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하고 사람이 눌러서 나오는 거하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습은 비켜 놓고 얘기합시다.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일체 어떠한 문제를, 큰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물질이 생겨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공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조끔 해쳐지고 저 사람도 조끔 해쳐지는 거는, 해쳐지는 거는 해쳐지되 아무 큰일이 없이 해결이 난다 이런다면,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컴퓨터만 눌러 보고 보이는 것만 봤지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이건 말로는 할 수 없으리만큼 된다는 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스님!' 이러든지 '부처님!' 이러든지 칠성이든지 지장이든지 부르고선 정성스럽게 하면 그것이 동일하게 마음이 전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살려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의 복장을 다 달리 해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 앞에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줘야 되거든요. 아는 사람 앞에는 아무 모습으로 해 가지고 가도 그냥 대응을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배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 알아보고 살아서도 다 알아보지만, 이 도리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도 못 보고 살아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보다도 더 무섭다고 볼 수 있죠.

컴퓨터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 단계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든 거지 사람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게임이니 영화니 이런 거를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좋게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꼭 악행하고 선행하고 이렇게 싸움을 붙여서 하게끔 만드니 만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점점 더 악하게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인식이 그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본다면 별것도 아닌 것 갖다 붙여 놓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걸 죄 잊어버리고서 망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마음공부 하는 사람으로 친다면 정말 언어도단이죠. 그거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가 있는데, 그럼 누구든지 빼 갈 수도 없고 알아 낼 수도 없는데 어째서 그럴까. 지금 이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혜롭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컴퓨터 세상이다. 또 컴퓨터를 사람이 만들어서 필요한 점을 쓰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면을 놓고선 생각해 보시면 다 나와요. 진짜로 양면을 놓고 하는 데는, 배우기 위해서 양면을 놓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양면이 될 수가 없죠. 악이나 선이나 그냥 공식이니까. 그래서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이러고선 그냥 뭉개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했으니까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소리죠.

컴퓨터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악과 선을 반반씩 가고 있는데 그것이 점점 더 불어나면, 아마 칼을 들었으면 사람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악하게 일어나려고 하는 기운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세상 사람들이 다 쓸 줄 알아야 능률이 100%로 올라갈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은 한 발자국을 떼어 놔도 다른 혹성에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 발자국을 떼어 놔도 다른 혹성에 갈 수 있고 하니까 컴퓨터로다 눌러서 한 발자국에 부산을 갖다 놓는다 이렇게 되죠.

근데 보살행으로 그렇게 착한 일들을 한다면 정말 이 나라가 부흥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악한 거를 집어넣어서는 꼭 이기고 죽이고 하게끔 만들어 놓으니 그게 우리 세상살이 살아나가는 데 역행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컴퓨터 하나로서 세상이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애들까지도 지금 그냥 때리고 부수는 것만 배우니 이거 되겠어요? 그러고도 다른 거는 몰라도 어른들이 싸워서 모두 망하고 그러는 걸 하지 않으면 모두 애들이 배우지 않아요. 물론 어른도 그렇고요. 꼭 도둑질하게끔 가르치거든요. 사람 죽이는 것도 가르쳐 주고 도둑질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래요. 안 그런 거 같아요? 보지 않고 듣지 않은 거는 몰라요. 생전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한 거 먹고 싶은 거 보셨어요?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했다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보셨냐구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그렇지만 하고 싶은 것도 그렇게 나와서 보여 주고 들려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 한생각에 여러 가지로 모습을 다르게 형성시켜서 내보내서 일을 하고, 원소 자체 에너지가 그렇게 그냥 있으면서 그게 허공을 돌 수도 있다, 그건 허공을 맞잡이로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 에너지는 돕는 일만이 하는 거죠. 돕지 않고 한다 하면 그냥 비뚜로 나가서 그냥 개굴창에 빠지게 하거든요. 잘못하면 밀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죠. 부처님 법이 바로 사람의 법이에요. 진짜 사람의 법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가 이 육근에 육 팀이 있는데 있는 대로 세포가 다 다르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마음공부를 해 나가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 나가신다면 골치 안 아프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생을 하지 말라 뭐든지 탐하지 말라 항상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야 한다

의미 없는 존재인 것만 같은데…

문 지구라는 별도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의 별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조그마한 생명체일 뿐이구요. 더군다나 이 지구라는 것도 수명이 다하면 언젠가는 우주 안에서 사라지고 그 자취조차도 없어지고 그러는 상태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짧은 한평생을 수행하고 공부해 간다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답 그래요. 의미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영원한 한마음으로 지금 공생을 하고 있고 공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다시 큰 집을 지니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가 아무 때라도 멸한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있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생각을 잘못하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고 한생각을 잘하면 지구가 순탄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반면에, 지구 안에도 혹성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우리 생명이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또 하나 생길는지도 모르죠. 저 북극 쪽으로 말이에요. 그것도 개발할 수 있는 정신력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가깝게 다리를 놓는 셈이나 한가지죠. 지금 목성 토성 같은 데는, 물론 천왕성도 있고 혜왕성도 있고 그렇겠지마는 지금 목성 같은 데도 지구 같은 혹성이 그 안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큰 집 안에 또 집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듯이 우리 조그마한 요 지구덩어리 하나의 별성 자체가 우리 몸뚱이 하나라고 친다면 몸뚱이 속을 좀 보세요. 의미가 없나 있나. 많은 생명들이 자기 소신껏 분야를 맡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혹성이 아닌가요? 이것도 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별 하나 나 하나 하듯이, 별이 그렇게 많이 떠 있듯이 우리도 지금 많은 별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별이 지금 움죽거리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삼각원형을 이루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은하계의 가운데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은하계는 은하계대로 입구에, 즉 말하자면 마음의 밝음에 의해서 모아져서 반사가 된 태양이 중간 지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는 가장자리에 있는 걸로 보이죠. 멀리 떨어졌으니까 바로 보일 수가 없죠. 그것을 우리가 코끼리를 장님이 만져 보고 벽 같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혜안이 밝아서 직접 은하계의 그 모든 별성과 더불어 돌이 아니라면 거기서 그대로 볼 겁니다. 돌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미가 없기는 왜 의미가 없습니까?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주인인데.

만약에 이 몸뚱이 안의 생명들이 다 소멸되면 우리 껍데기는 그냥 송장이 돼 버리는데, 그건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 내 속에 들은 생명들이 잘해 주면 이것이 잘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속의 생명들이 잘못될 때는 이 몸도 송장이 돼 버려요. 썩어 들어가고 또는 침체돼 들어가고 피가 통하지 않고 굳어 들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바로 내 속에 들은 그 자체의 생명들이 한데 합쳐진 그 생명이 바로 나인 것이지 이 껍데기가 나인 것이 아니란 얘깁니다. 지금 지구가 우리의 아주 높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구 속에 들은 우리가 주인이란 얘깁니다. 이 지구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잘 끌고 아주 성하게 잘 갈 수도 있어요. 주인이 잘못하면, 만약에 오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도 모를 때는 다른 혹성이 만약에 지구를 갖다가 부딪칠 때는 거기에 그냥 엄청난 구녕이 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그 모든 것이, 지구뿐만 아니라 전체의 법망이 다 이렇게, 정말 천체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면 보일 듯 말 듯 한 그런 것이 다 세포가,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돼 있듯이, 얽히고설키고 돼 있듯이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뚱이란 말입니다, 이 지구가.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이 속에서 그냥 들끓고 온통 보당을 누르고 온통 저희들이 잘났다고 막 저거 하면 한군데가 그냥 다 무질러져 버리지, 뭐. 그렇게 그냥 발칵 뒤집히면 송장 되는 거죠, 뭐. 고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거는 부정 못해요.

만약에 이 안에서 서로들 자기네들끼리 분야를 맡아 가지고 심장 공장 또 대장 공장 소장 공장, 뭐 이자 공장 콩팥 공장, 이런 공장이 많은데 이 공장에서 파벌이 생겨서 만약에 네가 공장이 더 크다 내가 공장이 더 크다 하고서 파벌이 생긴다면, 한마음으로 돌아가질 않고 파벌이 생긴다면, 우리 마음이 지금 살아나가는 데 그렇게 파벌이 된다면 이 속의 생명들도 그렇게 파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파벌이 생긴다면 그땐 뭐가 되느냐 하면, 망그러지는 거는 이 육신밖에 없어요, 망그러지는 거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구 안에서 세계적으로 볼 때 큰 싸움이 붙었다 하면 이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전체 몸에 그냥 부작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공장에서 잘못 파벌이 생겼다, 그 공장 안에서. 딴 공장하고 붙는 게 아니라



그림 · 최주현

☞30면으로 계속

우물 안에서만 보지 말고 바다로 나갑시다!

☞29면에서 계속

공장 안에서, 그 안에서 생명체들이 인제 부작용이 났다 하면 그 공장이, 그 공장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면, 어디가 나쁘다 그러면 그거 떼어 내야 하고 수술해야 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내 한생각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돼 가지고 끌고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 생명체들이 한데 합쳐진 근원이 바로 내 잠재의식 그 자체의 참이란 얘깁니다, 이 껍데기가 참이 아니라.

그리고 이 몸뚱이를 벗었다고 해서 벗는 것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별성도 늙으면 옷을 벗어요. 저 별들도 옷을 벗고 그 옷을 벗는 반면에 바로 새 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에 별 둘이 나올 수도 있고 셋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별 둘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그건 껍데기가 돼서 떨어질 때 찌끄럭지는 어디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이런 데로 떨어지지, 뭐, 저런 데로 떨어지고, 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것이 생명이 살던 습이, 우리네 왜 산소에 갖다가 사람 묻죠? 그러면 그 혼이 살던 습이 있어 가지고 '내가 절로 간다, 온다' 요런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살았다' 이러기 때문에 집에도 하나 붙어 있고 거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고, 죄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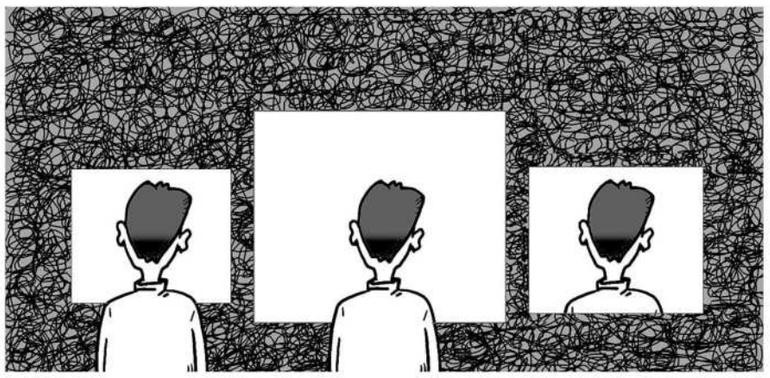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공부를 해서 어디에 써먹을 것인가

문 블질적인 삶에 젖어서 살아가다 보니 수행이나 마음공부가 왜 그리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공부를 해서 어디에다가 써먹을 수나 있는 것인지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답 여러분은 마음공부를 해서 어디 써먹을 것인가, 또는 마음공부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또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병이나 나으면 고만이지, 이런 정도로만 공부를 하신다면 병 자체도 못 고치거니와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 못할 것입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이다 뭐다 하지만 원자에서 입자가 분자로 화(化)해서 수없이 대기권을 지키고 나가는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마음공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물리가 터져서 우주간 법계와 더불어 개미 한 마리도 따로 없이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이 얼마나 기묘하고 보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별성이 얼마나 많은가.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는 참, 나라마다 조절할 수 있고 '몇이냐? 몇 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별성이나 혹성이 얼마나 많은지는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혹성만 하더라도 아홉 개니 열 개니 이렇게 따로 태양을 끼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악도 없고 선도 없다' 이러고선 그냥 뭉개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어디다 쓸 것이냐 하지마는 선의 불종 자체는 악의 불종의 무리를 없애기 위함이요, 또는 악의 불종을 없앰으로써 금성이나 토성 같은 데도 생명의 존재가 살 수 있게, 움죽거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중요시 안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넓히면 크고 좁히면 작고, 고무줄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무줄 같은 마음을 좀더 우리가 계발해서, 정신계로 발전을 해서 계발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러한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악의 종에 선의 종이 딱 거기에 입력이 된다면, 그것이 스스로서 착해지고 그 모습을 아주 밝게, 자력과 광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믿어지지 않아도 앞으로 믿어지게끔 될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증명되려면 한 백 년 거리는 두어야죠.

그러나 그 작업이 뭐가 문제냐 하면 악종, 잠들어 있는 악종을 우리가 바로 선종으로 깨닫게 해줘야만이 그것을, 말하자면 모든 얼은 조건이나 뜨거운 조건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증명도 안되거니와, 그러나 이건 엄청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자동적인 끌간 데 없는 진리 속에서 우리가 회합을 하고 모두의 마음이 같이 동조하고 같이 이룩해야 한다는 문제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첫째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나쁘게 될 일이 없죠.

예전에 제가 접시비행기를 봤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그 후에 생각을 하니까 '아, 저런 비행기를 움죽거리는 사람들은 너무 에너지가 많아서 우리들이 범접을 못하게끔 돼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가 많아지는 반면에 자원이 부족해지고 능력이 손상되고 정신을 뺏기고, 이러는 수가 많습니다. 혼을 뺏기는 수도 많고요.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집 주인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른 세계에 혼을 악으로 뺏길 수도 있죠. 악으로서 존재한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며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태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태양이 끼고 돌 수 있는 그 별성들은, 그 생명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똑같습니다. 수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그러니 여러분의 그 마음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 한마음 주인공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에 병고를 앓고 있는 사람마저도 해롭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해롭고, 어떠한 요건에 대해서든가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죠.

서산 대사는 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렸겠습니까? 괜히 새를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공부시키느라고 학인들을 위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계란도 거꾸로 쌓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데 계란을 쌓고, 보이는 데 떨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생각에 우주를 한꺼번에 보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한쪽만 봐서도 아니 되죠. 우주복을 입고 지금 화성에도 가고, 달에도 가고, 많은 과학자들이 선동을 해서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쓰고 다녔지마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데 50%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 마음들하고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한쪽에만 가 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에도 만약에 저 북극이나 남극에 침투했다고 봅시다. 사람이 살아 있다고, 산다고 생명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지구 안에도 모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북극을 따라서 해안을 쫓아서 섬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문제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서 요가를 한다, 또 나는 명상을 한다, 또 단전을 한다 이러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몸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데 뭐가 끌간 데 없이 남겠습니까? 내가 끌간 데 없는 도리를 체득한 뒤에야 요가는 요가대로, 좌선은 좌선대로, 명상은 명상대로 내가 서려면 서고 앉으려면 앉는 거지 그게 무슨 이름이 주어지고 이름이 박혀 있습니까? 이 몸이라는 건 사대(四大)로 흩어지면 그뿐이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원한 것입니다. 역대 조사들이 사대가 흩어졌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역시도 그렇고요. 우물 안에서만 보지 마시고 바다로 나갑시다. 바다에 얼마나 생명들이 많은가.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도 물 밑에, 태양열이 들어가지 않는 깊은 데 있는 생명들을 건지기 위해서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를 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얼음이 어는 것도 더운 김과 찬 김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바로 도전이다, 그리고 작업이다 이런다면 그 얼음 하나도, 파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차차로 여러분이 이 공부를 소중히 알고 열심히 하신다면 과학자들이 해결 못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서 해결하게, 아마 그 마음이 응해 주실 겁니다. 가고 옴이 없이 말입니다. 하는 사이 없이 하고, 보는 사이 없이 보고, 듣는 사이 없이 듣고, 자유자재권을 한 손에 쥐고 중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퇴마승

영험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짓은 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등등이 마음에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 합니다.

영 가	빙 의 현 상 (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유산,자연)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오랜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안심하시고 찾아오십시요. 빙의현상, 가정우환, 기타 깨끗이 치료됩니다.

해 원 사
초 하 루, 18일 지장재일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어느새 초겨울입니다.
현대가 성장해온 시간들이
벌써 12년
힘차게 도약하는 마음 가짐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성혼을
이룰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무실을 이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辛,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東熙스님
梵唄 作法 特講

● 일정: 1月 3日 ~ 22日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 장소: 동희범음회 연구소 및 慈忍寺
● 위치: 4호선 성신여대역에서
아리랑 고개 방향
도보로 5분 거리
(영화의 거리 테마공원 옆)

문의전화
02)923-8180 / 017-396-1644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컴퓨터는 거실에 시청일지 작성하기

아이들 영상매체 바로보기

학교에서 '졸음대장'이라고 친구들한테 놀림 받는 권대영(경기도 H초등학교 5년 · 가명)어린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해도 공부도 잘했고 교우관계도 좋았다. 하지만 1년 새 대영이는 '메이폴스토리'라는 인터넷 게임에 푹 빠져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학교에선 졸기 일쑤다.

이처럼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영상매체(인터넷, TV)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금강저의 방패막을 쳐줄 수 있을지 유형별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본다.



TV 바로보기

■ 아이들이 하루 종일 TV만 보려고 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TV나 비디오를 시청한 후에는 '미디어일기' 쓰기를 자녀에게 권해보세요. 프로그램 제목과 종류, 시청시간, 보고 난 후의 느낌과 평가, 텔레비전 볼 때의 자세 등을 일기 형식으로 쓰게 하는 것이 '미디어일기'입니다.

자신이 쓴 일기를 통해 어린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TV 시청 습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시청일기를 쓰게 되면 어린이 스스로 좋은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는 안목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 맞벌이 부부라 아이들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할까요?

– 방송 편성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사전에 입수해 퇴근 후 자녀와 함께 시청할 프로그램을 선정해 미리 시청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TV 바르게 보기 지도법은?

– 자녀들의 TV 시청 형태를 관찰해 봅시다. 세심한 관찰을 통해 하루 평균 시청시간, 프로그램 종류별 시청시간 배분 등 아이와 가족간의 시청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몰입시청을 하지 못 하도록 1시간 이상 텔레비전 앞에 앉지 못하게 하세요. 몰입시청은 어린이의 두뇌발달, 시력저하, 척추질환 등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학습기능, 사회화 기능, 정보제공 기능, 문화적 기능 등의 내용을 담은 좋은 프로그램을 녹화해 두거나 교육용 비디오나 교육방송 등을 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때 TV시청을 지도하는 부모는 좋은 프로그램인지 나쁜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가치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목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선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미디어 교육을 받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터넷 중독 진단 테스트해 보세요

( )속에 동그라미 표를 한 후 그 숫자를 헤아려 자녀의 인터넷 중독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동그라미 개수가 (■)0~5개:안심 (■)6~10개:주의 (■)11~15개:심각 (■)16~20개:중독

1) 인터넷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
2) 인터넷 하느라 학교생활이나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 )
3) 인터넷 하는 시간이 친구들과 노는 시간보다 더 즐겁다.( )
4) 바깥에서보다 인터넷에서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난다.( )
5) 인터넷 하느라고 학교 숙제를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
6) 아침에 일어나면 인터넷부터 한다.( )
7) 인터넷 때문에 다른 일을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진다.( )
8) 인터넷으로 남이 모르는 비밀을 주고 받거나 간직하고 있다.( )
9) 하루라도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짜증이 난다.( )
10) 인터넷을 할 때 전화가 오거나 일을 시키면 화가 난다.( )
11) 인터넷을 하느라고 잠잘 시간을 놓칠 때가 많다.( )
12) 밖에 나가서도 인터넷에서 본 글이나 그림이 떠오른다.( )
13) 인터넷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지만 잘 안된다.( )
14) 인터넷을 하다가 밥먹는 것을 잊어버린다.( )
15) 인터넷이 없으면 숙제를 못한다.( )
16) 학교에 가 있어도 메일을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
17) 닉네임을 3개 이상 갖고 있거나 자주 바꾼다.( )
18) 전화를 하는 것보다 메일을 주고 받는 것이 더 재밌다.( )
19) 습관적으로 인터넷에서 필요없는 물건을 산다.( )
20) 컴퓨터를 껐을 때 사이버 공간과 일과 현실을 혼동한 적이 있다.( )

인터넷 올바로 사용하기

■ 인터넷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가 필요하나요?

– 자신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방문한 사이트를 기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일지를 쓰게 하면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는 거실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혼자 컴퓨터를 만지다 보면 호기심이 발동해 유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함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 둡시다.

또 자녀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조건 유해사이트에 접속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이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합니다. 때문에 선정 · 폭력 사이트가 왜 나쁜지를 충분히 설득시켜주고 좋은 사이트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식사시간도 잊은 채 인터넷 게임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 사용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명종에 시간을 맞춰놓고 시간이 되면 울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을 하다보면 '5분만 더'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마음에 약해지지 말고 단호히 컴퓨터를 끌 수 있도록 연습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만큼 잘 지켰을 때 상을 주어 자신감을 심어 주도록 합니다.

노병철 기자

영상매체(인터넷, TV)관련 신고 · 상담 하는곳	
청소년보호위원회	(080-023-0113)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02-325-8559)
정보통신윤리위원회	(02-3415-0114)
한국정보문화진흥원	(02-3660-2500)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02-701-3700)

도움말=김수진 교사(하중초등학교), 백창화 관장(숲 속 작은 도서관), 김병록 원장(숲 속 작은 도서관)

수행일치하면 대화의 문 열려요

우리 가족 이렇게 신행해요 <22>

황석근 거사네

3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 공부에 매진하던 황경욱(28)씨. 마음이 산란하고 집중이 되지 않아 집 앞의 공생선원(주지 무각)을 찾았다. 그저 마음이나 다스릴 요량으로 '참선'을 시도했던 황 씨는 그만 마음공부의 맛에 매료되고 말았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참선을 권유했고, 이후 가족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생선원을 찾게 됐다.

공생선원의 '참선 가족'으로 통하는 황석근 거사 가족은 이미 3년 째 참선을 생활화하고 있다. 딸 경욱 씨의 안내로 아버지 황석근(57)씨, 어머니 홍영수(54)씨 모두가 참선기초반 · 금강경반 · 참선반의 세 단계 강좌를 모두 마쳤고, 아들 도화(13) 군 역시 때때로 선원을 찾아 가부좌를 튼다.

불교가 무엇인지, 수행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이들이 뒤늦게 참선의 참맛을 거론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딸애를 앞세워 쫓아간 가족법회에서 법문을 듣고 참선을 시작했는데, '이거다' 싶은 거예요. 하루 이틀 수행을 지속하다보니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더라구요."

홍 보살은 참선을 시작한 이래 그 어떤 근심걱정으로부터 놓여날 수 있었다고 한다.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 그 같은 집착을 떨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 예로, 경욱 씨는 불교공부가 깊어지자 사법시험을 그만두고 절에서 살다시피하며 수행에만 매진했다고 한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며 화부터 먼저 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딸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이다.

황 거사 역시 수행의 즐거움에 빠져 정진 중이다. 담배인삼공사 재직 시절 불심회 활동으로 불교 공부의 운을 뗀 바 있던 그는 뒤늦게 참선수행에 뛰어들어 아침 · 저녁으로 선원을 찾는다. 늦둥이 아들도 어린이 법회를 이끌며 포교에 열심일 뿐만 아니라, 선원을 놀이터삼아 드나들며 궂은일 처리에도 앞장서는 등 신행활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온 가족이 참선으로 하나되니 '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깨닫지 못했던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과 언어 하나하나를 오롯이 나눌 수 있게 돼, 가족사랑 역시 깊어진 것 같습니다."

참선으로 깊어진 가족애를 자랑하는 황 거사 가족은 안거를 맞아 오늘도 참선에 든다. 다른 시간 다른 모습으로 드는 선정의 순간에서 그들은 변하지 않는 수행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강신재 기자



황석근 거사 가족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근처 선원을 찾아 참선에 든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문화 잡지

격월간 불교와 문화

1992년 3월 창간된 『불교와문화(구 多寶)』는 이 땅의 불교발전과 문서포교를 위해 발간되는 불교계 문화잡지입니다. 『불교와문화』는 우리 전통 문화의 참 가치를 일깨우고 널리 알려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걸맞게 이 땅의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불교정신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 주제를 섹션별(교리, 수행, 문화, 자연과 사람, 정보창고)로 세분화, 집중화합니다.
::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비주얼(visual) 자료를 확대하여 읽는 책과 보는 책을 동시에 지향합니다.
:: 단순미와 여백미를 살린 디자인으로 가독성을 높입니다.

www.buddhistculture.co.kr | 구독 문의 : 전화 02-719-2606, 팩스 02-719-5052
1년 구독료 42,000원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각종누비
- 면누비(먹물)
- 모직누비
- 물실크 누비
- 무명누비
- 손누비 (명주, 무명...)

동 복
- 고급모직
- 무명
- 각종 먹물, 면

장삼, 가사, 조끼 몸빼, 셔츠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전통범음범패(바라작법)과정

수강생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 종무원 부설 범패교육원 에서는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인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을 교육하고자 2005년 신입생을 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총 2년 과정. 대한민국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 강사 : 경허 상진스님 (영산재 보존회 회원)

1학년 과정
- 사 물 : 목탁.요령다루는법
- 송 주 : 도량석.종성등
- 예 경 : 향수해례.사성례.칠정례.오분향례.각단예불
- 권 공 : 사시불공.삼보통청.퇴공.각단불공등
- 재의식 : 49재 및 천도의식.시달림등
- 시 식 : 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구병시식.일반시식등

2학년 과정
- 상주권공 : 할향.등게.합장게.고향게.개게.세수게.복청게.사방찬.참회게.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39위).상단권공.중단권공.관음시식.봉송회향(49재 및 일반천도의식)
- 바라춤 : 요잡(막바라).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 나비춤 : 도량게.다게.운심게.욕건이(옴남).사방유신
- 사 물 : 태징.북.요령.목탁(전통의식타법)
- 특 강 : 향화게착복.가지게.쾌불이운.종사이운.점안의식 등

2. 개강일시 : 2005년 3월중 (1학년 매주 목요일 오후2시-6시까지 2학년 매주 금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편입가능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입학금10만원 (교재비 포함), 월10만원
5. 강의장소 :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1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8. 접수기간 : 2005년 2월 25일까지
9. 연 락 처 : 053-622-3702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부설 범패 교육원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독자 사은 행사

아이-벗(HPrw6100) 최저가 특별 보급



불자 스마트폰 아이벗(i-Bud)은 2005년 1월 중 부터 불교뉴스, 큰스님법문, 사이버법당, 교양대학, 불교정보센터, 문화콘텐츠, 커뮤니티, e-book, 불교문화샵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는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불교정보 매체입니다.

아이벗(i-Bud) 제공조건

불자라면 누구나, 24개월 의무사용, 가입비 3만원 별도

아이벗(i-Bud) 특전

하나, **불교정보 무료이용** (2005년 1월 중 제공, 일부 컨텐츠 유료)
둘, **월 평균 24,291원 24개월 할부**
셋, **통화료 최고 40%까지 약정할인**
넷, **케이스 · 액정보호필름 무료제공**

아이벗(i-Bud) 이란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ha(부처), Buddy(친구)를 뜻합니다.

단한번의 기회!

평생가족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i-Bud를 드립니다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벗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료 일시납, 12개월 의무사용




PHONE
폰기능
강력한 휴대전화기능


CAMERA
카메라
메가픽셀 CCD 카메라



수능인터넷
칠판글씨까지 또렷하게 보이는


MP3 PLAYER
MP3 플레이어
MP3 및 동영상


PDA
PDA기능
520MHZ 프로세서


모블러그
모바일로 가꾸는 블로그


MOBILE
모바일
CDMA & 무선랜


INTERFACE
외부인터페이스
SDIO 슬롯 지원


TV방송
실시간으로 부담없이 즐기는


ACCESSORY
전원, 액세서리
배터리 및 액세서리


화상통화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만나는


온게임넷
휴대폰은 꿈도 못꾸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특전

1 기존영구독자
아이벗 HPrw6100, 24개월 의무사용,
초기수납금 55,000원, 가입비 3만원
케이스 + 액정보호필름 + 256Mb 메모리 카드 제공

2 기존독자 및 신규독자
아이벗 HPrw6100, 1년 완납조건(신규독자), 24개월 의무사용
초기수납금 55,000원, 가입비 3만원
케이스 + 액정보호필름 + 256Mb 메모리 카드 제공

3 일반가입자
아이벗 HPrw6100, 24개월 의무사용
초기수납금 55,000원, 가입비 3만원
케이스 + 액정보호필름 제공

*** 아이벗 + i-navi(네비게이션) 일체형** 을 12월말까지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십만원 상품권 또는
1Gb 메모리 카드 + 액정보호필름(택1)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 (i-Bud) 사업단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02)735-3034, 737-8881
Fax 02)738-3034





출시 모델	1) FA294PA#AB1 : HP iPAQ rw6100 Kor – 백진주색 2) FA342PA#AB1 : HP iPAQ rw6100 Kor – 흑진주색
운영체제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모바일 2003 SE 포켓PC
프로세서	520Mhz 인텔 PXA270
디스플레이	2.8인치 26만 색상지원 터치스크린
RAM	64MB 133Mhz 모바일 SDRAM
ROM	128MB 인텔 스트라타 플래쉬 ROM
무선 통신	MSM5500 CDMA 1X EV-DO iEEE 802.11b WLAN
카메라	동영상 캠코더 지원 110만 화소
배터리	1,400mAh 표준형 리튬폴리머 밧데리 3시간 연속 통화 및 7일간 연속 대기 2,800mAh 대용량 리튬폴리머 밧데리 6시간 연속 통화 및 14일간 연속 대기
기타	SDIO/MMC 확장 슬롯, 24핀 시리얼 인터페이스, 적외선 통신포트, 스테레오 이어폰 및 AV 리모컨, 손목줄, USB 케이블 및 충전 거치대, 프리볼트 어댑터, 슬라이딩 키패드
크기/무게	114 X 59 X 26.5mm / 203g

매일매일 쏟아지는 불교세상



언제나
부처님 세상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큰스님친견, 성지순례 어디나 한눈에 찾아가는



전국 주요 사찰 및
관광안내, 맛집정보,
숙박시설, 온천 등
모든 목적지를 한번에
찾아갑니다
₩ 880,000원